

수원시 중도입국청소년 생활실태 조사 연구

The Study on the Living Conditions of Immigrated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Suwon

이영안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영안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한연주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이현승 (수원시정연구원 과제연구원)

연구 자문위원

허승연 (수원시글로벌별칭소년드림센터 부센터장)

© 2017 수원시정연구원

발행인 이재은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더함파크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쇄 2017년 11월 25일
발행 2017년 11월 30일
디자인 디자인펌킨 Tel. 031-893-8315~7
I S B N 979-11-87778-59-2 (9333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이영안. 2017. 「수원시 중도입국청소년 생활실태 조사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비매품

국문 요약

최근 한국사회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이민자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결혼이민 지원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자녀지원 정책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 중 재혼비용의 증가로 부모와 함께 한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입국하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중도입국청소년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이들의 적응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도입국청소년은 외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다 부모의 재혼이나 취업 등 신분상의 변화로 인하여 부모를 따라 한국에 동반 입국한 청소년들로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라기보다 부모의 환경 변화를 수용함으로써 주어진 사회적 지위이다.

우리나라의 중도입국청소년은 한국에 대한 이해 없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기 위해 입국하는 방문동거비자, 여행비자 등으로 입국하기 때문에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이다. 정확한 통계인구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입양 또는 귀화하지 않는 이상 법적지원 대상이 되지 않아 관련법 역시 부재한 상황으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과 정책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수원시에 거주하는 중도입국청소년 161명을 대상으로 가정환경, 심리·사회적응, 학교경험, 진로 및 진학, 사회적 인식, 지원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계량지표는 중도입국청소년들에 대한 다문화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학문적 연구 활동을 하는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질적연구방법의 형태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추가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접근을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발견과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초기 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국 초기에 별다른 활동 없이 그냥 집에 있었다는 비율이 47.2%로 나타나 한국 적응을 위한 정보를 전달받는데 제한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초기 정착의 불안정성은 한국생활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하거나, 이후 예측되지 않는 일탈행동 등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적응 프로그램의 양적·질적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둘째, 중도입국청소년들은 한국어 실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한국어 소통능력이 이들의 진로나 취업 등을 결정하는데 핵심 요인이 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중도입국청소년의 36.0%는 입국 초기에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 수준이었으며, 현재에도 보통수준 또는 못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부족한 한국어 의사소통능

력은 이들이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 사회경제적 지위(SES)는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 제도와 정책마련에 대해 논의하였다.

셋째, 특별한 목표나 진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청소년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다. 직업 및 진로설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직업 체험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중도입국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진로교육, 취미활동, 직업기술훈련 등과 같은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성이 요구되어짐을 확인하였다.

넷째, 부모와 오랜 시간 떨어져 살던 경험을 가진 중도입국청소년들을 위해 지속적인 심리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64.0%에 달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한국에 정착하는데 가족 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체제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 등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결과와 정책적 제언들은 향후 중도입국청소년들을 위한 지원방안과 제도의 기틀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문화 인식과 사회적 차이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이려는 시민의식의 향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중도입국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다문화 정책, 한국사회 적응,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 차례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3
제2장 중도입국청소년 관련 논의	5
제1절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이해	5
1. 중도입국청소년의 개념	5
2. 중도입국청소년의 특성 및 문제점	7
제2절 중도입국청소년 관련 해외사례	10
1. 미국	10
2. 캐나다	15
3. 프랑스	16
4. 독일	18
제3장 중도입국청소년 현황	21
제1절 중도입국청소년 관련 제도	21
1. 중도입국청소년 관련 법률	21
2. 중도입국청소년 관련 제도 및 정책	32
제2절 중도입국청소년 현황	43
1. 전국 다문화 가정 현황	43
2. 전국 중도입국청소년 관련 현황	46
3. 수원시 중도입국청소년 관련 현황	53
4. 중도입국청소년 인식 현황	56
제4장 수원시 중도입국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결과	61

제1절 설문조사 개요	61
1. 조사개요	61
2.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63
제2절 가정환경	72
1. 동거현황	72
2.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73
3. 소득수준	76
4. 가족관계	77
제3절 심리·사회적응	79
1. 어려운 일을 의논할 상대	79
2. 생활만족도	80
3. 가족 및 친구관계	80
4. 자아인식	81
5. 심리적 스트레스	82
6. 한국에 대한 인식	83
7. 한국문화 적응	85
제4절 학교경험	87
1. 학교진학	87
2. 학교생활	88
3. 학업중단	91
4. 친구관계	95
5. 학습과정 만족도	96
6. 사교육 경험	97
제5절 진로 및 진학	99
1. 향후 한국 거주 여부	99
2. 진로	99
제6절 사회적 인식	104
1. 다문화 인식	104
2. 차별경험	105
3. 현재고민	106
4. 이주계획	107

제7절 지원	109
1. 지원기관 이용경험	109
2.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	112
3. 한국사회에 바라는 점	113
제5장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분석 결과	117
제1절 조사개요	117
1. 배경 및 목적	117
2. 조사대상 및 방법	117
3. 조사내용	117
제2절 부모 집단 의견조사	118
1. 가정환경	118
2. 진로 및 진학 계획	119
3. 한국정착의 어려움	119
4. 정책지원	119
제3절 전문가 집단 의견조사	120
1. 중도입국청소년 현황	120
2. 이주과정 및 체류과정의 어려움	121
3. 정책지원	121
제6장 결론	123
제1절 조사결과 요약	123
1. 설문조사 결과	123
2. 질적조사 결과	128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29
1. 문제점	130
2. 발전방향 및 정책제언	131
참고문헌	137
부록	139

1. 한국어 설문지	139
2. 영어 설문지	153
3. 중국어 설문지	168

| 표 차례 |

〈표 2-1〉 이주아동 수 추정	7
〈표 3-1〉 중도입국자녀 지원 관련 법률	22
〈표 3-2〉 UN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원칙	23
〈표 3-3〉 UN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	23
〈표 3-4〉 여성가족부 관련 지원정책	33
〈표 3-5〉 무지개청소년지원센터 주요 사업	34
〈표 3-6〉 교육부 관련 지원정책	36
〈표 3-7〉 경기도 중도입국청소년 지원정책	38
〈표 3-8〉 경기도교육청 중도입국청소년 지원정책	39
〈표 3-9〉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정책	39
〈표 3-10〉 다문화 혼인 유형별 규모 및 비중(2013~2015)	43
〈표 3-11〉 다문화 출생아 수 및 출생성비(2013~2015)	44
〈표 3-12〉 지역별 혼인 건수 및 다문화 비중(2013~2015)	45
〈표 3-13〉 지역별 출생아 수 및 다문화 비중(2013~2015)	46
〈표 3-14〉 연령 및 성장배경별 다문화 가족 자녀 수	47
〈표 3-15〉 연령별 체류 외국인 수	48
〈표 3-16〉 만 19세 이하 귀화신청자 현황	48
〈표 3-17〉 9~24세 중도입국 다문화 가족 청소년의 재학 현황	49
〈표 3-18〉 15~24세 중도입국 다문화 가족 청소년의 재학 및 취업 여부 분포 · 50	
〈표 3-19〉 15~24세 중도입국 다문화 가족 청소년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 50	
〈표 3-20〉 15~24세 중도입국 다문화 가족 청소년 취업자의 임금 수준 · 51	
〈표 3-21〉 국내거주기간별 9~24세 중도입국 다문화 가족 청소년의 지원 요구 · 52	
〈표 3-22〉 수원시 국적별 외국인 주민 현황	53
〈표 3-23〉 수원시 외국인 주민 구성 현황	54
〈표 3-24〉 수원시 외국인 주민 자녀 현황	54
〈표 3-25〉 수원시 외국인 등록 아동·청소년 현황	55
〈표 3-26〉 중도입국청소년이 한국에 오게 된 계기	57
〈표 3-27〉 한국입국 후 가장 힘든 사항	58
〈표 3-28〉 5세 이상 외국성장 자녀가 주로 하는 활동별 현황	59

<표 4-1> 설문문항의 영역별 구성	62
<표 4-2> 성별 분포	63
<표 4-3> 연령별 분포	63
<표 4-4> 출신국적 및 현재국적 비율	64
<표 4-5> 귀화신청 및 영주권 신청 비율	64
<표 4-6> 체류자격(발급 비자 종류) 구분	65
<표 4-7> 입국연도 및 체류기간 비율	65
<표 4-8> 거주지 분포	66
<표 4-9> 입국 전 생활형태 비율	67
<표 4-10> 입국 전 주요 활동	67
<표 4-11> 입국 초기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 및 한국어 습득방식	68
<표 4-12> 현재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	69
<표 4-13> 입국동기	70
<표 4-14> 입국 후 최초 3개월간의 주요 활동	71
<표 4-15> 입국 직후 최초 3개월간의 주요 고민사항	71
<표 4-16> 동거 가족 현황	72
<표 4-17>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	73
<표 4-18> 부모의 출신국적 및 체류자격 현황	74
<표 4-19> 부모의 연령 비율	74
<표 4-20> 부모의 최종학력 비율	75
<표 4-21> 부모의 직업 현황	76
<표 4-22> 소득수준 비율	76
<표 4-23> 가족들과 의사소통 시 사용하는 언어	77
<표 4-24> 가족들과의 관계	78
<표 4-25> 새 부모님과의 관계	78
<표 4-26> 주로 고민을 의논하는 상대	79
<표 4-27> 현재 생활 태도	80
<표 4-28> 가족 및 친구관계	81
<표 4-29> 자아인식	82
<표 4-30> 심리적 스트레스	83
<표 4-31> 한국에 대한 인식	85

<표 4-32> 한국문화 적응에 대한 인식	86
<표 4-33> 국내 정규교육 진학시기: 연령별 비율	87
<표 4-34> 국내 정규교육 진학시기: 학년별	88
<표 4-35>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형태	88
<표 4-36> 학년별 비율	89
<표 4-37> 학교 공부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	90
<표 4-38> 학교 친구들과 생활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	90
<표 4-39> 가장 어려운 과목	91
<표 4-40> 학업 외 시간활용	92
<표 4-41> 향후 학업 지속여부	92
<표 4-42> 학업 지속을 위해 필요한 도움과 지원	93
<표 4-43> 현재 진학을 계획 중인 학교	93
<표 4-44> 상급학교 진학 계획	94
<표 4-45> 학교에 진학하지 않을 시 향후 계획	94
<표 4-46> 친구의 수	95
<표 4-47> 친구의 출신국가 비율	96
<표 4-48>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96
<표 4-49> 개설되기 희망하는 교육 프로그램	97
<표 4-50> 귀가 후 여가시간의 활용	97
<표 4-51> 사교육 경험	98
<표 4-52> 향후 배우고 싶은 과목	98
<표 4-53> 향후 국내 거주 여부	99
<표 4-54> 향후 진로 계획	100
<표 4-55> 진로선택 및 미래설계에 대한 고민해결 방식	100
<표 4-56> 진로선택을 위해 필요한 도움	101
<표 4-57> 선호하는 직업교육의 분야	102
<표 4-58> 향후 하고 싶은 일	103
<표 4-59> 진로에 대한 인식	104
<표 4-60> 다문화 인식	105
<표 4-61> 차별경험	105
<표 4-62> 차별에 대한 대응방식	106

<표 4-63> 고민의 우선순위	107
<표 4-64> 정착 및 이주계획	107
<표 4-65> 한국을 벗어나고 싶은 주요 이유	108
<표 4-66> 도움을 청할 곳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109
<표 4-67> 지원기관 인식도 및 이용경험	110
<표 4-68> 지원기관에 도움을 청한 경험	110
<표 4-69> 지원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	111
<표 4-70> 도움을 청한 경우 지원기관 이용 만족도	111
<표 4-71> 지원기관의 선호도	112
<표 4-72>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지원 사항	113
<표 5-1> FGI 집단 구분 및 조사내용	118

| 그림 차례 |

<그림 1-1> 연구방법 및 수행 체계도	4
<그림 2-1> 이주배경청소년의 구성	6
<그림 3-1> 다문화자녀의 편·입학 절차	36
<그림 3-2> 경기도 다문화가족지원 운영체계	38
<그림 3-3> 수원시 다문화팀 조직 현황	40
<그림 3-4>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조직 현황	41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최근 한국사회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이민자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결혼이민 지원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자녀지원 정책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 중 재혼비율의 증가로 부모와 함께 한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입국하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중도입국청소년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이들의 적응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도입국청소년은 외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다 부모의 재혼이나 취업 등 신분상의 변화로 인하여 부모를 따라 한국에 동반 입국한 청소년들로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라기보다 부모의 환경 변화를 수용함으로써 주어진 사회적 지위이다.

우리나라의 중도입국청소년은 한국에 대한 이해 없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기 위해 입국하는 방문동거비자, 여행비자 등으로 입국하기 때문에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이다. 정확한 통계인구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입양 또는 귀화하지 않는 이상 법적지원 대상이 되지 않아 관련법 역시 부재한 상황으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다수가 부모와 떨어져 모국에서 성장하다 정서적으로 예민한 10대 중·후반(중·고등 학생)의 사춘기 혹은 후기 청소년기에 어쩔 수 없이 입국을 결정한 강요된 선택이라는 점에서 심리적·정서적으로 불안정성이 내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인 우리나라 사회 및 문화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어려움과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중도입국청소년은 영유아와 달리 연령대가 높아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어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크다. 또한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정규 학교 입학이 어렵고, 이로 인해 대안학교 등의 지원을 받아도 언어나 학력 상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학교를 졸업한다 하더라도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안정적인 정착이 어렵다. 즉, 언어 문제, 학교 적응 문제, 경제적 자립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되거나 범죄조직에 가담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모 따라 한국 온 중도입국청소년들, 언어 서툰고 학교도 못다녀 ‘교육소외’ [문화일보 2016. 12. 19]

조선족 중도입국청소년 A(16) 양은 최근 지하철을 타다 역무원에게 크게 혼이 났다. 청소년이 아니면서 청소년 요금으로 지하철을 탄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A 양은 학생증이 없는 데다 아직 한국어도 서투른 탓에, “학생증이 없는데 왜 청소년 카드로 지하철을 탔느냐”는 역무원의 추궁에 해명을 못 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중도입국청소년은 결혼 이주 또는 산업연수 등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부모와 떨어져 외국에서 생활하다 나중에 한국에 온 청소년을 뜻한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고 대안학교 등록자 기준 중도입국청소년은 2012년 4288명에서 2016년 7418명으로 4년 새 1.73배로 늘었다.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예 국내 공교육에 편입하지 못한 아이들을 포함하면 중도입국청소년은 최대 2만8000명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여성정책연구원의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중도입국자녀 중 학교에 다니지 않는 비율은 56.6%에 달하며 중도입국자녀 중 ‘한국어를 매우 잘한다’고 답한 비율은 37.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정책연구원은 또 중도입국자녀 3명 중 1명이 학업, 취업, 직업훈련 등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실제로 A 양도 지난해 10월 중국 지린(吉林)성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어머니를 따라 뒤늦게 한국에 왔지만, 서류 준비 등 문제로 고등학교 입학에는 실패해 수개월 동안 PC방 등을 전전하며 방황했다.

특히 복잡한 학업 인증 절차로 정상적 학업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도입국청소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은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이기 때문에 두 단계에 걸쳐 ‘공증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아포스티유는 복잡한 영사확인 절차 없이 외국 공문서를 상호 인정키로 한 국제협약이다. 광재석 한중사랑학교 교장은 “중도입국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정착해 건전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연구의 목적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의 형성과 함께 증가되고 있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조사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정책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수원시 거주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부모와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즉 수원시에 최적화된 맞춤형 정책 시행을 위한 기반마련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수원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통계 조사와 법령 및 시행 정책에 있어서 전국적 차원의 현황이 필요하므로, 중앙정부의 해당 자료 및 법령을 기초자료에 활용하며 세부적인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도입국청소년 현황 및 정책을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중도입국청소년 유입 인원과 가정의 구성 특징을 파악하고, 담당 부처와 근거가 되는 법령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중도입국청소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정책의 직접적 대상인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과 심리적 요구도 등 실증 파악을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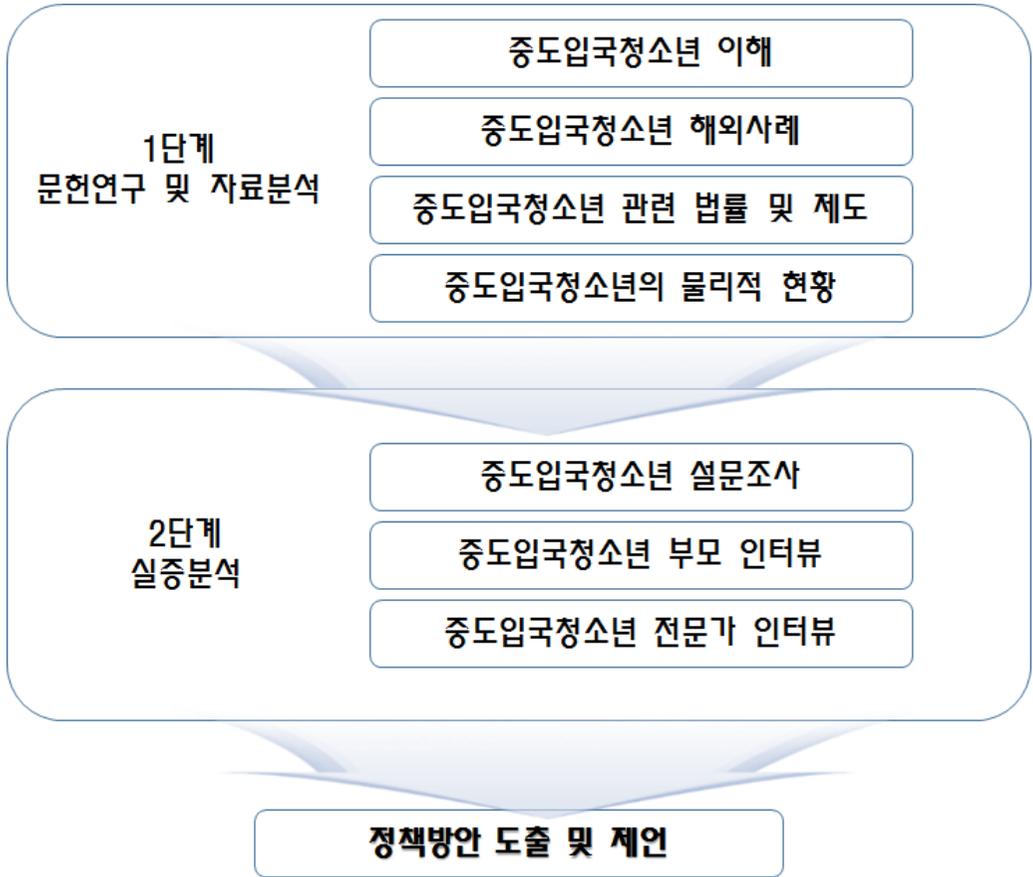
셋째, 중도입국청소년 부모 및 전문가 대상 FGI를 실시한다. 중도입국청소년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들의 부모와 함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구체적인 대안의 구성 요소를 탐색한다.

마지막으로 선행된 현황 파악과 분석 조사 등 결과를 통하여 중도입국청소년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현황 파악에 따른 대안 제시까지 순차적인 일련의 체계를 연구의 범위로 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연구 수행을 위한 방법은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1차적인 방법으로 문헌연구 및 자료 분석을 수행한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과 제도를 확인하고, 근거 법안을 살펴봄으로써 수행 근거와 적합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해외 사례를 통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현황 접근방법을 고안함과 동시에 국내 기초통계 분석을 통하여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2차적인 방법으로는 실증분석으로써, 중도입국청소년 설문조사를 수행한다. 직접 대상자의 실제 상황과 심리적 감흥의 파악을 통해 현장감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도입국청소년 부모 및 전문가 대상 FGI를 통하여 중도입국청소년 문제의 당사자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부모와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의 의견을 파악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안의 도출을 지향하고자 한다.



<그림 1-1> 연구방법 및 수행 체계도

제2장 중도입국청소년 관련 논의

제1절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이해

1. 중도입국청소년의 개념

1) 중도입국청소년의 세부적 정의

중도입국청소년이란, 2000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국제결혼 재혼가정의 증가에 따라 나타난 집단으로,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여 본국에서 살고 있는 자녀를 데려온 경우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청소년기에 재입국한 청소년의 경우를 의미한다.

그 외에 외국인 부모와 함께 동반 입국한 청소년의 경우, 근로 및 학업을 목적으로 청소년기에 입국한 외국인 무연고 청소년의 경우,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과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데려온 경우를 포함하여 보다 넓게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외국인 부모와 함께 동반 입국한 청소년의 경우, 외국인노동자 자녀로 구분되며 이들의 입국 자체가 불법이기에, 기본적인 교육권에 한하여 주장할 수 있으나 정부의 적극적 정책 지원 대상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학업을 목적으로 청소년기에 입국한 외국인 무연고 청소년의 경우는 유학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과 제 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데리고 입국한 경우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지원정책과 연장선상에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으로 통상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경우를 중도입국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있다(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13).

2) 중도입국청소년의 유사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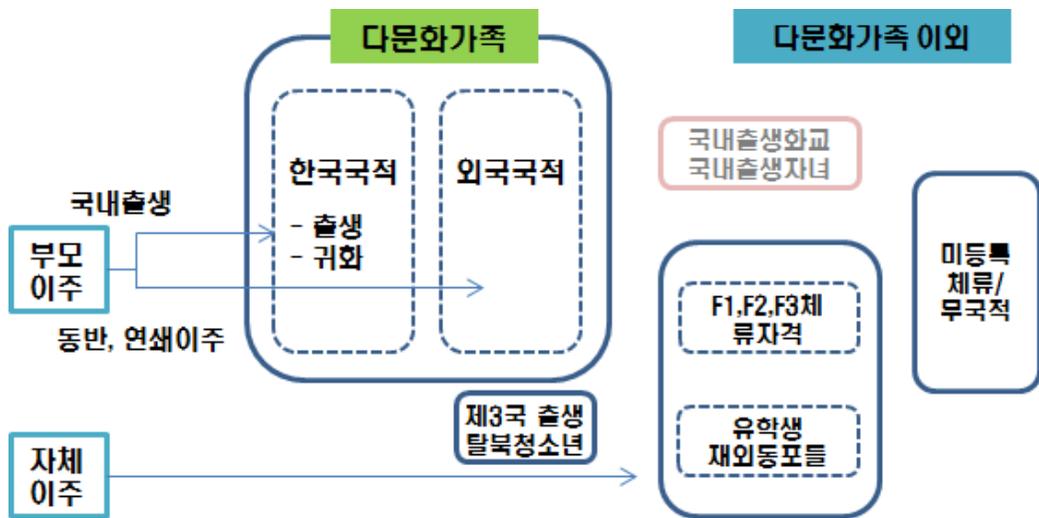
(1) 이주배경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이란 법령상 규정된 개념으로서, 중도입국청소년을 포함한 광의적 범위의 개념이며 세부내용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 정의가 되어 있다. 이 법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이주배경청소년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주배경청소년(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 1항)으로는 결혼이민자나 귀화자의

청소년기 자녀와 그 자신이 귀화한 청소년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상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 이외에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이를 근거로 다문화가족에게도 제공되는 몇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 청소년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한국 국적자들은 국민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의 대상이 된다. 국제결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가족 자녀처럼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

이밖에 부모를 따라 자신도 이주한 이후 귀화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또는 스스로의 자격으로 귀화한 다문화가족 청소년도 있다. 다른 한편, 다문화가족 청소년 가운데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국민에 대한 지원에서는 제외되지만 다문화가족으로서의 지원 대상에는 포함된다는 점에서 여타의 이주배경청소년과는 다소 다른 위치에 있다(김이선, 2016).



자료: 김이선, 2016. 「이주배경청소년 구성 전망과 정책 요구」,

<그림 2-1> 이주배경청소년의 구성

(2) 이주아동

이주아동은 법적인 정의는 아니지만 유사개념으로써, 한국 국적 없이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출생지에 따라 외국 출생자와 한국 출생자로, 국적에 따라 외국적자와 무국적자로, 체류자격에 따라 등록아동과 미등록 아동으로 나뉜다. 또한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나 보호자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한 아동뿐만 아니라 외국인 부모의 자녀로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도 포함된다. 즉 이주아동은 중도입국청소년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아동은 10만 명이 넘고, 그 중 10~20%는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추산되고 있다.

〈표 2-1〉 이주아동 수 추정

(단위 : 명)

분류	이주아동 수	비고
19세 이하 총체류외국인	90,727명	2015년 3월 출입국 외국인 통계월보
18세 미만 총체류외국인	81,654명	위 통계연보를 바탕으로 한 추산치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18세 미만 이주아동	20,000명 내외	관련 전문가들이 추산하고 있는 국내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의 수

자료: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 2015. 「이주아동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브리프」.

2. 중도입국청소년의 특성 및 문제점

1) 외국인 신분에서 오는 한국사회 적응의 어려움

중도입국청소년은 단순히 결혼이민자의 자녀를 벗어나 실제 외국인이라는 신분에서 출발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한국에 입국하여 사회 적응과 공교육에 진입하는 것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박성욱, 2016).

이들은 국제결혼 가정에서 출생한 다문화 가정 자녀들과 다르게 부모와 떨어져 거주한 경험, 교육적 공백, 가정의 불안, 방임과 방치 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류방란·오성배, 2012), 한국어 습득의 어려움, 생활공간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회·문화적 적응은 물론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도입국청소년 중에서 대다수가 만17세 이상 후기 청소년이며, 중학교 학령기 중도입국자녀들도 지속적으로 입국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오성배, 2011; 양계민·조혜영, 2011).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은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실제로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일반학교 진입 후에 여러 차례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 신분이 바뀌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다. 이들은 교육기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정규학교에 입학하기 힘들며, 대안학교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언어나 학력 신장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학교에 입학 한 후에도 학습 수행, 교우관계 등의 어려움이 있으며, 가족구성 관계도 복잡하여 가족 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청소년기에 한국사회에 입국함으로써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며 경제적 어려움 등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장명선, 2011).

중도입국청소년들은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입국하여 학교에 제대로 적응할 수 없으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언어 구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학업을 따라가기가 어렵고 부모의 맞벌이가 많아 방치되기 일쑤여서 학교 밖에 머무는 중도입국청소년이 많으며(글로벌 코리아, 2015), 특히 외국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또 다른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경우도 많다.

2) 사회적 배제로 인한 이탈 가능성

중도입국청소년은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얻은 소위 전형적으로 일컬어지는 다문화가족 아동들에 비하여 이중, 삼중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사회적 배제와 이탈에 빠질 개연성이 높다. 즉 이들은 가정적으로 원부모의 이혼과 타국에서의 재혼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경험되는 심리적 고통과 후속적 문제행동에 대하여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금명자 외, 2006).

또한 중도입국청소년은 본국과 한국 간 문화의 상이성에 따라 가치관 혼란과 충돌 속에 놓이기 쉽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다문화가족 청소년들과는 다르게 한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한국어 학습 등의 사전준비 없이 입국함으로써 한국사회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중도입국청소년은 대개 본국에서 어머니가 결혼하기 위해 떠난 후, 외조부모와 함께 살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며, 또한 한국에 입국한 후에도 1년 정도 홀로 집안에 머무르게 되어 결국은 오랜 기간 교육공백을 경험한다. 언어부족과 사회 자체에 대한 몰이해에 따른 학습문제 이외에도, 중도입국청소년은 다른 학생들과는 확연히 다른 외모, 눈동자 색, 머리스타일, 말투 등이 이들의 소외와 배제를 강화시킬 수 있다(김현주, 2007). 연령이 낮을수록 갈등조정 기제가 발달하지 않아 소외나 배제 경험이 심리적 공포나 충격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학교입학 자체의 포기, 중도포기, 한국사회·한국인에 대한 불안감 혹은 적대감, 외부와의 관계 단절 등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정책적으로도 중도입국청소년의 기본적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즉 중도입국청소년은 한국 내에서 출생한 다문화 가족 청소년과 달리 사회적 보호를 제공받고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김미선, 2010; 오성배, 2007). 한국 내에서 출생한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은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1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이 되나, 중도입국청소년들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양육이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법적 제재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이병철 외, 2011).

3) 상호작용 부재에 의한 문제

중도입국청소년 대부분은 본국에서 학습의 공백을 경험하였거나 학습 수행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으로 이주하기 전에 이주에 대한 준비 없이 막연하게 이주하게 되었다(장명선 외, 2011). 한국으로 이주 후에 한국말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으나 상급학교 진학이나 학습에 대한 중심보다 취업을 희망하며 상황이 비슷한 본국에서 온 또래와 어울리기 때문에 한국어가 서툴러 상호작용 부재에서 오는 인권문제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한국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입국 시기가 오래될수록 문제 행동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친모와 관계 형성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툰 한국어로 인해 양부와 상호작용의 어려움을 겪으며 더욱 심한 갈등관계에 놓이게 되고 또한 밖의 활동을 거의하지 않았으며 집에 혼자 있는 등 고립된 생활을 하는가 하면 매우 소극적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손영화 외, 2015).

4) 경제적 결핍으로 인한 문제

사례 연구 결과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학교 다니는 것이 힘들어서가 가장 많았고, 돈을 벌기 위해 등의 이유로 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 이는 경제적 결핍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가능하다. 이 빈곤은 경제적·물질적 결핍에 그치지 않고, 사회와 문화 전반으로부터 결핍과 소외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

부모들의 빈곤은 자녀의 사회적 관계 형성 어려움이나 낮은 사회적 위치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한국의 지속적 거취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손영화 외, 2015).

중도입국청소년 지역별 지원 실태에 대한 분석 丙 경기지역 현장 인터뷰 [IOM 이민정책연구소, 2013]

센터에 오는 아이들의 한국어 능력이 비슷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전부 제각각이죠. 어떤 아이는 자음, 모음부터 가르쳐야 하고, 어떤 아이는 말하고 듣기는 하는데 글을 못 쓰고, 제대로 가르치려면 거의 1대 1로 붙잡고 가르쳐야 해요.

- 생략 -

제가 만난 아이 중에서 베트남에서 온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아버지는 한국사람이고 어머니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의 자녀인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보니 이 아이를 베트남에 외조모에게 보내게 되요. 한국에서 생활고가 심하니까요. 잠시 키워달라고 보낸거죠. 그때 아이의 나이가 4살인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1~2년 말기려고 한 건데 생활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 사이에 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고 외조모도 더 이상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아이를 한국에 다시 데려오게 됩니다. 그 때 나이가 10살이예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4살 까지 자랐는데 한국말도 전혀 못하고 그냥 베트남 아이로 자란거죠. 베트남에서 5학년까지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말을 전혀 못하니 바로 학교에 보낼 수 없어서 한국말도 가르치고 그러다가 4학년으로 학교에 보냈어요. 학교를 보내고 나서도 어머니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렸어요. 일을 몇 개월 정도 쉬시면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달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주양자인 외할머니와도 떨어지고 낯선 환경에서 누군가 함께 있어야 안정도 되고 적응이 쉽겠죠. 이런 부분은 센터에서 해줄 수는 없는 것이죠.

- 생략 -

중도입국청소년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이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다는 거죠. 한국말도 못하고 모든 게 낯설고 자기에는 틈이 없어 보이는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하나 하는 불안감도 들겠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무기력해요. 수동적으로 행동하고 소극적이고요. 한국어가 배우기 쉬운 언어가 결코 아니예요. 배우는 것도 더디고 한국말이 서투니 학업도 잘해나갈 수 없는 거죠. 열심히 한다고 하긴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니 “이거 해서 뭐하냐” 싶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성취경험이 부족하다보니 성취욕도 낮은 편이예요.

- 생략 -

제2절 중도입국청소년 관련 해외사례

1. 미국

1) 주요 정책추진 방법

미국의 개방적인 이주정책으로 인한 이주민·난민의 증가는 이주배경을 지닌 아동·청

소년들의 증가를 촉진시켜왔다. 유치원부터 12학년에 이르는 이주가정자녀의 숫자는 1970년의 6%에서 2000년의 20%로 증가하였다. 이들 중 80%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며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인 반면, 61%는 부모 모두 혹은 부모 중 한 명이 비시민권자이다. 한편, 미국의 이주가정자녀 중 500만 명이 ‘미등록’ 부모를 가지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아동청소년 중 3분의 2는 미국 시민권자이기도 하다. 이는 부모의 신분과 별도로 이주가정자녀들이 자국에서 자라나고 교육을 받은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개방적인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법인 초·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of 1965)에 의거,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13년을 무상의무교육 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1982년 이후 미등록 이주아동도 동일 기간의 무상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사회의 모든 학령기 아동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교육기관에서 성, 인종, 계층, 장애,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학교육의 경우 입학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캘리포니아 등 몇 개 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 비주민 등록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 비싼 학비로 인한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다(이혜원 외, 2010).

미국의 이주민 정책이 동화주의에서 다문화주의로 변해 온 것처럼 이주가정자녀 정책도 마찬가지다. 미국으로의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일목요연한 정책이나 법은 없지만 대신 미국의 자유주의, 개인주의,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고 건강한 미국의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존재한다.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공히 미국의 일반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다문화, 반편견 프로그램이 공교육의 일반적 커리큘럼 안에 녹아들어 있는 것도 오랫동안 다문화 사회를 형성해온 미국이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해온 결과에 기인한다. 또한, 이는 미국의 이주가정자녀 정책이 거시적인 아동·청소년 정책 안에 포함하여 사회·경제적, 문화적 취약성에 따라 분류하여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예를 들어, 2001년 개정된 낙제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 2001)의 주요 내용 중에는 이주민이나 난민을 직접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이들이 궁극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이 다수 존재한다. 한편, 교육단절이 심한 이주민과 난민 아동·청소년 등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들에게는 이들의 필요성에 따라 좀 더 세밀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이민경 외, 2011). 미국의 대표적인 이주가정자녀 정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주아동(Migratory Children)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주가정자녀들은

부모나 그들 스스로가 일자리를 따라 잦은 이동을 하는 경향이 있어 교육단절을 가져오기 쉽기 때문에 학업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언어 지원 관련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교육부 내의 ‘영어 비숙련 아동을 위한 영어 습득, 언어 향상, 그리고 학업성취척(Office of English Language Acquisition, Language Enhance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for Limited English Proficient Students)’은 영어 학습자와 이주가정자녀들이 영어를 원활히 구사하여 학업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중언어교육 또한 영어 학습자(English Language Learner)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영어를 제2언어로 하기 때문에 언어 지원이 필요한 이들 청소년들이 영어를 배우는 동안 자신의 모국어로 기타 과목을 들으면서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이들 학생들의 학습 성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 및 중등교육법의 3조 영어미숙자 및 이주민 학생들을 위한 언어 교육(Title III, Language Instruction for Limited English Proficient and Immigrant Students)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다.

셋째, 뉴커머 프로그램(Newcomer Program)을 들 수 있다. 뉴커머 프로그램은 영어 비숙련 이주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기본적인 영어능력과 기초 학업능력을 획득하도록 하고 미국의 학교 시스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주로 학령기에 입국한 이주가정자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다. 가장 주요한 목표는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켜 정규 교육과정으로 무난하게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공교육의 이중언어, ESL, 정규과정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문해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같은 뉴커머라는 이름을 가진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교육기간, 지역의 위치, 교육시간의 길이, 가족환경, 활용할 수 있는 자원 등에 따라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다양성을 가진다. 그러나 대체로 공교육의 ESL이나 이중언어교육이 어려운 정도의 영어 비숙련자에 한해 최대 1년을 프로그램 적용 기한으로 설정하여 주류 사회로의 빠른 편입을 도모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정책은 뉴커머 학생들이 주류의 학생들과 분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비슷한 이유로 다수의 뉴커머 프로그램은 기존의 학교시설 안에 설치되어 있어서 일과 중 일부(체육, 음악, 미술 교육과 특별활동 등)는 주류의 학생들과 일상적 접촉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수의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이 종결된 후 같은 학교에 남아 ESL, 이중언어교육 등과 병행하여 정규 과정에서 공부를 계속하며 일부는 거주지 근처의 학교에 다니게 된다. 뉴커머 프로그램은 신규 이민자가 많이 몰려 있는 도시지역에서 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45% 정도는 고등학교 레벨, 23%는 중학교 레벨, 그리고 나머지는 중, 고교 레벨의 학생들 모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등학교 프로그램이 많

은 이유는 이 연령층의 이주 학생들이 정규교육과정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맞춤형인 교육적 개입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Boyson, B.A, 2003).

넷째, 난민 특화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내 아동가족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소속인 난민정착기구(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 ORR)에서는 난민가족, 아동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아동청소년을 위한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난민학교영향프로그램(The Refugee School Impact Program)과 무연고아동서비스(Unaccompanied Children's Services)가 있다(이민경 외, 2013).

2) 시사점

이처럼 미국의 이주가정자녀 정책은 효율성에 기반하여 필요에 따른 정책지원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한국과는 달리 이주민이 인구의 다수를 이루는 ‘이주국가’이고 또 철저한 ‘연방제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주민 관련 정책을 그대로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책은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특히,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주아동들에게 체류 자격을 불문하고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교육권 문제로 여전히 논란을 겪고 있는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이러한 결정이 기본권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이익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주가정자녀 모두를 특별한 지원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분리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는 사회전체의 다문화 역량 강화,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 빠른 시일 내 주류 사회로의 통합을 함께 도모하고 있음도 분리, 낙인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 정책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이주가정자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필요로 한다.

또한, 궁극적인 사회통합을 목표로 이의 관건이 지역사회에 있다는 인식하에 중앙정부와 관련 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협업을 도모하고 있음도 시사점이 크다고 할 것이다. 정부가 큰 정책의 방향성을 잡는 데는 리더십을 갖고 예산 지원을 하되 궁극적인 지원 사업은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내용과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용 대비 효과성을 높이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정책이다.

단, 미국은 최근 들어선 트럼프 행정부에서 반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어 향후 미국의 이민정책과 그 자녀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매우 가변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향후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 영향력에 따라 미국의 이주청소년 정책 방향이 기존과 같이 유지될 지 또는 변화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이민 단속 파장…범죄전력 없는 추방유예 청소년까지 체포 [한국일보. 2017. 2.16]

미 전역 곳곳에서 불체자 급습작전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유예(DACA) 서류미비 청소년까지 체포해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민자커뮤니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주 당국에 체포된 추방유예 이민자는 범죄전력이 없었고, 추방유예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돼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유예 폐지 수순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남가주 지역을 비롯해 미 전역 11개 주에서 이민당국의 급습작전이 전개됐던 지난 10일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 서류미비이민자 대니얼 라미레즈 메디나(27세)가 집에 들이닥친 ICE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7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메디나는 지난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DACA) 행정명령으로 추방유예를 승인받아 워크퍼밋까지 발급받은 상태였고, 범죄전력도 전혀 없어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밝혀온 이민단속 대상 불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버지 집에서 잠을 자던 중 ICE 요원들이 들이닥쳐 체포하려 하자 메디나는 추방유예자로 워크퍼밋을 소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체포를 막지 못했다.

메디나의 변호인에 따르면, 당시 ICE 요원들은, “(추방유예가) 중요하지 않다. 너는 이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되는 것)이다” 고 체포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메디나는 지난 2016년 경찰에 150달러짜리 속도 위반 티켓을 받은 것이 유일한 법원 기록이며, 지난해 추방유예를 갱신해 오는 2018년까지 추방유예가 유효한 상태였다.

추방유예 신분인 메디나의 체포 사실이 알려지자 이민자 단체들은 메디나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은 15일 긴급성명을 통해 “트럼프 취임 이후 아직까지 추방유예 프로그램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방유예 수혜자를 체포하는 것은 인권과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메디나를 즉각 석방하라” 고 당국에 요구했다.

메디나측은 이날 즉시 연방법원에 메디나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민당국은 메디나에 대한 추방절차를 강행할 방침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 캐나다

1) 주요 정책추진 방법

매 해 캐나다로 들어오는 20만여 명의 이주민 중 약 30%는 25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이다. 66%는 경제이민, 19%는 가족초청이민, 그리고 15%는 난민아동·청소년이다. 이들은 주로 가족을 동반한 피부양자이지만, 학교나 직장을 목적으로 혼자 이주하는 아동·청소년도 있다. 캐나다 사회개발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캐나다 아동 인구 당 이주아동의 비율은 25%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김효신, 2009).

이처럼, 다문화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캐나다는 이주가정자녀들이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캐나다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문화적, 경제적 자원들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맞춤’ 과 ‘참여’ 가 정책에 있어서의 중요한 키워드이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 개개인의 처지와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청소년들이 적극적 기획자로 참여하는 프로그램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김효신, 2009).

캐나다는 연방국가인만큼 구체적인 이주아동청소년지원 프로그램은 주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제도로써 SWIS(Settlement Worker in Schools)라는 전담인력 제도가 있다. 이 SWIS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착 지원 담당자들을 이민자가 많은 지역의 학교에 배치시켜, 기존 교사의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다. 전담인력은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과 상담을 하고, 개인별 요구에 적합한 생활지도와 안내를 보조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에 재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이민경 외, 2013).

2) 시사점

캐나다도 미국처럼 기본적으로 다수의 이주자로 구성된 ‘이민국가’ 이고 연방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한국과는 맥락이 다르다. 그러나 미국정부보다는 연방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가정체성 자체를 다문화국가로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포괄적인 이민자 통합정책을 펼치고 있다. 동시에, 연방정부가 세세한 서비스에 개입하기보다는 다양한 민간 영역,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주류 사회와 이민자 사회 등 다양한 수준과 영역 사이의 협력체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문화주의를 국가의 근본정책으로

선언한 국가이건만, 전체사회의 ‘다문화화’에 있어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왔는지 등에 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민자 통합에 있어 주류 사회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함을 인지하고 호스트 프로그램 마련한 점, 이민자 사회의 자조력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이민자 집단의 수혜자화를 극복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문화 사업에 있어서 무엇보다 전체 주민의 반차별, 반편견 의식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 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문화 정책에 있어서 ‘맞춤형 지원을 통한 효과성 증대’, ‘참여를 통한 자신감과 연대감 증대’, ‘반차별 교육을 통한 다수자 변화와 상호간 소통’ 등이 균형있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캐나다의 이주가정자녀 정책의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

3. 프랑스

1) 주요 정책추진 방법

프랑스는 통합을 지향하는 이주민 정책상 이들을 특별하게 배려하는 정책에 인색한 대신 이들을 사회적 약자로 간주하여 지원하는 사회 복지적 시스템은 잘 발달되어 있다. 따라서 프랑스 이주가정자녀 정책은 공화주의적 원칙아래 일반 가정 자녀들을 위한 지원 틀 속에서 이들을 지원하려는 보편적인 아동·청소년 정책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프랑스 자국민과 외국인과의 결합에 의한 소위 국제결혼 가정은 프랑스가 주목하는 이주민 집단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거나 사회적 권리에 있어 프랑스인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travailleurs immigrés et leur famille)을 대상으로 하는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 정책이 존재한다(이민경 외, 2011).

프랑스 혁명이래로 대표적인 인권국가의 명성을 지니고 있는 프랑스는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민의 경우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 프랑스 시민과 동등한 수혜의 대상이 되는 공고한 사회적 인프라를 조성해 왔다. 비합법적인 외국인 체류자의 경우도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사회적 보조는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프랑스는 아동들의 교육권을 유엔의 아동 인권 협약과 프랑스 혁명정신에 입각해 합법적 체류여부 등 부모들의 신분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든 학령기 아동들은 부모의 여건과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 이러한 권리를 프랑스는 현실적으로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불법 체류자(Sans Papier)라 하더라도 아이들이 프랑스에서 공교육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만 18세 이하 아이들의 학교 등록 절차에서 부모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신분이 미등록인지 아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최근 프랑스의 이주민 정책이 과거에 비해 폐쇄적으로 전환하면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이 국가적으로 시행되었는데 학령기 자녀를 둔 불법체류자 신분인 부모들은 추방 대상에 오르더라도 자녀들이 현재 프랑스에서 학교 교육을 받고 있으면 당국의 심사를 거쳐 아이들이 학업을 마칠 때까지 부모들에게 임시체류 허가증을 발급해 줌으로써 합법적으로 프랑스에 거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도 하였다.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인권적 차원에서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모와 함께 합법적으로 체류한 미성년 아이들의 경우 처음에는 5년간의 체류증을 발급받고 이후에 10년짜리 체류증을 발급 받는다. 따라서 부모의 프랑스 체류기간이 끝나더라도 자녀들은 프랑스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고 졸업 후에 직장생활을 하는데도 프랑스인과 차별을 받지 않는다(이민경 외, 2013).

2) 시사점

프랑스의 이주가정자녀 정책은 보편적인 아동·청소년 정책 테두리 안에서 이주 배경을 지닌 청소년들이 주류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균등한 권리를 가지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프랑스가 특정한 인종·민족적 배경에 따라서 특별한 시혜정책을 펼치지 않는 공화주의적 전통에 기인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격별, 대상별 지원을 하지 않고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이와 같은 정책을 성공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민 2,3세들의 집단적인 소요 사태와 그들에 의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테러가 발생하여 기존 정착층과 이민자 사회를 분리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실업·차별... 이민 2·3세 ‘폭발’

[서울신문. 2005.11.4]

파리 교외의 저소득층 거주지에서 지난달 27일 발생한 소요사태가 3일,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다. 소요 사태는 프랑스 주류 사회에 진입하지 못하고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아프리카계 이주민들의 현주소를 새삼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이민 2,3세들은 프랑스에서 태어나 프랑스식 교육을 받았지만 사회에 나가면서 인종 차별에 직면,

좌절과 분노를 겪으면서 결국 이번 소요사태와 같은 심각한 도시폭력의 주범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사회학자인 로랑 무치엘리는 “젊은이들의 사회적응은 취업과 직결된다. 직업을 갖지 못한 젊은이들은 결국 거리로 내몰려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불량배로 전락하게 된다.” 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발원지인 클리시 수 부아의 거리에서 돌아다니는 청년들 중 절반 이상이 직업 없이 사회의 보호막으로부터 외면당한 상태” 라고 말했다.

실제로 프랑스인의 실업률이 9.2%인 반면 외국계 이주민의 실업률은 14%에 이른다. 대졸자 전체 실업률은 5%인 데 비해 대졸 이민자 실업률은 26.5%나 된다.

프랑스에서는 인종차별이 법으로 금지되고 있지만 사회 곳곳에서 차별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게 인권단체들의 지적이다. 무슬림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경계심이 커 이슬람식 이름을 가지고선 영업직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 무슬림이나 아프리카계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월세를 구할 때도 집주인이 꺼려 복덕방에서 서류조차 받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민자들이 도시 외곽의 저소득층 집단 거주지역에 몰리는 것은 돈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주류 사회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프랑스 인구 6100만명 중 500만명이 무슬림이다.

프랑스의 역대 정부는 과거 식민지로부터 대거 건너온 외국계 이주민들을 주류 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해 지난 25년간 정책을 꾸준히 펴왔다. 미테랑 사회당 정권 당시인 지난 1981년 제2도시 리옹 교외에서 이와 비슷한 소요사태가 발생한 뒤 도시문제 전담 장관직을 신설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회학자들과 도시학자들은 정책이 별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25년전 있었던 리옹 교외의 도시 폭력사태를 계기로 도시 빈민층 자녀들과 이민 2,3세 청소년 문제에 전념하고 있는 들로름 신부는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덮는 데 급급해 온 정치인들의 접근방식이 문제” 라며 “소외계층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학업에 대한 즉각적인 적응과 같이 반드시 성공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들의 인식 뿐 아니라 기존 시민들의 의식구조 개선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에 대한 불평등이 잔존함으로써 장기적인 위협 요소로 표출되는 것이다. 단 기간 동안 중도입국청소년뿐 아니라 전체적인 이주배경청소년이 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장기적 관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으로 꼽을 수 있다.

4. 독일

1) 주요 정책추진 방법

주류 사회로의 통합을 기조로 하는 독일의 이주 정책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이주가정자녀들을 위한 정책도 이들의 사회통합을 돕고 주류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원을 펼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이주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부처는 연방정부 차원의 청소년부 산하 ‘기회균등 부서’에서 ‘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을 일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기회균등’의 관점에서 이주가정아동·청소년 정책이 서로 일관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 부서의 대상과 목적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통한 사회통합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모든 청소년 가운데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가정 형편 등으로 인해 취약한 청소년들’에 대한 기회균등 보장을 통한 ‘사회통합’에 있다. 즉,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일반적 아동·청소년 정책의 맥락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이수정 외, 2008).

한편, 독일은 각 주정부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이주배경의 아동·청소년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는데 연방정부가 이미 존재해 있는 지역사회 민간단체들을 조직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도록 하되, 각 단체의 상황 및 해당 커뮤니티의 상황에 맞게 동일하지 않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담보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연방정부보다 지방정부의 영향력이 큰 독일에서는 주된 실행기관 및 프로그램은 모두 지방정부 소관 내 청소년청에서 하게 된다. 이 외에도 연방 정부 차원에서, 노동과 사회업무부(Federal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건강부(Federal Ministry of Health), 교육과 조사부(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등에서 아동·청소년 업무를 부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가족, 노인, 여성 그리고 청소년부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기회균등부서’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기회균등부서에서 진행하는 이주민 자녀 통합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사회적·직업적 통합”에 목표를 두고, 학업중도포기 탈락율을 낮추고 청소년들의 취직률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점에서 특징적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업으로 두 번째 기회 프로그램과 이주청소년 서비스 기관(Jugendmigrationsdienst)운영 사업을 들 수 있다(이민경 외, 2013).

국민 20%가 이방인... ‘다문화’를 하나로 통합하다 [국민일보, 2015.11.1]

독일은 8050만 인구 중 20%가 이민가정 출신 배경을 가졌을 정도로 친(親)이민자 사회로 통한다. 매년 20만~30만명의 이민자들이 독일사회로 편입되고 있다. 이민자들은 최근 몇 년 사이 더욱 많아져 5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35.5%가 이민자 배경을 가졌다. 수십만 명이 매년 새로 정착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조사에서는 독일에 거주하는 무슬림 중 약 45%가 독일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절반 이상은 스포츠클럽, 노조와 같은 '독일의 단체'에 가입하는 등 사회 동화가 생각보다 활발히 원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생략 -

각 프로경기 단체들이 청소년 클럽을 운영할 때 이민자 출신 학생들을 적극 포용하게끔 독려하고 있다. 프로농구팀인 '베를린 알바'의 다니엘 엔드레스 매니저는 "이민자 출신 학생들은 방황하기 쉬운데 스포츠 활동 참가를 통해 사회 적응력을 키우고 있다"고 소개했다.

독일은 이민자 자녀를 위한 교육투자에도 적극적이다. 베를린 주정부와 의회가 추진해온 '캠퍼스 휘틀리 선도학교'가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최고의 학교시설 및 최고의 교사를 투입해 질 좋은 교육을 시키는 프로젝트다. 이 학교의 코듀라 헤크만 교장은 "이민자 출신이 대부분인 우리 학교의 교육내용이 좋고 학업성적도 뛰어나다는 소식이 퍼지자 이민자 배경이 아닌 독일인들이 우리 학교에 자녀를 서로 보내려고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2) 시사점

독일의 이주정책은 이주배경을 지닌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되, 일반적인 주류 아동·청소년들의 정책적 맥락 속에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이주가정자녀를 위한 특별한 정책 대신 사회적 문화적 소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에게 주류 사회로의 길을 열어 놓는 방식으로 정책이 전개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시행 정책과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독일의 경우, 2015년 이후 적극적인 난민 수용 정책으로 인하여 120만명 이상의 이민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들의 사회적응 뿐 아니라 범죄행위 증가 등 사회적 불안 요소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입국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연령 대상의 이민 정책의 변화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즉, 아무리 이타적인 사회집단이라도 안정적인 국내 여건 조성을 통해 안정적인 정책 기조의 유지가 가능함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제3장 중도입국청소년 현황

제1절 중도입국청소년 관련 제도

1. 중도입국청소년 관련 법률

중도입국자녀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내법은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위해 특별히 제정된 특별법과 일반인에게도 널리 적용되는 기타 관련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국내체류 중도입국자녀 지원을 위한 주요 특별법으로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 있다.

이외 일반인에게도 적용되며 중도입국자녀의 체류와 교육 및 보육, 복지 지원과 관련된 법률은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초·중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청소년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이 있다.

위에 언급된 특별법과 관련법이 중도입국자녀의 처우, 체류, 교육, 복지 분야의 지원정책을 추진하는데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있지만, 대다수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중도입국자녀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재한외국인과 그 자녀의 불합리한 차별방지와 인권옹호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과 그 자녀에 한정하고 있어 국제결혼 재혼가정 모친의 이전 결혼소생 자녀, 즉 중도입국자녀는 실제적으로 법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경우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근거하여 합법체류 중인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로 한정되어 이주노동자나 결혼이민여성의 이전 결혼소생자녀의 보육 및 교육권은 보호받을 수 없다.

단지, 초·중등교육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만 귀화하지 않는 중도입국자녀의 교육권과 복지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미등록 미성년이민자이거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공교육 진입이 어려워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이 제한적이었으나 2010년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불법체류노동자 자녀의 의무교육이 보장되면서 귀화하지 않은 중도입국자녀의 공교육 접근성도 한층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의무교육단계인 중학교 진학이 수월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고등학교 진학의 경우 학교별로 입학전형이 이루어지고 학교장의 재량과 학칙에 따라 입학여부가 결정되는 한계가 여전히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2011년 개정법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이라는 용어와 함께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심리·정서지원을 확대하였다. 이는 체류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조항이라 할 수 있다(전경숙 외, 2014).

<표 3-1> 중도입국자녀 지원 관련 법률

구분	이주아동 수	비고	주요내용
특별법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처우	재한외국인의 인권 옹호, 결혼이민자 자녀 처우
	다문화가족 지원법	복지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인권보호
	재외동포법	체류	재외동포 체류자격
관련법	출입국관리법	체류	출입국심사, 체류, 보호
	국적법	체류	국적취득과 상실, 국적판정 요건 등
	초·중등교육법	교육	학습권 보장, 편입학 등 공교육 진입지원
	영유아보육법	보육, 양육	취약보육 우선 지원
	청소년복지지원법	복지	한국어지원, 심리지원
	긴급복지지원법	복지	생계곤란 등 위기가정 자녀

자료: 전경숙 외, 2014. 「중도입국자녀 초기적응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효율화 방안」.

1)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에서 벗어나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의 4가지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으로써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 일치로 채택돼 우리나라에도 적용되고 있는 협약이다.

협약의 내용은 4대 기본원칙과 4대 기본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4대 기본원칙은 무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생명권, 생존과 발달의 모호, 자기 표명권 등이며, 4대 기본권은 아동의 기본 권리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박세경, 2016).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인종과 신분, 국적 등 모든 환경을 배제하고 아동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주배경청소년 정책과 법령에 있어서 간접적이지만 기본원칙으로 적용되고 있다.

〈표 3-2〉 UN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원칙

원칙	내용
무차별의 원칙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국적,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아동은 차별되어서는 안 됨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함
생명권, 생존과 발달의 보호	생애 시기에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함
자기표명권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아동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함

자료: UNICEF자료; 박세경, 2016. 재인용.

〈표 3-3〉 UN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

기본권	내용	아동권리협약 관련조항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여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 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제24조(건강 및 의료) 제26조(사회보장) 제27조(생활보장)
보호권	각종 위험과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3조(아동최선의 이익) 제18조(아동이익 극대화) 제23조(장애아동의 보호)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제3조, 제17조, 제18조 제28, 29조(교육) 제31조(놀이와 오락, 문화활동)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제12조(의견표명) 제13조(표현의 자유) 제17조(정보에의 접근)

자료: UNICEF자료; 박세경, 2016. 재인용.

2)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관련조항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입국해 있는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절한 대우를 보장하는 법률로써,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 대한 처우도 포함되어 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중략.....

제12조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3) 다문화가족지원법 관련조항

다문화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 법률로서, 법적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중도입국청소년이 포함된 아동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기본권적 성격의 보호법률이 포함되어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 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중략.....

제10조 (아동 보육·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관련조항

정식 명식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으로써 일반적으로 약자인 재외동포법으로 넓게 불리고 있는 법률이며, 재외동포의 입국과 체류 기간 중 적용되는 법적 지위를 포함하고 있다.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在外同胞)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법률 제7499호 국적법중개정법을 시행 전 종전 제12조의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인 된 경우

- 2.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인 된 경우
- 3.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 요건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한 자의 활동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략.....

제10조(출입국과 체류)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은 최장 3년까지로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④ 대한민국 안의 거소를 신고하거나 그 이전신고(移轉申告)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허용된다.

5) 출입국관리법 관련조항

우리나라 입국심사를 기본으로 국경관리와 외국인 체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써 구체적인 입국심사 기준과 외국인의 체류시 활동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명문화 되어있다.

출입국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難民)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제12조(입국심사) ①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한다.

- 1.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이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 2.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 3. 체류기간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 4.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체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⑥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출입할 수 있다.

.....중략.....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중략.....

제39조(사회통합 프로그램)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운영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⑤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운영기관의 지정·관리 및 지정 취소, 그 밖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적법 관련조항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요건에 관한 법률로써,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과 간이귀화, 수반취득 등 중도입국청소년의 국적 취득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국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중략.....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 상 성년이었던 자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중략.....

제8조(수반 취득) ①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 상 미성년인 자는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취득을 신청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부 또는 모에게 귀화를 허가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초·중등교육법 관련조항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에 관한 초·중등 교육에 대한 법률로써, 일반국민의 취학 의무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한 내국인과 새롭게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에 대한 교육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략.....

제60조의2(외국인학교) ①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영유아보육법 관련조항

어린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보육에 관한 법률로써, 취약보육 우선 실시 등 소득 취약 계층에 대한 무상 보육 등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취약보육의 종류와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중략.....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

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7.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②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략.....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2조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영유아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9) 청소년복지지원법 관련조항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법률이며, 특징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법적 지원과 지원센터를 통한 물리적 지원 등 다문화 가정 증가에 따른 현재 시대상이 반영된 세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중략.....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중략.....

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긴급복지지원법 관련조항

물리적인 위기 상황에 있을 경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써,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포함하고 있어 직접적인 우리나라 국민 외 국적 취득 이전인 체류 외국인에게까지 적용되는 복지법이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략.....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된다.

2. 중도입국청소년 관련 제도 및 정책

2000년 이후 다양한 이주배경을 지닌 새로운 구성원의 급증에 따른 대응책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한국사회의 이주정책은 2005년을 전후하여 외국인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체계화를 시도하게 되었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고용허가제’,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교육정책’ 등 관련 법안과 정책이 폭발적으로 도입되었다(이민경, 2010b). 외국인정책 심의 조정기구인 외국인정책 위원회와 총괄 추진기구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각각 2006년 5월 2007년 5월에 출범하였고, 국경관리차원의 소극적, 폐쇄적인 관점에서 출입국 법령과 제도를 운영해오다가 ‘통제와 관리중심에서 벗어나 노동인력과 인재유치, 사회통합, 국가안전시스템 구축’ 등 상호이해와 공존의 방향으로 외국인정책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보다 열린 다문화사회 구축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이민경, 2010a). 따라서 중도입국청소년을 포함하는 이주 2세대인 자녀들에 대한 지원정책도 이러한 일반적인 이주정책의 기조 속에서 확장되어 왔다(이민경, 2012)

최근 중도입국자녀의 한국사회 적응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정부에서도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으며,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하여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정책추진에 참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무지개청소년센터를 운영하며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과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법무부는 체류지원,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자녀 생활지원 정책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전경숙 외, 2014).

1)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중도입국청소년을 포함한 9세~24세까지의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이들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타 부처 대비 가장 많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주무 부처의 성격을 띠고 있다.

〈표 3-4〉 여성가족부 관련 지원정책

대상구분	정책명	주요내용
초등, 저학년	언어발달서비스	만12세 이하 다문화가족자녀 대상 언어발달 정도 진단 및 언어교육 실시
	방문교육	학업성취가 낮고 정서와 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녀에게 독서, 숙제지도 등 생활지원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이중언어로 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학령기	다재다능 프로그램	가족관계개선, 사회성 및 리더십 개발 지원
중도입국청소년	레인보우스쿨	초기적응지원 프로그램으로 한국어 교육, 특기적성 교육
	무지개job아라	진로캠프, 인턴십 및 멘토링, 진로탐색과정 운영 등
	내-일을 찾아라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직업한국어, 이력서 작성법 교육
전체	다문화감수성증진프로그램	다문화 이해도와 감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운영

자료: 신현옥, 2016.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재구성.

특히, 여성가족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재단을 설립하여 무지개청소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를 통하여 중도입국청소년 등 이주배경청소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의 후원을 받아 지원하는 사업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중도입국청소년만 대상으로 한 사업은 레인보우스쿨, 무지개Job아라 등 2개 사업이며, 나머지 사업은 이주배경청소년 대상에 중도입국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다. 센터의 주 대상이 중도입국청소년이기 때문에 이주배경청소년에 중도입국청소년을 포함하여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신현옥, 2016).

<표 3-5> 무지개청소년지원센터 주요 사업

구분	정책내용
국고보조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레인보우스쿨(직영), (위탁) 2. 무지개Job아라 3. 내-일을잡아라 4. 이주배경청소년 통합상담·사례관리 5. 이주배경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 ‘마음 돌보기’ 6. 이주배경청소년 가족캠프 ‘다독임 캠프’ 7. 이주배경청소년 멘토링 8. 이주배경청소년 통합캠프 ‘통·통·통 캠프’ 9. 청소년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다가감’ 10.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토론회 11. 이주배경청소년 문화예술(오케스트라)지원사업
외부지원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주배경청소년 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젝트 ‘다독다독’ 2. 이주배경청소년 맞춤형 진로지원사업 ‘친친무지개 프로젝트’ 3. 코오롱과 함께하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사업 4.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하는 ‘레인보우 유스 올림픽’ 5. 애경산업 이주배경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6.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이영애 특별대사 후원 이주배경청소년 장학지원 사업 (대상: 부모 또는 청소년이 베트남 출신, 이주배경청소년 9~24세 32명) 7. FnGuide와 함께하는 이주배경청소년 자립지원사업 8. 제주항공과 함께하는 이주배경청소년 직업실무능력 향상 지원사업 9. 기타 물품 후원 및 체험활동 지원

자료: 무지개청소년지원센터 내부자료.

여성가족부-포스코, 이주배경청소년 위한 맞춤형 진로 지원 [프라임경제 2014. 5. 15]

여성가족부와 포스코가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여가부와 포스코는 가족해체로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이 우리사회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 지원사업인 '친친 무지개 프로젝트'를 3년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친친 무지개 프로젝트'는 2013년 정부30 민간 네트워크 확대 일환으로 여가부-포스코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포스코 1% 나눔재단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서 사업을 수행한다.

올해는 전국 해체가정과 한부모가정의 만 12~24세 이주배경청소년, 무연고 탈북청소년 40명을 우선 선정해 연간 최대 300만원의 '맞춤형 진로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은 지속적인 관리와 멘토링이 가능한 지역기관의 추천을 받아 오는 20일까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심사위원회의 선정을 통해 지원 대상이 결정된다.

이와 관련 여가부는 진로교육비 지원뿐만 아니라,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성 함양과 사회공헌을 위해 포스코 임직원과 함께하는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기관 봉사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권용현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해체 다문화 가정의 자녀뿐 아니라 중도입국청소년, 탈북청소년 등 이주배경청소년이 꿈을 향해 정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며 “이주배경청소년이 친친 무지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박현 포스코 상무는 “해체가정의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미래를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긍정적인 자세로 삶에 임하기 바란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기둥이 될 핵심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톡다톡’ 수혜 청소년 4천명 돌파…이달 5차연도 개시 **[연합뉴스 2017. 6. 29]**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무지개청소년센터)의 상담·심리치유 프로젝트 ‘다톡다톡’(多talk茶talk)을 거쳐 간 이주배경청소년이 4천 명을 넘어섰다.

무지개청소년센터는 2013년 6월부터 중도입국, 다문화, 탈북 등 이주배경청소년에게 해마다 진로 안내, 진학 상담, 전문 심리상담, 심리치료 등을 지원했으며 지난 5월 말까지 4천65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무지개청소년센터의 김종훈 통합지원팀장은 “‘다톡다톡’에 참여한 청소년 가운데 김 모 군은 심리적 안정을 얻은 뒤 공부에 몰두해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했고, 집에서 말없이 혼자만 지내던 한 모 양은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져 동생도 잘 돌보는 등 성격이 밝아졌다”고 소개했다.

현대차그룹과 여성가족부의 업무협약에 따라 마련된 ‘다톡다톡’은 사회 적응이나 학업 수행 등에 어려움을 겪는 ‘다(多)문화’ 청소년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차(茶)’를 마시며 속 깊은 ‘이야기(talk)’를 털어놓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무지개청소년센터는 이 달부터 내년 5월까지 5차연도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연도에는 상담, 정보 제공, 사례관리 등과 함께 가족상담과 집단상담을 확대해 가족관계와 사회 관계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통·번역 지원을 강화하고, 전국 지원연계망 구축을 위한 ‘상담·심리치료 지원기관 안내서’를 발간해 활용하기로 했다.

올해 대상 인원은 지난해와 같은 800명(상담 720명, 심리치료비 지원 80명)이며 인당 110만 원의 심리치료비를 지원한다.

2) 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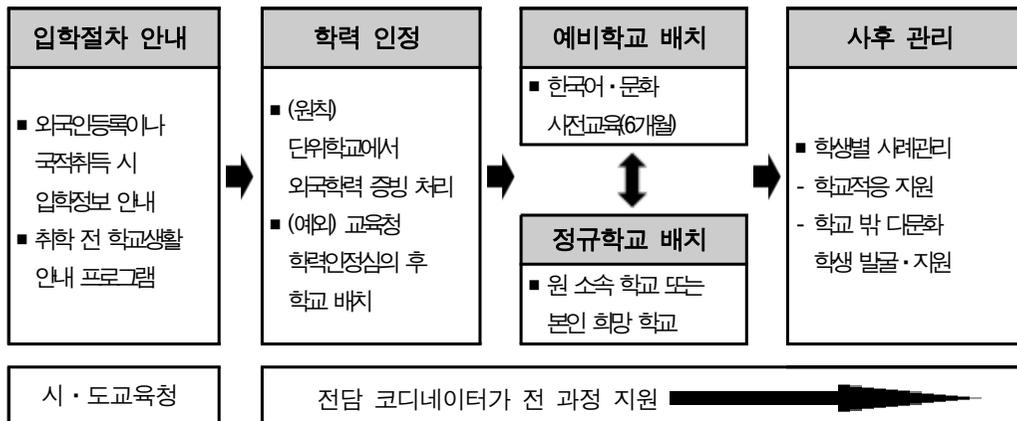
교육부는 대안학교 및 예비학교 운영 등 중도입국청소년 등 다문화 가정 자녀가 제도권 내 교육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학력 증진에 제도적 주안점을 두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표 3-6> 교육부 관련 지원정책

대상구분	정책명	주요내용
학령기	대학생 멘토링	대문화, 탈북학생 대상 기초학력 증진 강화
	대안학교	다문화학생 대상 대안학교 운영
	글로벌브릿지	다양한 분야(수학, 과학, 예체능 등)에 잠재력을 가진 다문화학생을 인재로 육성
중도입국청소년	다문화예비학교	한국어와 문화를 집중교육 받을 수 있는 예비학교 운영
전체	다문화중점학교	다문화 가정 학생과 일반학생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자료: 신현옥, 2016.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재구성.

또한, 교육사업의 핵심인 학교의 편입학 절차에 있어서 별도 절차를 마련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다.



자료: 교육부, 2014. 「2014년 다문화교육 활성화 계획」.

<그림 3-1> 다문화자녀의 편·입학 절차

3) 법무부

법무부는 중도입국청소년 등의 출입국 및 국내체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입국 및 외국인 등록 시 지원 프로그램 등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그 외 법무부 고유 업무 범위인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과 관련하여, 중도입국 자녀의 체류기간 연장은 주로 부모의 체류자격 여부에 달려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는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방문동거(F-1) 비자가 주어지며 의무교육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법무부 홈페이지 내용정리).

4)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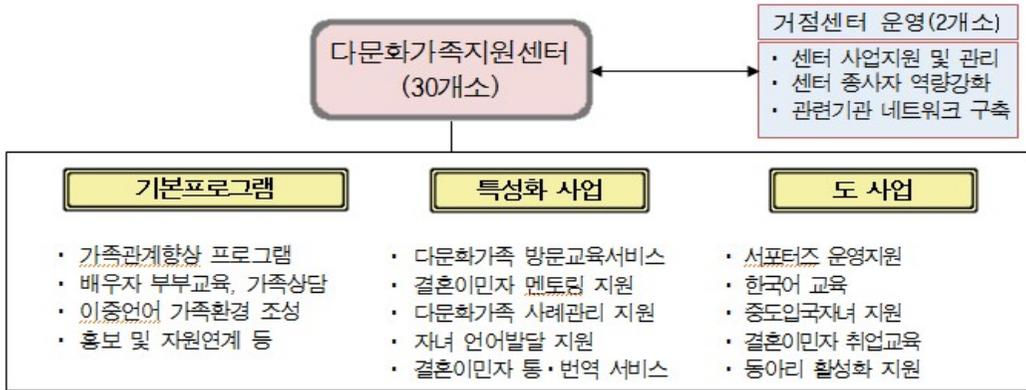
보건복지부는 중도입국청소년이 포함된 다문화 가정에 대해 별도의 지원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방식보다는 기존의 복지지원체계에서 해당 가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의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드림스타트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기가정 자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용정리).

5) 경기도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도입국자녀 지원 정책 및 사업은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으로 이분화되어 시행하고 있다.

먼저, 경기도청은 2010년 전국 최초로 다문화가족과를 신설하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근로자가족과 자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지원은 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다문화가족이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여성가족부 사업 이외에 자체적으로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자료: 경기도청, 2017. 「2017 경기도청 다문화가족과 주요업무 보고자료」.

<그림 3-2> 경기도 다문화가족지원 운영체계

특히 경기도는 중도입국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지원을 위해 수원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16개시에 226,600천원(도비 52,070천원, 시·군비 174,590천원)을 투입하여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학교생활 준비에 필요한 수학, 역사, 컴퓨터 등 필요한 과목을 편성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운영 하고 있다.¹⁾

<표 3-7> 경기도 중도입국청소년 지원정책

대상구분	정책명	주요내용
경기도청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중도입국자녀 대상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및 생활정보 제공
	방문학습지 지원	취학 전 자녀 및 한글 부진 저학년 아동 및 중도입국자녀 대상 방문학습지 통한 한글교육
	이중언어 말하기대회	부모나라 언어 및 한국어 학습동기 부여
	다문화 가정 자녀 언어발달 지원	연령별 수준에 맞는 전문적인 언어 발달 진단 및 교육

자료: 연구자 직접 작성.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교육부 사업을 구체화하여 추진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다문화 가정 학생 및 중도입국자녀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확대하고 있다.

1) 2016년의 경우 수원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중도입국자녀 39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및 역사탐방을 진행하였다.

〈표 3-8〉 경기도교육청 중도입국청소년 지원정책

대상구분	정책명	주요내용
경기도교육청	위탁형 다문화 대안학교 지정운영	학교부적응 및 학교 밖 학생의 공교육 유입 지원
	공교육 진입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전담코디네이터가 정규학교 입학에 위한 전 과정 지원
	다문화학력심의위 운영	공교육 편입을 지원하기 위해 학력인정요청에 대한 심의
	다문화예비학교 운영	예비학교에 위탁 불가한 학교에 한국어강사 인건비 지원
	이중언어 강사지원	케이스별 맞춤 교육과 일반학생의 이해를 위해 일반학교에 이중언어강사 배치

자료: 연구자 직접 작성.

경기도교육청은 특히 다문화교육의 확대를 위해 다문화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중도입국학생의 공교육 진입 및 적응 지원을 위한 다문화예비학교 외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에 특별 학급을 개설하고, 다문화거점학교를 활용하여 일반학생과의 어울림 통합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중점학급,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한 위탁형 다문화 대안학교, 다문화 가정 학생멘토링, 다문화 가정 학생의 진로 체험 활동, 다문화 가정 학생의 편입학 지원을 위한 학생맞춤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전경숙 외, 2014).

〈표 3-9〉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정책

정책과제	세부추진내용
다문화예비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 다문화예비학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입국, 외국인 학생에 대한 한국어·한국문화 집중 교육을 통해 다문화 가정 학생의 공교육 진입 및 적응 지원 - 다문화예비학교 수료자는 예비학교장의 추천으로 다문화학력심의 대상자가 됨 ○ 다문화 가정 학생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증명 곤란 등으로 학교 편입학이 어려운 다문화 학생에 대한 학력 인정으로 공교육 진입지원
특별학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학생의 조기 적응과 맞춤교육 지원을 위해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초중학교에 개설된 특별학급(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다문화특별학급 운영
중점학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다문화거점학교(글로벌선도학교)의 거점형, 집중형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 간의 어울림 통합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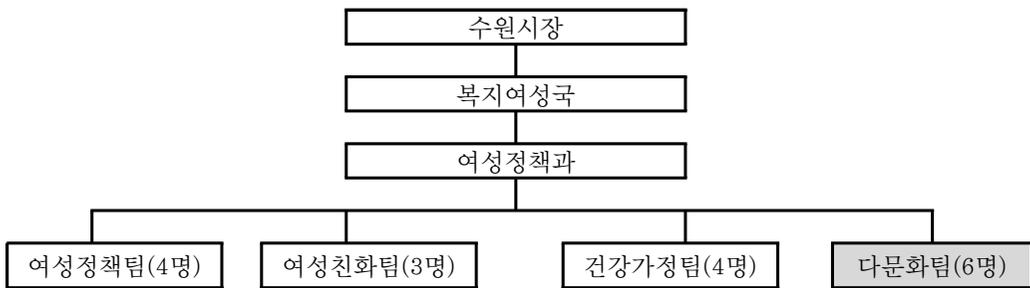
위탁형 다문화 대안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 경기도교육청 지정 위탁형 다문화 대안학교 운영 - 중도입국자 및 다문화 중·고등학생 중 언어 등으로 심하게 적응이 안되는 다문화학생이 희망할 경우 대안학교에서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학적은 소속교)
다문화 가정 학생 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가정 학생 멘토링 사업 운영(연중운영) - 다문화 가정 학생 학교생활 적응 강화 및 기초학력 향상 - 대학생을 활용한 다문화 가정 학생 멘토링
다문화 가정 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가정 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지원 ○ 직업 및 진로 체험 활동
다문화 가정 학생 맞춤형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가정 학생 맞춤형교육 내실화 - 공교육 진입을 위한 원스톱서비스로 다문화 가정 학생 편입학 지원 - 다문화 가정 학생의 맞춤형 언어교육 지원 다문화언어강사, 한국어교실

자료: 경기도교육청, 2017. 「2017 다문화교육 주요정책 보고자료」.

6) 수원시

(1) 수원시 다문화팀

수원시 중도입국청소년 관련 지원정책은 수원시청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다문화팀에서 총괄하고 있다. 다문화팀은 팀장 1명, 팀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도입국청소년을 포함한 다문화지원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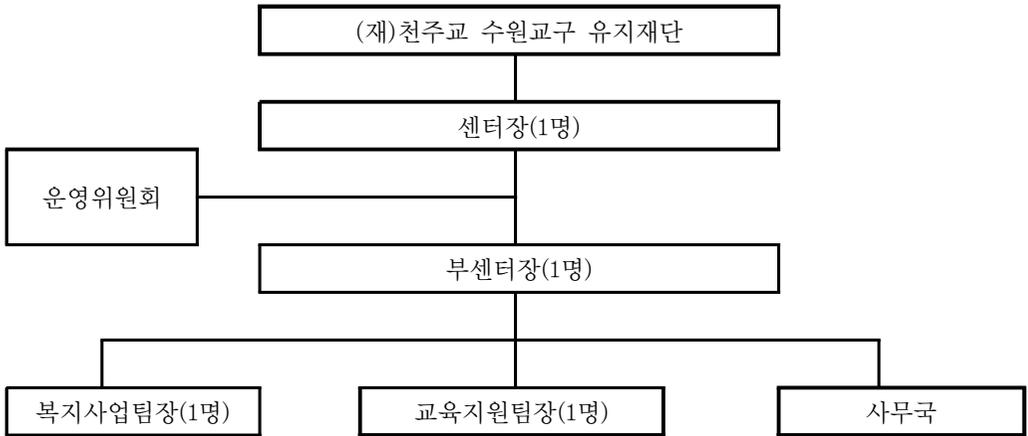


<그림 3-3> 수원시 다문화팀 조직 현황

(2)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18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3조, 제6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제3조, 제10조에 근거하여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교육, 정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역량을 계발하고, 지역사회 주민과의 소통과 인식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지지방 구축을 통한 인재 육성 기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림 3-4>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조직 현황

최초 설립은 2012년 수원교구에서 설립한 우리드림센터를 모태로 하여 2014년 수원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삼성전기에서 건립기금을 후원하여 추진되었다. 이후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2016년 5월 현재의 센터를 개관하였으며 교육지원, 자립지원, 심리안정지원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센터의 물리적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여가 공간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운영은 최초 설립 모태를 고려하여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수원시로부터 위탁운영을 받아 관리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의 주요 사업은 다모아 위탁형 대안학교, 한국사회 적응지원 프로그램인 36.5℃ 예비학교, 방학아카데미 및 방과 후 공부방 운영, 사회교육 프로그램, 진로지도 교육 및 직업체험, 학력(검정고시) 및 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 협동조합 카페 운영 등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 개발/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통합자원봉사단 “꿈틀” 운영, 문화여가 프로그램, 부모 역량 강화 교육, 1:1 학습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사이 사이 다(多)문화 멘토링, 체육대회 등의 특화사업 등이다(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내부 자료).

적응에 어려움 겪는 다문화 청소년들 보듬어
 [수원시 보도자료 2017. 5. 23]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은 9만 9186명에 이른다. 전체 학생 중 다문화 학생 비율은 1.68%이고, 초등학생 다문화 학생 비율은 2%를 넘어섰다. 다문화 학생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비율이 한국 원주민 학생보다 월등히 높아 문제가 되고 있다. ‘문화 차이’, ‘친구와의 관계’, ‘학업의 어려움’ 등이 학업 중단의 주된 이유다.

수원시는 어른보다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청소년들을 따뜻하게 보듬고 있다. 지난해 문을 연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9~24세 ‘이주배경청소년’ 과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주배경 청소년은 다문화 가족 자녀, 외국인 근로자 자녀, 중도입국청소년(결혼 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해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 탈북청소년,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를 이르는 말이다.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위탁형 다문화 대안학교인 ‘다모아 학교’, 글로벌도서관, 한국사회초기적응 지원프로그램, 통합자원봉사단 ‘꿈틀’ 등을 운영한다. 학력·자격 취득, 진로 설정에도 도움을 준다. 올해 하반기 ‘글로벌문화예술단’, ‘글로벌 리더 양성 해외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16~24세) 등을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해 2월 운영을 시작한 ‘글로벌 다문화특성화 학교’ 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학교 적응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수원시는 수원교육지원청, 경기대와 ‘다문화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하고, 공모를 통해 지동·세류초등학교를 ‘글로벌 다문화특성화학교’ 로 선정했다. 또 6개 협력학교를 선정해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한국어 교육’, ‘이웃 나라 문화체험’, ‘또래 멘토링’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국 원주민 아이들과 다문화 아이들이 어우러지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7) 시사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은 다양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어 교육과 문화전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대상에 있어서도 다문화가족의 자녀라는 큰 범위에서 제공되고 있어 대상별 특성 반영이 미비한 측면이 없지 않다.

경기도를 비롯한 수원시의 경우도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의 유지 측면에서 크게 차이점 없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처 간 조정 없이 독립적으로 시행되는 지원 사업은 중복시행과 실효성이 낮은 사업 추진 등 그 효과성에 의구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중도입국청소년의 적응을 위해서 중요한 영역 중 하나는 해당자 본인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사회적 인식변화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원정책은 사업 규모 뿐 아니라 정책 대상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대다수 국민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제2절 중도입국청소년 현황

1. 전국 다문화 가정 현황

전국적으로 다문화 혼인은 2015년 기준, 22,462건으로 전년보다 7.9% 감소, 전체 혼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로 2008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다(통계청, 2016).

〈표 3-10〉 다문화 혼인 유형별 규모 및 비중(2013~2015)

(단위 : 건, %)

	2013		2014		2015		증감률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다문화	26,948	100.0	24,387	100.0	22,462	100.0	-7.9
한국남자+ 외국여자	17,633	65.4	15,505	63.6	14,051	62.6	-9.4
외국남자+ 한국여자	6,290	23.3	5,871	24.1	5,133	22.9	-12.6
기타*	3,025	11.2	3,011	12.3	3,278	14.6	8.9

자료: 통계청, 2016. 「2015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 남자 + 외국 여자’가 전체 다문화 혼인의 62.6%, ‘외국 남자 + 한국 여자’가 22.9%, 귀화자 등 기타 혼인이 14.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다문화 이혼은 11,287건으로 전년보다 12.5% 감소,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3%로 전년대비 0.9%p 감소하였다.

혼인 감소에 따라 다문화 출생은 19,729명으로 전년보다 6.8% 감소, 전체 출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로 전년보다 0.4%p 감소하였으며, 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은 29.7세로 과거 대비 점차 증가 추세이나, 한국인 부모 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32.4세)보다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다문화 출생아 중 남아는 10,158명, 여아는 9,571명, 성비(여아 100명당 남아)는 106.1명으로, 한국인 부모 출생성비 105.3명 보다 높은 편이다.

<표 3-11> 다문화 출생아 수 및 출생성비(2013~2015)

(단위 : 명, %, 여아 100명당 남아 수)

	전체			다문화 부모			한국인(출생기준) 부모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출생아 수	436,455	435,435	438,420	21,290	21,174	19,729	410,483	409,823	414,600	
(비중)	(100.0)	(100.0)	(100.0)	(4.9)	(4.9)	(4.5)	(94.0)	(94.1)	(94.6)	
전년 대비	증감	-48,095	-1,020	2,985	-1,618	-116	-1,445	-46,182	-660	4,777
	증감률	-9.9	-0.2	0.7	-7.1	-0.5	-6.8	-10.1	-0.2	1.2
남 아	223,883	223,356	223,356	10,838	10,686	10,158	210,630	210,399	212,678	
여 아	212,572	212,079	213,514	10,452	10,488	9,571	199,853	199,424	201,922	
출생성비	105.3	105.3	105.3	103.7	101.9	106.1	105.4	105.5	105.3	

자료: 통계청, 2016. 「2015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다문화 혼인 건수는 경기(5,720건), 서울(5,007건), 경남(1,240건) 순으로 빈도가 높으며, 대구, 울산, 세종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는 다문화 혼인건수가 전년보다 감소하였고, 특히, 강원(-18.0%)과 전남(-8.2%), 서울(-8.0%) 등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각 지역별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북(8.4%), 제주(8.2%), 전남(8.1%) 순으로 높고, 세종(4.4%), 광주·강원(5.7%)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3-12> 지역별 혼인 건수 및 다문화 비중(2013~2015)

(단위 : 건, %)

	전체(A)			다문화 혼인(B)						다문화 비중(B/A)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전년대비		2013	2014	2015	
							증감	증감률				
전 국**	322,807	305,507	302,828	26,948	24,387	22,462	-1,925	-7.9	8.3	8.0	7.4	
서울	70,840	66,776	66,011	5,859	5,443	5,007	-436	-8.0	8.3	8.2	7.6	
부산	21,102	19,226	18,871	1,456	1,230	1,160	-70	-5.7	6.9	6.4	6.1	
대구	13,774	12,709	12,725	882	733	747	14	1.9	6.4	5.8	5.9	
인천	18,294	17,538	17,395	1,381	1,225	1,155	-70	-5.7	7.5	7.0	6.6	
광주	8,893	8,305	8,036	549	494	459	-35	-7.1	6.2	5.9	5.7	
대전	9,717	9,214	8,917	554	535	513	-22	-4.1	5.7	5.8	5.8	
울산	8,093	7,761	7,559	483	457	462	5	1.1	6.0	5.9	6.1	
세종	753	925	1,507	61	61	67	6	9.8	8.1	6.6	4.4	
경기	79,175	75,923	75,472	6,549	6,051	5,720	-331	-5.5	8.3	8.0	7.6	
강원	8,024	7,876	7,941	605	551	452	-99	-18.0	7.5	7.0	5.7	
충북	9,408	8,886	8,965	757	689	661	-28	-4.1	8.0	7.8	7.4	
충남	12,648	12,172	12,474	1,098	992	921	-71	-7.2	8.7	8.1	7.4	
전북	9,928	9,310	9,162	952	806	772	-34	-4.2	9.6	8.7	8.4	
전남	10,069	9,442	9,359	1,077	822	755	-67	-8.2	10.7	8.7	8.1	
경북	15,580	14,351	14,432	1,136	1,033	1,002	-31	-3.0	7.3	7.2	6.9	
경남	20,525	19,311	18,919	1,405	1,271	1,240	-31	-2.4	6.8	6.6	6.6	
제주	3,700	3,651	3,732	372	320	305	-15	-4.7	10.1	8.8	8.2	

자료: 통계청, 2016. 「2015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지역별 다문화 출생아 수는 경기(5,022명), 서울(3,745명), 경남(1,357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다문화 출생아 수가 감소하였고, 광주(-18.1%)와 충남·경북(-10.2%) 등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남(6.6%), 제주(6.3%), 전북(6.2%) 순으로 높고, 세종(2.3%)과 대구(3.3%)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3-13> 지역별 출생아 수 및 다문화 비중(2013~2015)

(단위 : 명, %)

	전체(A)			다문화 출생(B)					다문화 비중(B/A)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전년대비		2013	2014	2015
							증감	증감률			
전 국	436,455	435,435	438,420	21,290	21,174	19,729	-1,445	-6.8	4.9	4.9	4.5
서 울	84,066	83,711	83,005	3,789	4,052	3,745	-307	-7.6	4.5	4.8	4.5
부 산	25,831	26,190	26,645	1,138	1,112	1,020	-92	-8.3	4.4	4.2	3.8
대 구	19,340	19,361	19,438	722	697	645	-52	-7.5	3.7	3.6	3.3
인 천	25,560	25,786	25,491	1,137	1,180	1,080	-100	-8.5	4.4	4.6	4.2
광 주	12,729	12,729	12,441	535	546	447	-99	-18.1	4.2	4.3	3.6
대 전	14,099	13,962	13,774	551	494	482	-12	-2.4	3.9	3.5	3.5
울 산	11,330	11,556	11,732	440	437	406	-31	-7.1	3.9	3.8	3.5
세 종	1,111	1,344	2,708	60	61	62	1	1.6	5.4	4.5	2.3
경 기	112,128	112,169	113,495	5,261	5,256	5,022	-234	-4.5	4.7	4.7	4.4
강 원	10,981	10,662	10,929	633	555	525	-30	-5.4	5.8	5.2	4.8
충 북	13,658	13,366	13,563	692	666	658	-8	-1.2	5.1	5.0	4.9
충 남	18,628	18,200	18,604	1,106	1,087	976	-111	-10.2	5.9	6.0	5.2
전 북	14,555	14,231	14,087	957	976	880	-96	-9.8	6.6	6.9	6.2
전 남	15,401	14,817	15,061	1,193	1,083	1,001	-82	-7.6	7.7	7.3	6.6
경 북	22,206	22,062	22,310	1,274	1,191	1,070	-121	-10.2	5.7	5.4	4.8
경 남	29,504	29,763	29,537	1,459	1,441	1,357	-84	-5.8	4.9	4.8	4.6
제 주	5,328	5,526	5,600	343	340	353	13	3.8	6.4	6.2	6.3

자료: 통계청, 2016. 「2015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2. 전국 중도입국청소년 관련 현황

2015년 유형별 다문화학생 수는 국내출생이 68,099명(82.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0.3% 증가되었고, 외국인가정 8,176명(9.9%), 중도입국청소년 6,261명(7.6%) 순으로 나타났으며 재혼가정의 중도입국청소년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는 실정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15).

따라서 현재기준으로 전체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연

령별 체류외국인수와 외국인 주민 자녀수, 귀화 신청자 수, 학교 내 중도입국청소년 규모 등에 의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 조사(2015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1월 현재 9~24세 다문화 가정 자녀는 82,476명으로 2012년 보다 24%(15,940명) 증가하였다. 그 중 국내성장 자녀가 60.8%(약50,165명)를 차지하였고, 외국성장 및 거주 경험을 가진 자녀, 즉 중도입국 청소년이 39.2%(약32,330명)로 추산된다. 특히 중도입국청소년(외국성장 및 거주 경험을 가진 자녀)은 2012년에 추정된 17,000명에 비해 90%(15,330명) 급증하였다. 연령에 따라 성장배경별 차이를 보이는데, 외국거주경험 자녀들은 66.1%가 14세 이하로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반면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자녀들은 18세 이상 자녀가 68.7%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14> 연령 및 성장배경별 다문화 가족 자녀 수

(단위 : %, 명)

		국내에서만 성장	외국거주 및 성장		전체
			외국거주 경험	외국에서 주로 성장	
계		100.0(50,165)	100.0(19,529)	100.0(12,782)	100(82,476)
연령	9~ 11세	33.9	36.8	8.4	30.7
	12~14세	24.2	29.3	9.7	23.2
	15~17세	19.2	16.4	13.2	17.6
	18~24세	22.6	17.4	68.7	28.5

자료: 정해숙 외, 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한편, 국내 체류외국인의 연령별 수 통계(외국인정책본부, 2016)를 통해 파악해보면, 2016년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체류 외국인 수는 아래와 같이 4만 여명이고 국적은 상당수 중국, 한국계중국인(조선족), 베트남 등으로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유학생, 한국주재외국기업에 다니는 부모를 둔 자녀 또는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 확실시되는 청소년들을 제외한다고 해도 적지 않은 수가 중도입국청소년으로 볼 수 있다.

<표 3-15> 연령별 체류 외국인 수

(단위 : 명)

성별	10~14세	15~19세	20~24세	총계
계	15,661	7,963	16,892	40,516
남	8,030	4,050	7,579	19,659
여	7,631	3,913	9,313	20,857

자료: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16. 「연령별 체류 외국인 수 통계월보 7월」.

법부부의 만 19세 이하 귀화 신청자 통계(2015)에 따르면 2015년 8월 기준으로 20세 이하 귀화 신청 청소년의 수는 6,825명이다. 체류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귀화신청 청소년(9세~19세) 4,689명 가운데 연령별 분포는 14~19세 47.4%, 9세~13세 52.6%이다. 출신국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한국계 포함)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몽골, 베트남 순으로 차지하고 있다.

귀화신청자 통계는 국적을 취득하려는 청소년만이 대상이다. 대학입학 때문에 혹은 한국에서의 장기체류 여부를 확정짓지 못한 경우 신청자격과 무관하게 국적신청을 하지 않은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들까지 있다고 보면 이 수는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표 3-16> 만 19세 이하 귀화신청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8
전체		6,652	7,565	7,409	7,431	6,825
연령별	0~8세	1,792	2,082	2,125	2,186	2,136
	9~13세	1,524	1,829	2,098	2,350	2,466
	14~19세	3,336	3,654	3,186	2,895	2,223
출신국별	중국	5,456	6,221	5,896	5,780	5,299
	몽골	166	212	218	211	166
	일본	172	213	219	220	141
	베트남	145	201	267	359	415
	필리핀	78	94	142	154	169
	러시아	54	52	68	67	63
	우즈베크	44	52	64	69	66
	태국	26	33	33	47	41
	키르기스스탄	25	30	31	29	26
	파키스탄	17	27	36	48	50
	캄보디아	11	12	14	19	22
	기타	458	418	421	428	367

출처: 법무부, 2015.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홈페이지-자료마당-현황」.

다문화가족 청소년 가운데에서도 외국에서 주로 성장하다 청소년기에 이주해온 중도입국청소년은 이민자로서의 적응과 청소년으로서의 성장이라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한 이들로, 학교 혹은 취업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를 잡아 가는데 상당한 장애에 직면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우선 청소년기에 이주해온 이들은 이주 이후 학교에 입학하지 않거나 학교에 입학했다라도 학업이나 학교생활의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기 쉽다.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도 국내성장 다문화가족 청소년 중에는 92.1%가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중도입국청소년 가운데에는 43.4%만이 학교 재학 증으로 비재학 상태에 있는 이들이 56.6%에 달한다. 중도입국청소년 가운데 7.8%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그만둔 상태이며, 48.8%는 한국에서는 학교를 다닌 적이 전혀 없다. 연령이 높을수록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이들이 많으며 특히 18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이들이 66.2%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3-17> 9~24세 중도입국 다문화 가족 청소년의 재학 현황

(단위 : %, 명)

		재학중	비재학		전체
			다니다 그만둔	다닌 적 없음	
전체		43.4 (5,542)	7.8 (1,001)	48.8 (6,240)	100.0 (12,783)
연령	9~11세	92.8	2.5	4.7	100.0
	12~14세	94.2	-	5.8	100.0
	15~17세	79.2	2.7	18.1	100.0
	18세 이상	23.2	10.6	66.2	100.0
거주기간	2년 이하	36.0	9.5	54.5	100.0
	3-5년 이하	46.5	5.2	48.3	100.0
	6년 이상	50.4	9.9	39.7	100.0

자료: 여성가족부, 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재분석.

이처럼 중도입국청소년,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집단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경우 자체가 제한되어 있어 학교를 통한 정착의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에게는 취업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이 역시 그리 원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15~24세 중도입국청소년 중에는 학교에도 다니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이들이 38.6%이며, 18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42.5%에 달한다. 국내거주기간별로는 거주기간이 길어

질수록 학교에도 다니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이들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6년 이상 거주한 이들 가운데에도 비재학-비취업 상태에 있는 이들이 28.8%에 이를 만큼 한국생활을 오래한 중도입국청소년 가운데에서도 상당수가 학업 또는 취업 그 어느 쪽으로도 정착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18> 15~24세 중도입국 다문화 가족 청소년의 재학 및 취업 여부 분포

(단위 : %, 명)

		재학+취업	재학+비취업	비재학+취업	비재학+비취업	전체
전체		6.2 (646)	26.1 (2,734)	29.1 (3,051)	38.6 (4,040)	100.0 (10,471)
연령	15~17세	3.5	75.7	2.4	18.4	100.0
	18세 이상	6.7	16.5	34.3	42.5	100.0
거주기간	2년 이하	2.8	21.4	26.8	49.1	100.0
	3~5년 이하	6.4	27.9	31.4	34.2	100.0
	6년 이상	10.7	30.9	29.6	28.8	100.0

자료: 여성가족부, 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재분석.

뿐만 아니라, 취업을 하더라도 질 낮은 일자리를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취업 중인 15~24세 중도입국청소년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25.6%에 불과하고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가 각각 44.4%, 30.0%를 차지한다. 거주기간이 길어지면서 상용근로자가 다소 늘어나고 임시근로자는 줄어들기는 하지만, 일용직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표 3-19> 15~24세 중도입국 다문화 가족 청소년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단위 : %, 명)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전체
전체		25.6 (945)	44.4 (1,642)	30.0 (1,108)	100.0 (3,695)
연령	15~17세	-	25.3	74.7	100.0
	18세 이상	26.3	45.0	28.8	100.0
거주기간	2년 이하	30.8	46.2	23.0	100.0
	3~5년 이하	13.0	54.2	32.9	100.0
	6년 이상	39.1	27.7	33.3	100.0

자료: 여성가족부, 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재분석.

임금수준은 국내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250~3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이들이 늘어나는 동시에 5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이들도 대폭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국내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서 일부 중도입국청소년은 종사상 지위가 안정되고 임금수준도 나아지지만 다른 한편으로 오랜 기간 한국생활을 하더라도 일용직을 전전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임금수준이 저하되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20> 15~24세 중도입국 다문화 가족 청소년 취업자의 임금 수준

(단위 : %, 명)

		50만원 미만	50~ 100만원 미만	100~ 150만원 미만	150~ 200만원 미만	200~ 250만원 미만	250~ 300만원 미만	전체
전체		21.0 (778)	17.1 (632)	34.3 (1,267)	16.7 (616)	9.3 (342)	1.7 (61)	100.0 (3,696)
연령	15~17세	62.0	30.0	8.0	-	-	-	100.0
	18세 이상	19.9	16.7	35.0	17.1	9.5	1.7	100.0
거주 기간	2년 이하	10.6	15.8	45.5	13.9	14.2	-	100.0
	3~5년 이하	19.2	24.1	30.2	21.0	5.6	-	100.0
	6년 이상	34.8	8.3	28.1	13.4	9.6	5.8	100.0

자료: 여성가족부, 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재분석.

국내거주기간별로 이들의 지원 요구를 살펴보면 국내에 오래 거주할수록 오히려 한국어교육, 한국사회 적응교육, 학습지원,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 직업기술교육, 일자리 소개 등의 요구는 높은 수준이다. 한국생활이 길어질수록 안정적인 성장 기반이 마련되어 각종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반대의 결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3-21〉 국내거주기간별 9~24세 중도입국 다문화 가족 청소년의 지원 요구

(단위 : 점, 명)

	한국어 교육	외국출신 부모님 나라의 언어교육	한국 사회 적응 교육	외국 출신 부모님 나라의 문화 이해 교육	학습지원 (국, 영, 수, 멘토링 등)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	학습, 친구, 가족, 이성관련 상담	직업기술 훈련	일자리 소개
전체	2.76 (12,782)	3.42 (12,782)	2.82 (12,782)	3.49 (12,782)	2.94 (12,782)	2.52 (11,327)	3.21 (11,327)	2.42 (11,327)	2.44 (11,327)
2년 이하	2.59	3.56	2.55	3.55	2.89	2.42	3.11	2.33	2.33
3~5년 이하	2.65	3.34	2.81	3.45	2.85	2.45	3.25	2.32	2.30
6년 이상	3.17	3.34	3.21	3.45	3.22	2.82	3.31	2.70	2.79

자료: 여성가족부, 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재분석.

이처럼 청소년기에 국내로 이주해온 중도입국청소년은 학업 중단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며 그렇다고 취업을 통한 정착의 길을 가는 것도 쉽지 않아 국내 거주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생활의 기반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오랜 기간 한국 생활을 했으면서도 학교를 통해서도 취업을 통해서도 정착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이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취업을 하더라도 안정된 일자리로 진출할 가능성이 크게 제한되어 있는 점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성장과 자립, 나아가 다문화사회의 통합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관련 정책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출신 배경을 지닌 이주배경청소년이 성장 과정에서 직면하는 각종 과제에 본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사회 적응과 학습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목표가 ‘성장과 정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도입국청소년의 ‘성장과 정착’을 위해서는 학업과 더불어 취업지원에 대한 제도적 접근권이 일정 수준 확보되어야 한다. 그간 학교에 관해서는 수차례의 제도 개선을 통해 국적 여부 뿐 아니라 체류자격에도 관계없이 이주청소년의 접근이 어느 정도 가능해진 것과는 달리, 취업 지원에 있어서는 여전히 국적 여부에 따라 대상 집단을 규정하고 있어서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청소년과 일부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은 취업을 통한 정착의 길이 현실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상황이다. 적어도 향후 영주, 국적 취득 가능성이 있는 이주 청소년에 대해서는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정 수준

취업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수원시 중도입국청소년 관련 현황

수원시의 주민등록인구수 대비 외국인 주민의 비율은 4.3%로써, 매년 소폭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 구성 중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국 조선족이 32,340명(63.1%)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중국인이 5,266명(16.1%)로 다음을 차지 하고 있어 중국계 외국인이 대다수를 차지(79.2%)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원시는 전국 단위에서 외국인 주민수가 3위인 지역으로서 다문화 관련 정책과 관리에 있어서 주요한 지역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3-22> 수원시 국적별 외국인 주민 현황

(단위 : 명)

		2015.11	2015.1	2014	2013	2012	2011	2010
전체		51,258	55,981	47,237	41,351	40,537	35,657	31,678
국 적	중국(조선족)	32,340	38,630	31,013	2015.11 기준, 수원시 주민등록인구수 1,194천명의 4.3%에 해당 전국 3위 (1위 안산시 76천명, 2위 영등포구 5.7천명)			
	중국	8,266	6,291	6,198				
	베트남	2,346	2,267	2,026				
	미국	1,158	1,300	1,214				
	일본	502	940	944				
	대만	451	537	502				
	기타	6,195	6,016	5,340				

자료: 수원시청, 2017. 「수원시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

수원시의 외국인 주민은 외국인 근로자가 16,122명(31.5%)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 산업지역의 특성에 따른 노동인력 공급이 큰 점을 알 수 있으며, 중도입국청소년에 해당하는 외국인 주민자녀는 3,956명으로 7.7%의 구성비를 보여주고 있다.

<표 3-23> 수원시 외국인 주민 구성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외국인 주민자녀	혼인 귀화자	외국국적 동포	유학생	기타
2015.11	51,258	16,122	3,543	3,956	2,728	8,802	2,272	13,835
2015.1	55,981	18,089	3,625	4,171	2,838	11,427	2,616	13,394

자료: 수원시청, 2017. 「수원시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

구체적으로 외국인 주민 자녀의 국적별 구성비도 전체 외국인 주민현황과 같이 조선족이 1,130명(28.6%)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중국 1,041명(26.3%), 베트남 727명(18.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 구분으로는 만0세~만6세의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이 2,389명(60.4%)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만7세~만12세가 1,183명(29.9%)으로 다음으로 나타났다. 저연령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은 향후 미래에 이들이 성장하여 수원지역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인구사회적 영향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중도입국청소년 정책 실행에 있어서 주의 깊게 펼쳐나가야 하는 사유로 파악 가능하다.

<표 3-24> 수원시 외국인 주민 자녀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중국 (조선족)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기타
전체 (2015.11기준)		3,956	1,130	1,041	727	190	169	699
연령	만0세~만6세	2,389	미공개					
	만7세~만12세	1,183						
	만13세~만15세	230						
	만16세~만18세	154						

자료: 수원시청, 2017. 「수원시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

이 외에 수원시의 중도입국청소년 현황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자료가 있으며, 최근 자료인 2016년 6월 기준에 의하면 수원시 등록 외국인은 총 51,410명이고 이 중에서 아동 및 청소년 연령대에 해당하는 19세 미만은 3,252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6.3%에 해당된다.

〈표 3-25〉 수원시 외국인 등록 아동·청소년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0~4세	5~9세	10~14세	15~19세
권선구	711	382	186	62	81
영통구	936	387	273	87	189
장안구	587	227	111	37	212
팔달구	1018	518	272	105	123
계	3,252	1,514	842	291	605

자료: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자료.

위와 같이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에 대한 통계는 명시적으로 공개된 자료가 없으며, 간접적인 자료로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 자료는 입국 시에는 명목상 중도입국청소년이라고 범주화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90일 이상 체류하여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는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단기 체류 외국인과 기타 한국 입국 후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이 안 된 아동과 청소년들 그리고 한국에서 출생하였으나 외국인 등록이 되지 않은 이들이 제외된 수치가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주민등록과 집계는 순수 내국인보다 관리의 용이성이 떨어질 수 있는 점 등 실제 거주하고 있는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의 수는 자료로 드러나는 수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은 관심 밖... '있어도 없는' 존재 [세계일보 2016. 11. 20]

◆3000명? 10만명?... 아무도 모르는 중도입국자녀수

외국에서 살다 우리나라로 들어온 '중도입국청소년'은 정부의 눈에 '있어도 없는' 존재다. 중도입국이란 외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결혼이나 취업으로 한국에 와서 살게 된 부모를 따라 뒤늦게 입국한 경우를 말한다.

이들 상당수가 예비 한국인이지만 정부는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각 부처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중도입국청소년을 정의하고 집계하는 탓이다. 부처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중도입국청소년은 3000여명에서 1만2000여명까지 큰 차이를 보인다. 민간단체에서는 최대 10만명까지 어림잡기도 한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나 귀화자가 전혼(前婚)관계에서 낳은 미성년 외국인 자녀 가운데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자' 를 중도입국자로 보고 있다. 개념 범위가 좁아 지난 9월 현재 중도입국청소년은 3346명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초·중·고교 재학생에 한해,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나 귀화자 자녀 중 만 9~24세를 중도입국 청소년으로 규정해 각각 6261명과 1만2782명(지난해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도 만 0~18세 대상으로 비슷한 통계를 내지만 한국 국적자에 한정된 데다 국내에서 나오자랐는지, 중도입국인지는 따로 파악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수많은 중도입국청소년이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국내에서 태어나고 자란 다문화 자녀는 어떨까. 이들은 중도입국청소년과 달리 제도권 밖을 떠도는 경우는 드물지만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라는 차별적 호칭에 움츠러들 때가 많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와 세 자녀를 낳은 A씨(36·여)는 "다문화라고 하면 못살고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강해 속상할 때가 있다"며 "정부가 다문화 저소득층 지원에만 관심을 쏟다보니 '왜 우리 세금 가져가느냐'는 분위기가 생긴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생략 -

4. 중도입국청소년 인식 현황

중도입국청소년의 물리적인 현황 외에도 인식조사를 통하여 그들의 실제적 고민과 제도적 접근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된 계기는 자신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0.6%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한국생활에 대한 기대감 13.4%, 취업을 위해 13.0%, 유학을 위해 10.0% 순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가족의 재결합과 같은 정서적 차원의 사유가 절대적이며 생활수준의 향상과 진로에 대한 부분 등 경제적 사유는 상대적으로 차순위로 조사되었다.

〈표 3-26〉 중도입국청소년이 한국에 오게 된 계기

(단위 : 명, %)

구분	빈도(%)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서	140(60.6)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31(13.4)
취업을 위해	30(13.0)
유학을 위해	23(10.0)
기타	4(1.7)
중도입국 전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3(1.3)

자료: 서덕희 외, 2015.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직업군 개발 및 취업지원 방안연구」.

다음으로 중도입국청소년이 우리나라에 정착하여 생활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에 근거하여 한국 입국 후 가장 어려운 사항을 1~3순위로 중복 응답 조사를 한 결과, 언어(한국어) 문제가 1~3 순위 모두에서 무응답을 제외하고 가장 어려운 사항으로 조사되었다. 언어는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중도입국청소년의 성공적인 적응과 진입의 핵심 사항임을 나타낸다. 특히, 모국어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기에 새로운 언어의 배움과 구사가 어렵다는 점은 이들의 언어 교육에 있어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함을 일깨우고 있다.

또한, 언어 문제에 이어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힘든 사항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중도입국청소년이 포함된 가정의 경우, 대부분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중산층 이하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환경을 반영하여 출신국가와 경제력에 따른 청소년 간 불평등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표 3-27> 한국입국 후 가장 힘든 사항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언어(한국어) 문제	55(27.2)	31(15.3)	34(16.8)
경제적 어려움	24(11.9)	8(4.0)	12(5.9)
체류자격 문제	21(10.4)	22(10.9)	13(6.4)
부모님과의 관계 악화	16(7.9)	8(4.0)	6(3.0)
건강	13(6.4)	6(3.0)	2(1.0)
일자리 구하기	12(5.9)	20(9.9)	19(9.4)
미래에 대한 불안	11(5.4)	24(11.9)	26(12.9)
이성과의 교제	8(4.0)	5(2.5)	7(3.5)
친구가 없어서 외로움	8(4.0)	13(6.4)	13(6.4)
외국인에 대한 차별	6(3.0)	14(6.9)	6(3.0)
우울,불안,좌절 등 정서적 문제	6(3.0)	15(7.4)	11(5.4)
기타	4(2.0)	1(0.5)	3(1.5)
무응답	18(8.9)	35(17.3)	50(24.8)
합계	202(100.0)	202(100.0)	202(100.0)

자료: 서덕희 외, 2015.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직업군 개발 및 취업지원 방안연구」.

마지막으로 15세 이상 외국에서 성장한 중도입국청소년의 제도권 내 활동 현황을 조사한 결과, 만 15~17세 사이는 학업 생활 비율이 74.4%이지만, 만18세 이상이 되면 24.7%로 급격히 낮아지면서 아예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니트족(NEET)의 비율이 35.4%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국 빈곤의 악순환과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유럽사회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외로운 늑대 등 이민자 자녀의 사회적 불만이 각종 테러로 나타나고 있는 점은 이와 연관성이 매우 높아 우리사회에서도 정책 추진 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표 3-28> 15세 이상 외국성장 자녀가 주로 하는 활동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학업(학생)	일(위업자)	직업훈련	하는일 없음	전체(%)
만15~17세	74.4	4.7	3.6	17.3	100
만18세 이상	24.7	34.8	5.0	35.4	100
계	31.7	30.6	4.8	32.9	100

자료: 김이선 외, 2015.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교육-취업 차별에 빈민층 전략 난민 2, 3세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동아일보 2016. 8. 4]

- 생략 -

유럽에 적응하지 못한 무슬림 난민의 일탈은 외국인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다. 국내 다문화 가정은 40여만 가구를 넘어서고 올가을이면 탈북자도 3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제외하고 6월 현재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인 200만 1828명에 이른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국내 이주민 증가와 함께 부적응 사례도 늘고 있다.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가정 자녀 10명 중 3명은 공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일부는 학업을 아예 포기했고 일자리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마약, 사기·횡령, 살인, 폭력 등 범죄에 연루돼 수감된 탈북자도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9년 48명이던 탈북자 수감자 수는 2011년 51명에서 2012년 68명, 2013년에는 86명으로 급증했다. 2014년 1~7월에만 97명이나 수감됐다.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리도 다문화 인구와 탈북자 등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을 더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가다듬어야 할 때” 라고 말했다. 중국계와 말레이계, 인도계가 섞인 아시아의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인 싱가포르의 여러 인종이 모여 살지만 별다른 갈등을 겪고 있지 않다. 싱가포르의 다문화 자국민을 외교 채널로 쓰고 고학력 이민자를 경제성장에 활용하는 등 실용적인 다문화 통합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제4장 수원시 중도입국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결과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본 조사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생활실태와 행태 변화를 파악하여 중앙정부와 수원시 정책에 있어 다문화 전략 수립, 학계의 연구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조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원시 중도입국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가정환경, 심리상태, 사회적응 수준 등과 관련된 현황에 대해 정량적 지표를 측정하는데 있다.

둘째,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온 중도입국청소년은 낯선 환경에서 성장기를 겪느라 이 중고에 시달리는 만큼 이들의 한국 적응을 돕기 위해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분석결과는 향후 중앙정부의 다문화 정책 전략 수립과 수원시 내 현실에 맞은 각종 지원사업과 제도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수집된 계량적 지표를 통해 중도입국청소년들의 향후 사회적 영향 및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조사설계

본 연구에서는 조사목적에 맞는 설문을 실시하기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의 이론적 검토를 통해 주요 분석 영역과 변수를 선정하여 문항을 개발하였다. 배경변인 영역을 포함하여 7개 영역, 총 89개 설문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4-1〉 설문문항의 영역별 구성

영역	내용
배경특성	성별, 연령별, 출신국적 및 현재국적, 거주기간, 거주지별, 입국 전 생활형태, 입국 전 주요활동, 입국 초기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 및 습득방식, 현재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 입국동기, 입국 초기 주요활동 및 고민사항 등
가정환경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의 현황,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가정의 소득수준, 가족들과 의사소통 시에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는지, 가족관계에 있어 갈등 여부 등
심리·사회적응	어려운 일을 의논할 상대, 생활만족도, 가족 및 친구관계, 자아인식, 심리적 스트레스, 한국에 대한 인식, 한국문화 적응 등
학교경험	정규 교육기관의 진학시기, 재학 중인 학교의 형태, 친구관계, 학습에 대한 만족도, 사교육 경험 등
진로 및 진학	향후 한국 거주 여부, 진로에 대한 계획, 진로 선택 시 고민사항 등
사회적 인식	다문화 인식 수준, 문화적·인종 등의 차이로 인한 차별경험과 대응방식, 현재의 고민, 향후 이주계획 등
지원	다양한 지원기관에 대한 인식도와 이용경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 기타 바라는 점 등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조사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생활실태와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원시에 거주하는 중도입국청소년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했다. 자료수집은 2017년 7월 21일부터 9월 8일까지 약 7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연구진이 현장방문을 통해 조사대상자와의 일대일 대면을 통해 직접배부하고 회수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사용 언어를 고려하여 한국어, 영어, 중국어의 형태로 구성하고 배포함으로써 설문 내용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설문지는 170부를 배포하였으며, 이 중 유효표본 수는 총 161부(회수율 94.2%)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각 세부 문항에 대한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생활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SPSS 20.0을 사용하여 빈도 분석 등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각 사안에 대한 인식정도와 분포범위 등을 파악하였다.

2.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설문대상자들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성별, 연령별, 출신국적 및 현재국적, 거주기간, 거주지, 입국 전 생활형태, 입국 전 주요 활동, 입국 초기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 및 습득방식, 현재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 입국동기, 입국 초기 주요활동 및 고민사항에 대한 11개 항목을 살펴보기로 한다. 중도입국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성별 및 연령별

조사대상자를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이 60.9%, 여성이 29.1%로 나타나 남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2> 성별 분포

구분	표본수(명)	비율(%)
남성	95	60.9
여성	61	29.1
무응답	5	3.1

조사대상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6~18세 이하의 응답자가 31.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만 19~21세 이하(24.2%), 만 13~15세 이하(22.4%), 만 22~24세 이하(18.7%), 만 25세 이상(1.2%), 만 11세 이하(0.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 연령별 분포

구분	표본수(명)	비율(%)
만 11세 이하	1	0.6
만 13~15세 이하	36	22.4
만 16~18세 이하	50	31.0
만 19~21세 이하	40	24.2
만 22~24세 이하	30	18.7
만 25세 이상	2	1.2
무응답	2	1.2

2) 출신국적 및 현재국적

설문대상자들의 출신국적과 현재국적, 체류자격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출신국적은 중국(55.9%), 한국(23.0%), 기타(21.1%) 순이며, 기타에 해당하는 국적으로는 필리핀, 베트남, 몽골 등이 포함되었다. 둘째, 현재 유지하고 있는 국적 역시 중국(73.3%)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한국(8.1%), 기타(17.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 출신국적 및 현재국적 비율

	출신국적		현재국적	
	표본수(명)	비율(%)	표본수(명)	비율(%)
한국	37	23.0	13	8.1
중국	99	55.9	118	73.3
기타	34	21.1	28	17.4
무응답	0	0.0	2	1.2

3) 체류자격

조사대상자 중 중국 또는 필리핀, 베트남 등이 현재국적인 경우 귀화신청을 이미 완료(6.8%)하였거나 신청 준비 중(14.3%)인 경우보다 향후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74.5%로 높게 나타났다. 영주권 신청 현황에서도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72.0%로 나타났고, 신청을 완료(3.7%)하였거나 신청을 준비 중(18.0%)이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4-5> 귀화신청 및 영주권 신청 비율

	귀화 신청		영주권 신청	
	표본수(명)	비율(%)	표본수(명)	비율(%)
신청완료	11	6.8	6	3.7
신청준비	23	14.3	29	18.0
계획없음	120	74.5	116	72.0
무응답	7	4.3	10	6.2

조사대상자의 체류자격을 살펴보면 F-1(방문동거) 비자를 통해 입국한 비율이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C-3(단기방문) 19.9%, F-2(거주) 19.3%, F-4(재외동포) 11.2%, F-5(영주권) 1.9%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답변에는 D-4(어학연수), H-2(방문취업) 외에 자신의 체류자격을 알지 못한다는 답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표 4-6> 체류자격(발급 비자 종류) 구분

구분	표본수(명)	비율(%)
F-1(방문동거)	40	24.8
F-2(거주)	31	19.3
F-4(재외동포)	18	11.2
F-5(영주권)	3	1.9
C-3(단기방문)	32	19.9
기타	28	17.4
무응답	9	5.6

4) 거주기간

조사대상자의 입국시기를 살펴보면 국내 체류기간이 2~3년 이하인 경우가 42.2%를 차지하고 있으며, 1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40.4%에 달했다. 반면 7년 이상의 장기체류라는 답변은 2.5%에 그쳤다.

<표 4-7> 입국연도 및 체류기간 비율

구분	표본수(명)	비율(%)
1년 미만(~2017)	65	40.4
2~3년 이하(2014~2016)	68	42.2
4~6년 이하(2011~2013)	24	14.9
7년 이상(2010년 이전)	4	2.5

5) 거주지

조사대상자의 거주지 분포는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났다. 수원시 내에서는 팔달구에 거주한다는 비율이 26.6%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권선구(15.3%), 장안구(14.2%), 영통구

(7.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타’의 응답비율은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세부적으로는 군포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인천시 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설문대상자들의 실제 거주지 또는 서류상에 기재된 주소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으로 예측할 수 있다.

<표 4-8> 거주지 분포

구분	표본수(명)	비율(%)
장안구	21	14.2
권선구	23	15.3
팔달구	43	26.6
영통구	12	7.5
기타	51	29.6
무응답	11	6.8

6) 입국 전 생활형태

조사대상자들의 입국 전 생활형태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국 전 모국에서의 동거형태를 살펴보면, 조부모와 함께 지냈다는 응답비율이 37.3%로 나타났으며, 기타(31.1%)의 응답내용을 살펴보면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거나, 친구 또는 혼자서 생활하였다는 답변 내용이 있었다.

둘째, 입국 전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한 기간은 2년 이상(55.9%)이 가장 많았고, 1개월 미만(21.1%), 1~6개월 이하(7.5%), 1~2년 이하(6.8%), 6개월~1년 이하(5.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9> 입국 전 생활형태 비율

구분		표본수(명)	비율(%)
입국 전 동거형태	조부모	60	37.3
	친인척	49	30.4
	기타	50	31.1
	무응답	1	0.6
입국 전 단독 생활기간	1개월 미만	34	21.1
	1~6개월 이하	12	7.5
	6~1년 이하	9	5.6
	1~2년 이하	11	6.8
	2년 이상	90	55.9
	무응답	5	3.1

7) 입국 전 주요 활동

조사대상자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 어떠한 준비를 했는가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중복응답). 대부분이 별도의 준비를 하지 않았다(61.5%)고 답변했고, 한국어를 공부하거나(18.0%), 한국학교 입학에 위한 정보수집(8.1%),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해 알아보았다는 답변이 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한국에서 취업 및 경제활동을 위해 일자리 정보를 수집하거나(3.1%), 취업을 위해 별도의 기술을 공부(1.9%)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입국 전 주요 활동

구분	표본수(명)	비율(%)
없음	99	61.5
한국어 공부	29	18.0
한국학교 입학 정보수집	13	8.1
한국사회 및 문화 파악	12	7.5
일자리 정보수집	5	3.1
취업 위한 기술 습득	3	1.9
기타	1	0.6

8) 입국 초기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 및 습득방식

조사대상자들의 입국 초기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은 어떠했고, 어떻게 한국어를 습득하였는지에 대한 중복응답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어 수준이 어떠한가에 대한 조사결과 36.0%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고 답변했고, 16.8%는 거의 못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입국 초기에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된다.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잘 되는 경우는 20.5%, 조금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응답은 26.7%였다.

둘째, 한국어를 어떤 방식으로 습득하였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학원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비율이 18.6%로 가장 높게 나왔다. 다음으로는 부모님께 습득(18.0%)하거나, 혼자서 공부하였다(18.0%)라는 답변이 많았으며, 이주민센터에서의 한국어 교육(16.1%), 텔레비전을 통한 습득(11.8%), 주변인들과의 대화를 통한 습득(10.6%), 대학 내 설치된 한국어 학당에서의 교육(6.2%)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10.6%)에는 예비학교 및 지원기관을 통해서 한국어를 습득했다는 의견과 함께,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표 4-11> 입국 초기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 및 한국어 습득방식

구분		표본수(명)	비율(%)
입국 직후 한국어 의사소통수준	의사소통 불가	58	36.0
	거의 못하는 수준	27	16.8
	조금 알아듣는 정도	43	26.7
	일상적 의사소통 가능	33	20.5
한국어 습득방식	혼자서 공부	29	18.0
	TV	19	11.8
	주변인과의 대화	17	10.6
	대학교 한국어 학당	10	6.2
	이주민센터 한국어 교육	26	16.1
	학원	30	18.6
	부모님께 습득	29	18.0
	기타	17	10.6

9) 현재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

중도입국청소년들의 현재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이 어떠한지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및 전반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첫째, 한국어 말하기 수준은 ‘보통정도(34.2%)’ 라고 답변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못하는 편(27.3%)’ 이거나 ‘전혀 못한다(12.4%)’ 라는 의견이 ‘잘하는 편(18.6%)’ 또는 ‘매우 잘하는 편(6.2%)’ 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한국어 쓰기는 ‘보통수준(36.0%)’ 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못하는 편(23.6%)’ 이거나 ‘전혀 못한다(18.0%)’ 라는 의견이 ‘잘하는 편(16.8%)’ 또는 ‘매우 잘하는 편(5.0%)’ 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한국어 읽기 능력에 대해서는 37.9%가 ‘보통수준’ 이라고 답변하였다. 한국어 읽기를 잘 한다고 생각한다는 비율이 20.5%를 차지했고, 못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18.6%로 조사되었다.

넷째, 한국어 듣기 수준에 대한 조사결과 34.2%가 ‘보통정도’ 라고 응답하였고, ‘잘하는 편(24.8%)’ , ‘못하는 편(22.4%)’ , ‘전혀 못한다(11.2%)’ , ‘매우 잘 한다(7.5%)’ 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물음에서는 38.5%가 ‘보통정도’ 의 실력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못하는 편(24.2%)’ 이거나 ‘전혀 못한다(13.0%)’ 라는 의견이 ‘잘하는 편(19.3%)’ 또는 ‘매우 잘하는 편(3.7%)’ 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12> 현재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

(단위 : 명, %)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전반적 의사소통
전혀 못함	20(12.4)	29(18.0)	26(16.1)	18(11.2)	21(13.0)
못하는 편	44(27.3)	38(23.6)	30(18.6)	36(22.4)	39(24.2)
보통	55(34.2)	58(36.0)	61(37.9)	55(34.2)	62(38.5)
잘하는 편	30(18.6)	27(16.8)	33(20.5)	40(24.8)	31(19.3)
매우 잘함	10(6.2)	8(5.0)	10(6.2)	12(7.5)	6(3.7)

10) 입국동기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입국동기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 들어온 가

장 주된 이유에 대한 물음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였다는 의견이 43.5%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한국에서 공부(26.7%)를 하거나 취업(11.8%)을 하기 위해 한국에 오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구체적인 입국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45.3%가 부모님과 본인 스스로의 의지가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고, 스스로의 의지라는 의견도 22.4%로 나타나 타인의 결정이 아닌 자기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결정에 의해 한국에 오게 되었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되었다는 의견은 3.1%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4-13> 입국동기

구분		표본수(명)	비율(%)
주요 입국동기	부모님과 함께 거주	70	43.5
	부모 외 친인척과 함께 거주	6	3.7
	한국에서 공부	43	26.7
	한국에서 취업	19	11.8
	본국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5	3.1
	기타	9	5.4
	무응답	49	30.4
세부 입국동기	어머니(또는 아버지)의 권유	32	19.9
	나의 의지	36	22.4
	부모님과 나의 의지	73	45.3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5	3.1
	기타	12	7.2

11) 입국 초기 주요 활동

한국 입국 후 최초 3개월 동안의 주요 활동에 대해서는 별다른 활동 없이 집에 거주하였다는 응답비율은 47.2%로 조사되었다. 학교에 입학(31.7%)하거나 외국인센터나 종교기관 등의 지원센터(11.8%) 등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부모님과 함께 일(0.6%)을 하거나 개인적인 소득활동(1.9%)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입국 후 최초 3개월간의 주요 활동

구분	표본수(명)	비율(%)
학교입학	51	31.7
지원단체(외국인센터, 종교기관)	19	11.8
집에 거주	76	47.2
부모님과 함께 일	1	0.6
취업(소득활동)	3	1.9
기타	10	6.0
무응답	1	0.6

12) 입국 초기 고민사항

한국 입국 직후 최초 3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에 대해 1, 2순위로 중복응답 조사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는 ‘한국어를 하지 못함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59.62%)’ 을 들었고, 2순위로는 ‘낮선 환경과 문화에 대한 적응(28.6%)’ 과 ‘외로움(27.3%)’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5〉 입국 직후 최초 3개월간의 주요 고민사항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새로운 가족과 친해지는 것	4(2.5)	1(0.6)
학교진학 문제	7(4.3)	8(6.0)
한국어를 못하는 것	96(59.6)	11(6.8)
낮선 환경과 문화에 적응	18(11.2)	46(28.6)
주변의 안 좋은 시선	4(2.5)	2(1.2)
외로움	11(6.8)	44(27.3)
없음	18(11.2)	8(5.0)
기타	2(1.2)	3(1.8)
무응답	1(0.6)	38(23.6)

제2절 가정환경

중도입국청소년들의 가정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의 현황,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가정의 소득수준, 가족들과 의사소통 시에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는지, 가족관계에 있어 갈등 여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중도입국청소년의 가정환경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동거현황

1)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의 수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의 수는 3~5인 미만(58.4%)인 경우가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1~3인 미만(23.6%), 5~7인 미만(13.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7인 이상의 대가족인 경우는 2.5%에 그쳤다. 반면, 혼자서 생활하고 있는 1인 가구의 비율도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동거 가족 현황

구분	표본수(명)	비율(%)
1인 가구	2	1.2
1인~3인 미만	38	23.6
3인~5인 미만	94	58.4
5인~7인 미만	22	13.7
7인 이상	4	2.5
무응답	1	0.6

2)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의 형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친어머니(14.3%), 친아버지(10.6%), 양아버지(7.5%), 친할머니(6.2%), 친형제(5.0%), 양어머니(3.1%), 외할머니(3.1%), 친할아버지(2.5%), 외할아버지(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친척과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은 5.0%로 조사되었고, 동복형제(3.7%) 또는 이복형제(0.6%)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가족구성원 없이 응답자 혼자서 생활하고 있는 비율은 0.6%로 나타났다.

<표 4-17>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

* 중복응답

구분	표본수(명)	비율(%)
친아버지	17	10.6
친어머니	23	14.3
양아버지	12	7.5
양어머니	5	3.1
친할아버지	4	2.5
친할머니	10	6.2
외할아버지	2	1.2
외할머니	5	3.1
친형제	8	5.0
이복형제(아버지만 같음)	1	0.6
동복형제(어머니만 같음)	6	3.7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다른 형제	3	1.9
친척	8	5.0
혼자 살고 있음	1	0.6
기타	11	6.8

2.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1) 부모의 출신국적

부모의 출신국적 조사결과 아버지(52.2%)와 어머니(47.8%) 모두 조선족 출신의 비율이 높았다. 아버지의 경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19.8%로 높게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경우 한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비율은 8.1%에 그쳤다.

부모의 체류자격 및 발급비자에 대한 현황조사는 다음과 같다. 앞서 조사결과에서와 같이 아버지의 출신국적이 한국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므로, 별도의 비자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가 1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F-4(재외동포) 12.4%, F-5(영주권) 8.4%, 귀화자(8.1%), F-2(거주) 3.1%, C-3(단기방문) 1.9%, F-1(방문동거) 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체류자격 조사결과 기타응답을 제외하고 귀화자의 비율이 14.9%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F-4(재외동포) 14.3%, 한국 국적자 13.0%, F-5(영주권) 7.5%, F-1(방문동거) 5.0%, F-2(거주) 3.7%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18〉 부모의 출신국적 및 체류자격 현황

(단위 : 명, %)

구분		아버지	어머니
출신국적	한국	32(19.8)	12(8.1)
	중국: 조선족	84(52.2)	77(47.8)
	중국: 한족	18(11.2)	32(19.9)
	기타	9(5.6)	35(21.7)
	무응답	18(11.2)	4(2.5)
체류자격 (비자종류)	한국	31(19.3)	21(13.0)
	귀화자	13(8.1)	24(14.9)
	F-1(방문동거)	2(1.2)	8(5.0)
	F-2(거주)	5(3.1)	6(3.7)
	F-4(재외동포)	20(12.4)	23(14.3)
	F-5(영주권)	14(8.7)	12(7.5)
	C-3(단기방문)	3(1.9)	3(1.9)
	기타	49(30.4)	53(32.9)
	무응답	24(14.9)	11(6.8)

2) 부모의 연령대

부모의 연령대를 조사한 결과 아버지는 40대(47.8), 50대(29.2%), 30대(3.7%), 60대 이상(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역시 40대가 6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30대(16.1%), 50대(14.3%), 60대 이상(0.6%)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19〉 부모의 연령 비율

(단위 : 명, %)

구분	아버지	어머니
30대	6(3.7)	26(16.1)
40대	77(47.8)	100(62.1)
50대	47(29.2)	23(14.3)
60대 이상	3(1.8)	1(0.6)
무응답	28(17.3)	11(6.8)

3) 부모의 최종학력

부모의 최종학력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23.6%)’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중학교 졸업(20.5%)’, ‘전문대 졸업 및 4년제 대학졸업’이 각각 6.8%, ‘초등학교 졸업’ 3.1%, ‘무학(1.9%)’, ‘대학원 졸업 이상(1.2%)’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어머니의 최종학력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이 2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중학교 졸업(20.5%)’, ‘4년제 대학 졸업(7.5%)’, ‘전문대 졸업(6.8%)’, ‘초등학교 졸업(4.3%)’, ‘무학(1.9%)’, ‘대학원 졸업(0.6%)’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20> 부모의 최종학력 비율

(단위 : 명, %)

구분	아버지	어머니
무학	3(1.9)	3(1.9)
초등학교 졸업	5(3.1)	7(4.3)
중학교 졸업	33(20.5)	33(20.5)
고등학교 졸업	38(23.6)	43(26.7)
전문대 졸업	11(6.8)	11(6.8)
4년제 대학 졸업	11(6.8)	12(7.5)
대학원 졸업	2(1.2)	1(0.6)
잘 모르겠다	34(21.1)	45(28.0)
무응답	24(14.9)	6(3.7)

4) 부모의 직업

조사대상자 부모의 직업에 대한 현황 조사결과 대부분 일용직 종사자이거나 식당 등의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가 특별한 직업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3.7%, 20.5%에 달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4-21>에 제시하였다.

아버지의 직업은 건설·현장 일용직 종사자라는 응답이 3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제조업(공장) 종사자(18.0%), 개인사업(9.9%), 서비스업(식당) 종사자(6.2%)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조사결과 서비스업(식당) 종사자가 29.2%로 가장 많았으며, 현재 직업이 없다는 응답도 20.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제조업(공장) 종사자(16.8%), 개인사업(11.2%), 판매업 종사자(2.5%), 건설·현장 일용직 종사자(1.2%), 농림어업 종사자(1.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1> 부모의 직업 현황

(단위 : 명, %)

구분	아버지	어머니
건설·현장 일용직 종사자	53(32.9)	2(1.2)
제조업(공장) 종사자	29(18.0)	27(16.8)
판매업 종사자	1(0.6)	4(2.5)
서비스업(식당) 종사자	10(6.2)	47(29.2)
농림어업 종사자	2(1.2)	2(1.2)
개인사업	16(9.9)	18(11.2)
무직	6(3.7)	33(20.5)
기타	18(11.2)	21(13.0)
무응답	26(16.1)	7(4.3)

3. 소득수준

중도입국청소년 가정의 소득수준에 대한 조사결과 중간정도에 해당한다는 비율이 76.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넉넉한 편(11.8%), 매우 넉넉한 편(3.1%)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어려운 편(7.5%)이거나, 매우 어렵다(0.6%)고 응답한 비율 보다 높게 나타나 대부분 자신들의 소득수준을 중산층 이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2> 소득수준 비율

구분	표본수(명)	비율(%)
매우 어려운 편	1	0.6
어려운 편	12	7.5
중간 정도	123	76.4
넉넉한 편	19	11.8
매우 넉넉한 편	5	3.1
무응답	1	0.6

4. 가족관계

1) 가족들과 의사소통 시 사용언어

집안에서 가족들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어느 나라 말을 사용하는 지에 대한 조사결과 모국어를 사용(28.0%)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다. 다음으로는 주로 모국어를 사용하되 한국어를 조금 사용(25.5%)한다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으며, 한국어만 사용 한다는 답변은 9.9%에 그쳤다.

<표 4-23> 가족들과 의사소통 시 사용하는 언어

구분	표본수(명)	비율(%)
한국어	16	9.9
주로 한국어, 모국어 약간	27	16.8
한국어와 모국어 반반	29	18.0
주로 모국어, 한국어 약간	41	25.5
모국어	45	28.0
무응답	3	1.8

2)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점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조사결과 ‘한국어를 잘 몰라서 대화가 어렵다’는 의견에는 보통 수준(21.1%)이거나 그렇지 않은 편(19.9%)이라는 답변의 비율이 높았다. ‘생활습관이나 문화에서 오는 차이’에 대해서도 보통 수준(24.8%)의 어려움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편(23.6%)이라고 답변했다. ‘새 부모님의 무관심’에 대해서는 59.6%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새 형제·자매로부터의 소외감’에 대한 물음에서 역시 62.1%가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받아들였다. ‘집안의 경제사정’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과반수가 큰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았으며, ‘부모의 불화’에 대해서도 28.0%가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거나, 매우 그렇지 않다(27.3%)고 응답하였다.

<표 4-24> 가족들과의 관계

(단위 : 명,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한국말 소통의 어려움	30(18.6)	32(19.9)	34(21.1)	12(7.5)	15(9.3)	35(21.7)
생활습관, 문화의 차이	30(18.6)	38(23.6)	40(24.8)	13(8.1)	3(1.9)	34(21.1)
새 부모님의 무관심	23(14.3)	18(11.2)	15(9.3)	3(1.9)	1(0.6)	96(59.6)
새 형제·자매로부터의 소외감	26(16.1)	12(7.5)	17(10.6)	1(0.6)	2(1.2)	100(62.1)
집안의 경제사정	34(21.1)	40(24.8)	31(19.3)	9(5.6)	2(1.2)	40(24.8)
부모님의 불화	44(27.3)	33(20.5)	28(17.4)	9(5.6)	0(0.0)	45(28.0)

3) 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점

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점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새 부모님과 함께 있기 불편하고 긴장된다’,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 ‘잡은 의견충돌이 있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각각 65.8%가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응답했다.

‘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질문에서 역시 65.2%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했으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2%에 그쳤다. ‘새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질문에서도 95.7%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집이 싫어서 가출하고 싶은 충동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23.6%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매우 그러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0.6%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4-25> 새 부모님과의 관계

(단위 : 명,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함께 있기 불편하고 긴장됨	18(11.2)	12(7.5)	17(10.6)	0(0.0)	1(0.6)	106(65.8)
대화가 잘 통하지 않음	14(8.7)	14(8.7)	16(9.9)	4(2.5)	0(0.0)	106(65.8)
의견충돌이 잦음	14(8.7)	15(9.3)	18(11.2)	0(0.0)	1(0.6)	106(65.8)
나에 대한 관심이 없음	15(9.3)	19(11.8)	12(7.5)	2(1.2)	0(0.0)	105(65.2)
나를 좋아하지 않음	17(10.6)	18(11.2)	13(8.1)	0(0.0)	0(0.0)	154(95.7)
집이 싫어서 가출하고 싶은 충동	38(23.6)	19(11.8)	12(7.5)	5(3.1)	1(0.6)	79(49.1)

제3절 심리·사회적응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심리상태와 사회적응 수준에 대한 조사는 현재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가족 및 친구관계, 어려운 일을 처했을 때 도움을 구할 곳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자아인식 수준, 심리적 스트레스, 한국에 대한 인식조사와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중도입국청소년의 심리 및 사회적응에 대한 특성과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어려운 일을 의논할 상대

중도입국청소년들이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을 터놓고 의논할 상대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중 73.9%(119명)가 ‘있다’ 라고 응답하였다. 주로 누구와 의논하는가에 대해서는 친구(50.4%), 어머니(17.6%), 형제자매(5.9%), 아버지(4.2%), 청소년관련센터(2.5%), 학교선생님(0.8%)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마음을 터놓고 의논할 상대가 곁에 있다고 응답한 119명 중에서는 도움을 청할 대상에 한국인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54.6%가 ‘그렇다’ 라고 하였고, 40.3%는 도움을 구할 한국인 친구나 지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려운 일을 함께 의논할 상대가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5.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6> 주로 고민을 의논하는 상대

구분	표본수(명)	비율(%)
아버지	5	4.2
어머니	21	17.6
형제자매	7	5.9
친구	60	50.4
학교선생님	1	0.8
직장상사	0	0.0
직장동료	0	0.0
청소년관련센터	3	2.5
기타	4	3.2
무응답	1	0.8

2. 생활만족도

생활태도에 대한 인식과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 대부분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는 게 즐겁다’ 라는 문항에서 52.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는 문항에서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수준(32.9%)이거나 그렇지 않다(16.1%)의 순으로 나타났다.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는 물음에서는 49.1%가 그렇다고 답변하였으며, 그렇지 않다(5.0%)와 매우 그렇지 않다(1.9%) 라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4-27> 현재 생활 태도

(단위 : 명,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사는게 즐겁다	1(0.6)	5(3.1)	36(22.4)	85(52.8)	33(20.5)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5(3.1)	26(16.1)	53(32.9)	64(39.8)	12(7.5)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3(1.9)	8(5.0)	49(30.4)	79(49.1)	21(13.0)

3. 가족 및 친구관계

조사대상자의 가족 및 친구관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대부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신과 가족과의 관계가 우호적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부분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힘들 때 도와준다(55.3%)’, ‘내 말을 잘 들어준다(49.7%)’, ‘내게 관심이 많다(54.7%)’ 의 문항에서 ‘그렇다’ 라고 답하였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한 비율은 1.2% 이내로 적게 조사되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한 문항에서도 대부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 생각과 말을 잘 들어준다’,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친구가 있다’, ‘친구들은 나를 좋아한다’ 라는 항목에서 각각 58.4%, 59.6%, 57.1%가 ‘그렇다’ 라고 답변했다. 반면 각각의 문항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0.6%에 그쳤다.

〈표 4-28〉 가족 및 친구관계

(단위 : 명,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가족	우리 가족은 내가 힘들 때 도와줌	1(0.6)	3(1.9)	27(16.8)	89(55.3)	41(25.5)
	우리 가족은 내 말을 잘 들어줌	2(1.2)	9(5.6)	35(21.7)	80(49.7)	35(21.7)
	우리 가족은 내게 관심이 많음	2(1.2)	3(1.9)	26(16.1)	88(54.7)	42(26.1)
친구	친구들은 내 생각과 말을 잘 들어줌	1(0.6)	8(5.0)	36(22.4)	94(58.4)	22(13.7)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친구가 있음	1(0.6)	4(2.5)	36(22.4)	96(59.6)	24(14.9)
	친구들은 나를 좋아함	1(0.6)	7(4.3)	44(27.3)	92(57.1)	16(9.9)

4. 자아인식

자아인식에 대한 조사결과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라는 문항에서는 조사대상자의 과반수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46.0%가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매우 그렇다’ 라는 응답비율은 15.5%에 달하고 있다.

둘째, ‘좋은 특성을 많이 갖고 있다’ 라는 문항에 대한 답변은 ‘보통이다(39.8%)’, ‘그렇다(38.5%)’, ‘매우 그렇다(12.4%)’ 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스스로 실패한 존재로 느낀다’ 라는 문항에서는 41.6%가 ‘그렇지 않다’ 라고 대답했으며, ‘그렇다(8.1%)’ 또는 ‘매우 그렇다(1.9%)’ 라고 응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넷째, ‘어려움이 있을 때 이유를 생각해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의 문항에서는 57.8%가 ‘그렇다’ 라고 답변했으며, ‘그렇지 않다(3.7%)’ 또는 ‘매우 그렇지 않다(0.6%)’ 라고 응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다섯째,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라는 항목에서는 53.3%가 ‘그렇다’ 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26.7%는 ‘보통수준’ 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자신에 대한 만족감’ 을 묻는 문항에서는 ‘그렇다(43.5%)’, ‘보통이다(39.1%)’, ‘매우 그렇다(14.3%)’, ‘그렇지 않다(3.1%)’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스스로에 대해 만족감이 매우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0.0%였다.

마지막으로, ‘때때로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껴진다’ 라는 문항에서는 40.4%가 ‘그렇지 않다’ 고 응답했으며, ‘그렇다’ 라고 인식한 경우는 9.3%에 그쳤다.

〈표 4-29〉 자아인식

(단위 : 명,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낌	1(0.6)	12(7.5)	49(30.4)	74(46.0)	25(15.5)
좋은 특성을 많이 갖고 있음	2(1.2)	13(8.1)	64(39.8)	62(38.5)	20(12.4)
스스로 실패한 존재로 느낌	37(23.0)	67(41.6)	40(24.8)	13(8.1)	3(1.9)
어려운 일을 스스로 해결	1(0.6)	7(4.3)	42(26.1)	93(57.8)	17(10.6)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	2(1.2)	6(3.7)	43(26.7)	89(53.3)	21(13.0)
내 자신에 대한 만족감	0(0.0)	5(3.1)	63(39.1)	70(43.5)	23(14.3)
쓸모없는 존재로 느낌	36(22.4)	65(40.4)	40(24.8)	15(9.3)	5(3.1)

5. 심리적 스트레스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문항에서 그렇지 않거나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나의 모국 문화에 대한 농담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라는 문항에 대해서 44.1%가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보통수준(23.0%)이라고 답변했다. 반면에 모국문화에 대해 농담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한 비율은 11.8%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에 사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라는 문항에서는 39.1%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으며, ‘전혀’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 비율도 14.9%에 달했다. 반면에 스트레스를 과다하게 받고 있다는 응답자는 0.0%로 나타났고, 보통수준(35.4%) 이거나 일정 부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10.6%)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라는 문항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32.9%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보통정도라는 응답이 31.1%,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응답은 20.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주변에서 한국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압박을 준다’ 라는 항목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비율이 45.3%로 가장 많았고, ‘보통수준(26.1%)’, ‘전혀 그렇지 않다(18.0%)’, ‘그렇다(9.3%)’, ‘매우 그렇다(0.6%)’ 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부모님이 외국인이라서 무시당할 때가 있다’ 라는 질문에서는 ‘그렇지 않다(43.5%)’ 와 ‘매우 그렇지 않다(37.9%)’ 라는 답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무시를 받는다는 응답은 5.0%에 그쳤다.

여섯째, ‘부모님이 외국인이라서 따돌림을 받는다’ 라는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45.3%)’ 또는 ‘매우 그렇지 않다(37.9%)’ 의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따돌림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5%로 나타났다.

일곱째, ‘동네 사람들은 우리 식구를 못살게 군다’ 라는 조사결과 ‘그렇지 않다(46.0%)’ 또는 ‘매우 그렇지 않다(42.2%)’ 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이웃주민들로부터의 괴롭힘을 받았다는 응답은 0.6%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사람은 우리 식구를 못살게 군다’ 라는 조사결과 ‘그렇지 않다(44.7%)’ 또는 ‘매우 그렇지 않다(43.5%)’ 의 비율로 나타나 대부분 그러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들로부터 괴롭힘을 받았다는 응답은 0.6%에 그쳤다.

<표 4-30> 심리적 스트레스

(단위 : 명,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의 모국 문화에 대한 농담에 민감	20(12.4)	19(11.8)	37(23.0)	71(44.1)	14(8.7)
한국에 사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음	23(14.9)	63(39.1)	57(35.4)	17(10.6)	0(0.0)
한국어를 잘 못해 스트레스를 받음	22(13.7)	53(32.9)	50(31.1)	33(20.5)	3(1.9)
한국사람처럼 행동하라는 압박	29(18.0)	73(45.3)	42(26.1)	15(9.3)	1(0.6)
부모님이 외국인이라서 무시 받음	61(37.9)	70(43.5)	21(13.0)	8(5.0)	1(0.6)
부모님이 외국인이라서 따돌림 받음	61(37.9)	73(45.3)	23(14.3)	4(2.5)	0(0.0)
동네 사람들은 우리 식구를 못살게 군다	68(42.2)	74(46.0)	18(11.2)	1(0.6)	0(0.0)
한국 사람들은 우리 식구를 못살게 군다	70(43.5)	72(44.7)	18(11.2)	1(0.6)	0(0.0)

6. 한국에 대한 인식

한국문화와 한국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조사 결과 대부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어를 사용한 의사소통 빈도나 수준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문화(음악, 영화, 음식, 옷 등)을 즐기는 편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55.9%가 ‘그렇다’ 라고 답하였으며, ‘매우 그렇다’ 라는 비율은 18.6%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에 살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은 36.6%로 나타났고, 자랑스럽지 않다고 대답한 비율은 3.7%로 조사되었다. 이는 대부분 한국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 긍

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앞으로 계속 한국에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44.7%가 ‘보통정도’라고 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그렇다(31.7%)’, ‘그렇지 않다(12.4%)’, ‘매우 그렇다(6.8%)’, ‘매우 그렇지 않다(4.3%)’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향후 한국에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44.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보통수준(29.8%)’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그 다음을 차지했고, ‘그렇지 않다(12.4%)’, ‘매우 그렇지 않다(6.2%)’, ‘매우 그렇다(6.8%)’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한국문화를 배우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47.2%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수준(36.0%)’이라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은 4.3%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를 보였다.

여섯째, ‘모국어보다 한국어로 쓰는 것을 더 잘한다’라는 문항에서는 38.5%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으며, ‘보통이다(23.6%)’, ‘매우 그렇지 않다(21.7%)’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국어보다 한국어 쓰기를 더 잘한다는 의견은 11.2%에 그쳤다.

일곱째, ‘집에서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31.7%가 그렇지 않고, 22.4%가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과반수의 응답자가 집에서는 주로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모국인보다 한국인들과 더 잘 어울리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45.3%가 ‘보통수준’, 33.5%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주로 한국인들과 더 어울리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7%에 그쳤다.

아홉째, 한국인들은 모국인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한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보통정도(43.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들이 나를 더 잘 이해한다고 느낀다는 비율은 5.6% 수준이었으나, ‘그렇지 않다’라는 비율은 34.2%로 나타났다.

열 번째, ‘모국인에게 보다 한국인에게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더 쉬운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44.1%가 ‘보통수준’이라고 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그렇지 않다(28.6%)’, ‘매우 그렇지 않다(15.5%)’, ‘그렇다(9.3%)’, ‘매우 그렇다(1.9%)’의 순으로 나타났다.

열한 번째, ‘모국인보다 한국인과 함께 있을 때 더 편안한지’에 대해서는 42.2%가 ‘보통정도’라고 답하였다. 모국인과 함께 있을 때 더 편안하다는 응답비율은 27.3%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인과 함께 있을 때 더 편안하다는 답변은 11.2%에 그쳤다.

마지막으로 ‘친구들이 대부분 한국인인가’라는 물음에서는 40.4%가 ‘그렇지 않다’ 또는 24.8%가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은 한국인보다 모국 출신의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표 4-31〉 한국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한국문화를 즐기는 편	4(2.5)	5(3.1)	32(19.9)	90(55.9)	30(18.6)
한국에 사는 것이 자랑스러움	5(3.1)	6(3.7)	80(49.7)	59(36.6)	9(5.6)
앞으로 한국에 살고 싶음	7(4.3)	20(12.4)	72(44.7)	51(31.7)	11(6.8)
한국 대학이나 회사에 다니고 싶음	10(6.2)	20(12.4)	48(29.8)	72(44.7)	11(6.8)
한국문화를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	5(3.1)	7(4.3)	58(36.0)	76(47.2)	13(8.1)
모국어보다 한국어 쓰기를 더 잘함	35(21.7)	62(38.5)	38(23.6)	18(11.2)	6(3.7)
집에서 한국어를 주로 사용	36(22.4)	51(31.7)	33(20.5)	37(23.0)	3(1.9)
모국인보다 한국인과 더 잘 어울림	19(11.8)	54(33.5)	73(45.3)	14(8.7)	1(0.6)
한국인들이 나를 더 잘 이해	25(15.5)	55(34.2)	70(43.5)	9(5.6)	1(0.6)
한국인에게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더 쉬움	25(15.5)	46(28.6)	71(44.1)	15(9.3)	3(1.9)
한국인과 함께 있을 때 더 편안함	28(17.4)	44(27.3)	68(42.2)	18(11.2)	3(1.9)
친구들이 대부분 한국인	40(24.8)	65(40.4)	37(23.0)	14(8.7)	4(2.5)

7. 한국문화 적응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문화 적응정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국의 음악을 주로 듣는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39.1%가 ‘그렇다’고 답변했고, 이는 ‘그렇지 않다(16.8%)’ 또는 ‘매우 그렇지 않다(4.3%)’의 답변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인간관계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장 친한 사람은 모국 인인가’라는 항목에서는 46.6%가 ‘그렇다’고 답변했으며, ‘모국인 사교모임에 나가는 것이 더 좋다’의 항목에서는 ‘보통수준(41.0%)’ 또는 ‘그렇다(39.1%)’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한국인과 모국인 친구가 모두 있다’의 항목에서는 ‘그렇다(37.9%)’와 ‘매우 그렇다(4.3%)’라는 답변의 비율이 ‘그렇지 않다(18.6%)’와 ‘매우 그렇지 않다(5.6%)’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언어사용에 대한 조사결과 ‘한국어와 모국어 농담을 모두 이해’한다는 비율은 31.1%로 ‘이해하지 못 한다’라고 응답한 14.9%의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국어로 한국어를 생각한다’는 항목에서는 40.4%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넷째, 모국인에 대한 감정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모국인은 나를 평등하게 대우’해준다

는 항목에서 50.9%가 ‘보통정도’ 라고 답하였으며, ‘모국인과 있을 때 더 편안한가’ 라는 질문에서는 40.4%가 ‘보통수준’ 이거나 ‘그런 편이다(37.9%)’ 라고 응답하였다.

다섯째, 모국인과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 감정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모국인과 한국인은 모두 나를 존경한다’, ‘모국인과 한국인 모두에게 편안한 감정을 느낀다’, ‘모국인, 한국인과 사귄 때의 어려움이 있다’ 등의 항목은 모두 ‘보통수준’ 인 49.7%, 45.3%, 39.8%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국인과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모국인, 한국인 모두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모국인, 한국인 모두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모국인, 한국인 모두를 신뢰하기 어렵다’ 라는 질문에 대해 모두 ‘그렇지 않다’ 는 49.1%, 53.4%, 47.8%로 나타났다.

<표 4-32> 한국문화 적응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국의 음악을 주로 들음	7(4.3)	27(16.8)	56(34.8)	63(39.1)	8(5.0)
가장 친한 사람은 모국인	4(2.5)	9(5.6)	47(29.2)	75(46.6)	26(16.1)
모국인 사교모임에 가는 것이 더 좋음	3(1.9)	17(10.6)	66(41.0)	63(39.1)	8(5.0)
한국인과 모국인 친구가 있음	9(5.6)	30(18.6)	53(32.9)	61(37.9)	7(4.3)
한국어와 모국어 농담을 모두 이해	11(6.8)	24(14.9)	70(43.5)	50(31.1)	6(3.7)
모국어로 한국어를 생각함	21(13.0)	65(40.4)	52(32.3)	21(13.0)	1(0.6)
모국인들이 나를 더 평등하게 대우	2(1.2)	18(11.2)	82(50.9)	51(31.7)	8(5.0)
모국인과 있을 때 더 편안함	3(1.9)	16(9.9)	65(40.4)	61(37.9)	12(7.5)
모국인과 한국인은 모두 나를 존경함	1(0.6)	11(6.8)	80(49.7)	61(37.9)	6(3.7)
모국인, 한국인 모두에게 편안한 감정	0(0.0)	12(7.5)	73(45.3)	61(37.9)	12(7.5)
모국인, 한국인과 사귄 때의 어려움	14(8.7)	61(37.9)	64(39.8)	20(12.4)	1(0.6)
모국인, 한국인 모두 나를 좋아하지 않음	51(31.7)	79(49.1)	27(16.8)	3(1.9)	1(0.6)
모국인, 한국인 모두 나를 받아들이지 않음	48(29.8)	86(53.4)	23(14.3)	4(2.5)	0(0.0)
모국인, 한국인 모두를 신뢰하기 어려움	39(24.2)	77(47.8)	34(21.1)	7(4.3)	4(2.5)

제4절 학교경험

설문대상자들의 학교경험에 대한 조사에는 정규 교육기관의 진학시기, 재학 중인 학교의 형태, 친구관계, 학습에 대한 만족도, 사교육 경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경험에 대한 조사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²⁾

1. 학교진학

1) 정규 교육기관 진학: 연령별

한국에서 첫 정규교육(학교)을 받기 시작한 연령대는 16~20세 미만(19.9%)과 12~15세 미만(13.7%)의 구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1세 이하(3.1%)의 낮은 연령대나 20세 이상(3.7%)에서의 정규교육 진입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4-33> 국내 정규교육 진학시기: 연령별 비율

구분	표본수(명)	비율(%)
11세 이하	5	3.1
12세~15세 미만	22	13.7
16세~20세 미만	32	19.9
20세 이상	6	3.7
기타	2	1.2
무응답	94	58.4

2) 정규 교육기관 진학: 학년별

한국에서 처음으로 학교에 들어간 시기는 ‘중학교 3학년(6.9%)’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초·중·고등학교의 각 학년별로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본 조사의 세부분항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영역에서 보다 무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문항별 최저 16.5%에서 최대 68.9%). 이는 응답자의 일부 또는 다수가 한국 공교육에 진입하지 못했거나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학교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은 정규 교육기관의 진학시기(연령별·학년별), 현재 재학학년 등에 대한 조사문항에 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응답 비율이 높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표 4-34〉 국내 정규교육 진학시기: 학년별

구분		표본수(명)	비율(%)
초등학교	3학년	1	0.6
	4학년	4	2.5
	5학년	5	3.1
	6학년	6	3.7
중학교	1학년	8	4.9
	2학년	3	3.8
	3학년	11	6.9
고등학교	1학년	5	3.1
	2학년	0	0.0
	3학년	4	2.5
무응답		111	68.9

2. 학교생활

1) 재학 중인 학교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종류(형태)에 대한 조사결과 한국학교에 다니고 있는 비율이 23.6%로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대안학교(3.1%), 외국인학교(2.5%), 화교학교(0.6%)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35〉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형태

구분	표본수(명)	비율(%)
한국학교	38	23.6
외국인학교	4	2.5
화교학교	1	0.6
대안학교	5	3.1
기타	10	6.2
무응답	103	64.0

2) 재학 학년

조사대상자들의 학년별 분포와 인원을 살펴보면 고등학생(24명, 14.9%)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중학생(17명, 10.5%), 대학생(11명, 6.6%), 대학원생(4명, 2.4%), 초등학생(1명, 0.6%)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36> 학년별 비율

구분		표본수(명)	비율(%)
초등학교	6학년	1	0.6
중학교	1학년	9	5.6
	2학년	6	3.7
	3학년	2	1.2
고등학교	1학년	9	5.6
	2학년	10	6.2
	3학년	5	3.1
대학교	1학년	6	3.7
	2학년	1	0.6
	3학년	3	1.9
	4학년	1	0.6
대학원		4	2.5
무응답		104	64.6

3) 학교 공부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

학교생활 중 공부를 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은 ‘한국말을 이해하는 것(12.4%)’ 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나, ‘별 어려움이 없다’ 는 의견도 12.4%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5.6%)’, ‘나의 생각을 글로 나타내는 것(1.9%)’, ‘어려운 내용에 대해 물어볼 사람이 없음(1.2%)’, ‘수업시간에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것(1.2%)’ 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1.2%) 의견으로는 ‘공부 자체가 너무 어렵다’ 거나, ‘공부하고 싶지 않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표 4-37> 학교 공부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

구분	표본수(명)	비율(%)
별 어려움 없음	20	12.4
한국말을 이해하는 것	20	12.4
공부할 내용이 어려울 때 물어볼 사람이 없음	2	1.2
내 생각을 글로 나타내는 것	3	1.9
수업시간에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것	2	1.2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	9	5.6
기타	2	1.2
무응답	5	3.0

4) 학교 친구들과 생활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

학교생활 중 친구들과 겪는 어려움에 대한 조사결과 23.0%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밖의 어려움으로는 ‘친한 친구가 없는 것(8.7%)’, ‘한국어를 잘 못한다고 놀림받는 것(3.1%)’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외국에서 왔다고 놀림받는 것’과 ‘아이들에게 욕설이나 폭력을 당하는 것’에 대한 비율은 각각 0.6%로 조사되었다.

<표 4-38> 학교 친구들과 생활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

구분	표본수(명)	비율(%)
별 어려움 없음	37	23.0
외국에서 왔다고 나를 놀리는 것	1	0.6
한국어를 잘 못한다고 놀리는 것	5	3.1
친한 친구가 없는 것	14	8.7
아이들이 때리거나 욕하는 것	1	0.6
아이들이 따돌리는 것	1	0.6
기타	2	1.2
무응답	100	62.1

5) 가장 어려운 과목

학교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과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9.3%)’ 라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영어(8.7%)’, ‘사회·역사(6.8%)’, ‘수학(5.0%)’, ‘과학(0.6%)’ 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39> 가장 어려운 과목

구분	표본수(명)	비율(%)
한국어	15	9.3
영어	14	8.7
수학	8	5.0
사회·역사	11	6.8
과학	1	0.6
기타	10	6.2
무응답	102	63.3

3. 학업중단

본 연구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6.8%(11명)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중도에 그만두거나 학업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업포기 경험이 없는 일반학생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이들은 일상적인 시간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향후 학업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의향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현황 등을 파악하였고,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제도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조사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교를 다니지 않는 시간의 활용

학업중단 경험 집단에 속한 조사대상자들은 주로 ‘친구들과 함께 시간(27.3%)’ 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에서 TV를 시청하거나 혼자 있다’ 와 ‘학원을 다니며 검정고시를 준비’ 를 한다는 답변이 각각 18.2%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경험이 없는 일반학생 집단에 속한 응답자들은 학업 외 시간활용을 ‘집에서 TV를 시청 또는 혼자 있거나(13.2%)’,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13.2%)’ 라고 하였다. 일반학생 집단은 학업중단 경험 집단에 비해 비교적 다양한 방식으로 학업 외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0> 학업 외 시간활용

(단위 : 명, %)

구분	일반학생 집단 (N=53)	학업중단 경험 집단 (N=11)
집에서 TV를 보거나 혼자 있기	7(13.2)	2(18.2)
학원을 다니며 검정고시 준비	2(3.8)	2(18.2)
학원을 다니며 취업준비	3(5.7)	0(0.0)
아르바이트	4(7.5)	0(0.0)
직장을 다니며 일(경제활동)	0(0.0)	0(0.0)
친구들과 어울림	7(13.2)	3(27.3)
기타	2(3.8)	0(0.0)
무응답	26(49.1)	2(18.2)

2) 학교 진학 계획

향후 학교 진학 계획에 대한 조사결과 학업중단 경험 집단의 54.5%가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36.4%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경험이 없는 일반학생 집단에 속한 응답자들은 54.7%가 향후 학교 진학 계획을 갖고 있었고, 28.3%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41> 향후 학업 지속 여부

(단위 : 명, %)

구분	일반학생 집단 (N=53)	학업중단 경험 집단 (N=11)
계획 중이다	29(54.7)	6(54.5)
계획이 없다	15(28.3)	4(36.4)
무응답	9(17.0)	1(9.1)

3) 학교 진학을 위해 필요한 도움과 지원

향후 학교 진학 계획을 위해 필요한 도움과 지원에 대해서는 학업중단 경험 집단과 일반학생 집단은 공통적으로 ‘주요과목의 보충’,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적응교육’ 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학업중단 경험이 없는 일반학생 집단에 속한 응답자들은 이 외에도 ‘진학하는데 필요한 본국 학교 관련 서류에 대한 도움(5.7%)’, ‘경제적 지원(1.9%)’ 등

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4-42> 학업 지속을 위해 필요한 도움과 지원

(단위 : 명, %)

구분	일반학생 집단 (N=53)	학업중단 경험 집단 (N=11)
진학하는데 필요한 본국의 학교 관련 서류	3(5.7)	0(0.0)
주요과목 보충	4(7.5)	2(18.2)
한국어 교육	13(24.5)	1(9.1)
한국문화 적응교육	3(5.7)	1(9.1)
경제적 지원	1(1.9)	0(0.0)
기타	2(3.8)	0(0.0)
무응답	20(37.7)	4(9.1)

4) 진학목표 학교

학업중단 경험 집단에 속한 조사대상자들의 진학목표 조사결과 ‘중학교(27.3%)’, ‘실업계 고등학교(18.2%)’, ‘인문계 고등학교(9.1%)’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업중단 경험이 없는 일반학생 집단에 속한 조사대상자들은 ‘인문계 고등학교(11.3%)’, ‘외국인 대안 학교(9.4%)’, ‘중학교(9.4%)’, ‘실업계 고등학교(5.7%)’ 등을 진학목표로 두고 있었다.

<표 4-43> 현재 진학을 계획 중인 학교

(단위 : 명, %)

구분	일반학생 집단 (N=53)	학업중단 경험 집단 (N=11)
중학교	5(9.4)	3(27.3)
인문계 고등학교	6(11.3)	1(9.1)
실업계 고등학교	3(5.7)	2(18.2)
외국인 대안학교	5(9.4)	0(0.0)
기타	14(26.6)	1(9.1)
무응답	20(37.7)	4(9.1)

5) 상급학교 진학 계획

상급학교 진학 계획에 대한 조사결과 학업중단 경험 집단과 일반학생 집단에 소속된 조사대상자들 모두 ‘대학교’ 및 ‘대학원’ 으로의 진학 계획 및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4> 상급학교 진학 계획

(단위 : 명, %)

구분	일반학생 집단 (N=53)	학업중단 경험 집단 (N=11)
초등학교	0(0.0)	0(0.0)
중학교	0(0.0)	0(0.0)
고등학교	3(5.7)	0(0.0)
대학교	23(43.4)	5(45.5)
대학원	10(18.9)	2(18.2)
무응답	3(5.7)	4(36.4)

6) 학교에 진학하지 않을 시 계획

만약 학교에 진학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을 할 생각인지에 대한 조사결과 학업중단 경험 집단과 일반학생 집단 모두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다’ 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 외의 답변에 대한 분포를 살펴보면, 학업중단 경험 집단은 ‘취업(27.3%)’ 을 할 계획이라고 답하였으며, 일반학생 집단은 ‘검정고시 학원(9.4%)’ , ‘아르바이트(7.5%)’ , ‘취업(5.7%)’ , ‘직업훈련교육(1.9%)’ 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45> 학교에 진학하지 않을 시 향후 계획

(단위 : 명, %)

구분	일반학생 집단 (N=53)	학업중단 경험 집단 (N=11)
생각해 보지 않음	5(9.4)	3(27.3)
검정고시 학원	5(9.4)	0(0.0)
취업	3(5.7)	3(27.3)
아르바이트	4(7.5)	0(0.0)
직업훈련교육	1(1.9)	0(0.0)
기타	0(0.0)	1(9.1)
무응답	35(66.0)	4(36.4)

4. 친구관계

1) 친구의 수

현재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조사결과,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집단보다 일반학생 집단에 속한 응답자들의 친구의 수가 더 고르고,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경험 집단은 ‘1~5명 미만’이라는 답변이 63.7%로 가장 많았고, ‘5~10명 미만(27.3%)’, ‘20명 이상(9.1%)’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학생 집단에서는 ‘5~10명 미만’이라는 답변이 3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5명 미만(36.1%)’, ‘20명 이상(15.2%)’, ‘10~15명 미만(1.9%)’, ‘15~20명 미만(1.9%)’ 로 조사되었다.

<표 4-46> 친구의 수

(단위 : 명, %)

구분	일반학생 집단 (N=53)	학업중단 경험 집단 (N=11)
1~5명 미만	19(36.1)	7(63.7)
5~10명 미만	20(38.0)	3(27.3)
10명~15명 미만	1(1.9)	0(0.0)
15명~20명 미만	1(1.9)	0(0.0)
20명 이상	8(15.2)	1(9.1)
없다	0(0.0)	0(0.0)
무응답	1(1.9)	0(0.0)

2) 친구의 출신 국가

중도입국청소년들의 교우관계에 대한 조사내용 중 현재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의 국적비율은 기타응답을 제외하고 ‘조선족’이 32.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한족(23.6%)’, ‘한국(14.3%)’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47> 친구의 출신국가 비율

구분	표본수(명)	비율(%)
한국	23	14.3
중국: 한족	38	23.6
중국: 조선족	52	32.3
기타	26	16.1
무응답	2	1.2

5. 학습과정 만족도

1)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중도입국청소년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40.4%가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우만족’ 한다는 의견도 12.4%로 나타났다. 이는 ‘불만족(1.2%)’ 또는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1.2%)’ 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표 4-48>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구분	표본수(명)	비율(%)
매우 불만족	2	1.2
불만족	2	1.2
보통	40	24.8
만족	65	40.4
매우만족	20	12.4
무응답	30	18.6

2) 교육 프로그램 수요조사

중도입국청소년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에서 향후 개설되거나 제공되기를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한국어 기초교육’ 에 대한 수요가 2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어 고급 심화과정’ 이 제공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17.4%에 달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컴퓨터, 미술 등의 특기적성 교육(17.4%)’, ‘직업·기술 교육(16.1%)’, ‘이중 언어 교육(14.3%)’, ‘한국 문화 이해 등의 문화소양 교육(11.2%)’, ‘학교 진학을 위한 주요과목 지도(9.9%)’, ‘학교 생활 준비(적응) 교육(8.7%)’, ‘인성심리교육(3.7%)’ 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49〉 개설되기 희망하는 교육 프로그램

* 중복응답

구분	표본수(명)	비율(%)
한국어 기초교육	35	21.7
한국어 고급 심화과정	28	17.4
학교 진학 위한 주요과목 지도	16	9.9
학교생활 준비(적응) 교육	14	8.7
이중 언어 교육	23	14.3
특기적성 교육(컴퓨터, 미술 등)	28	17.4
직업·기술 교육	26	16.1
문화소양 교육(한국문화 이해 등)	18	11.2
인성심리교육(상담 및 종교활동 등)	6	3.7
기타	10	6.2

6. 사교육 경험

1) 귀가 후 여가시간 활용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에서의 일과를 마치고 난 후에 개인적인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조사결과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는 답변이 24.8%로 가장 많았다. ‘집에서 TV 시청 혹은 혼자 있다(19.9%)’, ‘학습내용을 복습하거나 공부한다(11.2%)’, ‘PC방이나 오락실 이용(5.0%)’, ‘학원(3.1%)’, ‘다른 프로그램 참여(2.5%)’ 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50〉 귀가 후 여가시간의 활용

구분	표본수(명)	비율(%)
집에서 TV를 보거나 혼자 있음	32	19.9
배운 것을 복습(공부)	18	11.2
친구들과 어울림	40	24.8
PC방이나 오락실	8	5.0
학원	5	3.1
다른 프로그램 참여	4	2.5
기타	13	8.1
무응답	41	25.2

2) 학원등록 경험

현재 학원에 다니고 있거나, 현재는 학원에 다니지 않더라도 이전의 학원등록 경험이 있는 경우 주로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영어’ 과목이 16.8%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체육(11.8%)’, ‘악기(10.6%)’, ‘미술(6.8%)’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배우고 싶은 것이 없다’라는 의견도 16.8%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4-51> 사교육 경험

구분	표본수(명)	비율(%)
영어	27	16.8
체육	19	11.8
악기	17	10.6
미술	11	6.8
배우고 싶은 것이 없음	27	16.8
기타	32	19.9
무응답	28	17.3

3) 앞으로 배우고 싶은 것

앞으로 배우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결과 ‘컴퓨터’와 ‘체육’이 각각 14.3%로 나타나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학과공부(11.2%)’, ‘영어(10.6%)’, ‘악기(10.6%)’, ‘미술(4.3%)’의 순으로 나타났고, ‘배우고 싶은 것이 없다’라는 의견은 9.3%로 조사되었다.

<표 4-52> 향후 배우고 싶은 과목

구분	표본수(명)	비율(%)
학과공부	18	11.2
컴퓨터	23	14.3
영어	17	10.6
체육	23	14.3
악기	17	10.6
미술	7	4.3
배우고 싶은 것이 없다	15	9.3
기타	14	8.7
무응답	27	16.5

제5절 진로 및 진학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진로 및 진학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향후 한국 거주 여부, 진로에 대한 계획, 진로 선택 시 고민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인 조사결과와 주요발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향후 한국 거주 여부

조사대상자의 향후 국내 거주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에 계속 거주하고 싶다는 의견이 55.3%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33.5%를 차지했고, 한국에 계속 거주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0.6%를 나타냈다.

<표 4-53> 향후 국내 거주 여부

구분	표본수(명)	비율(%)
계속 거주함	89	55.3
계속 거주하지 않음	17	10.6
결정하지 않음	54	33.5
무응답	1	0.6

2. 진로

1) 향후진로

조사대상자들의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한 조사결과 한국의 상급학교로 진학 예정이라는 답변이 31.1%로 가장 많았고, 취업을 하고 싶다는 의견도 28.6%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취업과 학업을 병행(10.6%)’ 하거나 ‘다른 나라로의 유학계획(8.7%)’, ‘시간제 근로 및 아르바이트(8.7%)’, ‘검정고시 준비(3.1%)’의 순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계획이 없다’는 의견은 9.9%로 조사되었다.

〈표 4-54〉 향후 진로 계획

* 중복응답

구분	표본수(명)	비율(%)
한국에서 상급학교로 진학예정	50	31.1
다른 나라로의 유학계획	14	8.7
검정고시 준비	5	3.1
취업	46	28.6
취업과 학업을 병행	17	10.6
시간제 근로, 아르바이트	14	8.7
기타	5	3.1
앞으로의 계획 없음	16	9.9

2) 진로선택 시 고민해결 방식

진로선택이나 미래계획에 대한 고민을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응답자 대부분은 ‘부모님이나 가족 구성원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49.7%)’ 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2순위로는 ‘자신의 출신국가나 다른 나라에 사는 친구나 지인과의 소통과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 는 해결방식에 대해서는 28.0%의 응답자가 주로 사용하는 고민해결 방식으로 나타났다.

〈표 4-55〉 진로선택 및 미래설계에 대한 고민해결 방식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부모님이나 가족 구성원과의 대화	80(49.7)	13(8.1)
한국에 사는 친구나 주위사람들과의 소통/대화	31(19.3)	35(21.7)
출신국가 또는 다른 나라에 사는 친구, 지인과의 소통/대화	32(19.9)	45(28.0)
한국정부, 지원기관	2(1.2)	1(0.6)
한국 인터넷, 서적 등의 매체	4(2.5)	9(5.6)
출신국의 인터넷, 서적 등 매체	4(2.5)	15(9.3)
기타	7(4.3)	2(1.2)
무응답	1(0.6)	41(25.5)

3) 진로선택을 위해 필요한 도움

조사응답자를 대상으로 진로를 위해 현재 가장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결과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39.8%)’ 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는 ‘빠른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19.9%)’, ‘학교공부 관련(14.3%)’, ‘직업기술교육훈련(13.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56〉 진로선택을 위해 필요한 도움

구분	표본수(명)	비율(%)
직업기술교육훈련 관련	22	13.7
한국어 교육 관련	64	39.8
빠른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	32	19.9
학교공부 관련	23	14.3
기타	8	4.8
무응답	2	1.2

4) 직업교육훈련 분야 선호도

조사대상자들에게 직업교육훈련을 받게 된다면 어떤 분야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음식, 커피, 제빵, 한식, 중식, 양식 등’에 대한 교육수요가 26.1%로 가장 높았다. ‘컴퓨터 관련 교육(20.5%)’이 그 다음을 차지했으며, ‘미용관련(8.7%)’, ‘패션·봉재(8.1%)’, ‘호텔 및 관광(7.5%)’, ‘자동차 정비(4.3%)’, ‘건축관련(1.2%)’, ‘기계설비(1.2%)’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조경·화훼’ 분야와 ‘귀금속 공예’에 대한 교육훈련의 수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7〉 선호하는 직업교육의 분야

구분	표본수(명)	비율(%)
음식, 커피, 제빵, 한식, 중식, 양식 등	42	26.1
미용, 피부관리, 네일아트	14	8.7
컴퓨터 OA, 컴퓨터그래픽, 웹디자인, 일러스트	33	20.5
패션, 봉제	13	8.1
자동차 정비	7	4.3
건축시공, 도배, 미장	2	1.2
인테리어	1	0.6
조경, 화훼	0	0.0
기계설비	2	1.2
귀금속 공예	0	0.0
호텔 및 관광	12	7.5
기타	16	9.6
무응답	19	11.4

5) 가장 하고 싶은 일

향후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직접기입 방식으로 조사하였고,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하고 싶은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의견이 1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창업 및 개인사업(6.6%), 디자이너(5.4%), IT관련 종사자(4.2%), 통번역(3.6%), 요리사(3.1%), 여행 가이드(1.2%), 공무원(1.2%), 항공기장(0.6%), 환경공학자(0.6%) 등의 다양한 분야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58> 향후 하고 싶은 일

구분	표본수(명, %)	구분	표본수(명, %)
생각해본 적 없음	20(12.0)	공무원	2(1.2)
창업/개인사업	11(6.6)	삼화가	2(1.2)
디자이너	9(5.4)	경호원	1(0.6)
교사	9(5.4)	변호사	1(0.6)
IT관련 종사자	7(4.2)	항공기장	1(0.6)
통번역	6(3.6)	웨이터	1(0.6)
일반 회사원	6(3.6)	촬영사	1(0.6)
엔지니어	6(3.6)	타투이스트(문신사)	1(0.6)
요리사	5(3.1)	환경공학자	1(0.6)
여행 가이드	2(1.2)	작곡가	1(0.6)
스튜어디스	2(1.2)	가수	1(0.6)
의사	2(1.2)	비서	1(0.6)
금융업	2(1.2)	기자	1(0.6)

6) 진로에 대한 인식

조사응답자들의 진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직업선택에 있어 방향성이나 소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조사응답자의 36.6%가 ‘장래에 꼭 하고 싶은 직업분야가 있다’ 고 답변하였고, 34.2%는 ‘대학에서 전공하고 싶은 구체적인 분야가 있다’ 고 응답하였다. 또한 ‘자신의 인생을 사는데 있어서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31.1%)’ 의 의견이 ‘그렇지 않다(21.1%)’ 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직업선택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직업은 소신대로 결정해야 한다’ 는 의견이 49.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선호하는 직업분야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다(40.4%)’ 고 답변하였다.

셋째, 진로와 직업선택에 있어서 한국사회의 환경에 대한 인식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사회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얻기가 힘들다’ 라는 문항에서는 ‘그렇다(28.6%)’ 라는 인식보다 ‘보통정도(46.6%)’ 이거나 ‘그렇지 않다(15.5%)’ 라는 인식의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은 장래희망을 실현하기 좋은 환경’ 이라

는 문항에서는 ‘그렇다(36.0%)’ 라고 응답한 비중이 ‘그렇지 않다(4.3%)’ 는 답변보다 많은 편이었다.

<표 4-59> 진로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장래에 꼭 하고 싶은 직업 분야가 있음	4(2.5)	33(20.5)	55(34.2)	59(36.6)	10(6.2)
대학에서 전공하고 싶은 구체적 분야가 있음	10(6.2)	35(21.7)	51(31.7)	55(34.2)	10(6.2)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있음	1(0.6)	34(21.1)	70(43.5)	50(31.1)	6(3.7)
직업은 소신대로 결정해야 함	3(1.9)	9(5.6)	58(36.0)	79(49.1)	12(7.5)
선호하는 직업분야에 대한 이유가 분명함	2(1.2)	18(11.2)	63(39.1)	65(40.4)	12(7.5)
한국에서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기가 힘들	6(3.7)	25(15.5)	75(46.6)	46(28.6)	8(5.0)
한국은 장래희망을 실현하기에 좋은 환경	2(1.2)	7(4.3)	84(52.2)	58(36.0)	10(6.2)

제6절 사회적 인식

본 절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조사는 조사대상자들이 갖고 있는 다문화 인식 수준, 문화적·인종 등의 차이로 인한 차별경험과 대응방식, 현재의 고민, 향후 이주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사회적 인식 영역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 인식

조사대상자의 다문화 인식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과 단짝이 될 의향이 있는가’ 에 대한 질문에서 57.1%가 ‘그렇다’ 고 답변했다. 이는 ‘그렇지 않다(3.7%)’ 라는 응답 비율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 청소년과 단짝이 될 의향이 있다’ 라는 물음에서 60.2%가 ‘그렇다’ 고 답했으며, ‘그렇지 않다’ 는 의견은 1.9%였다. 이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이 또래집단의 한국인들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자신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성친구로 사귄 수 있는가’ 에 대한 물음에서 49.7%는 ‘그렇다’ , 14.3%는 ‘매우 그렇다’ 고 답변했다. 이는 ‘그렇지 않다(28.6%)’ , ‘매우 그렇지 않다(6.8%)’ 의 답변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인 이성친구를 사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48.4%가 ‘그렇다’라고 답변했으며, 이는 ‘그렇지 않다(6.2%)’라는 응답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60> 다문화 인식

(단위 : 명,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과 단짝이 될 의향이 있음	0(0.0)	6(3.7)	36(22.4)	92(57.1)	26(16.1)
한국 청소년과 단짝이 될 의향이 있음	3(1.9)	3(1.9)	35(21.7)	97(60.2)	22(13.7)
문화적 배경이 다른 출신국 사람을 이성친구로 사귄 수 있음	11(6.8)	46(28.6)	1(0.6)	80(49.7)	23(14.3)
한국 사람을 이성친구로 사귄 수 있음	1(0.6)	10(6.2)	27(29.2)	78(48.4)	24(14.9)

2. 차별경험

1) 차별빈도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중도입국청소년들 중 7.5%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외국에서 이주해 왔다는 이유로 한국사회에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1.9%는 문화차이, 언어장벽, 외모의 차이 등의 이유로 비교적 잦은 차별을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의 72.0%는 한국에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1> 차별경험

구분	표본수(명)	비율(%)
전혀 없음	116	72.0
약간 있음	25	15.5
가끔 있음	12	7.5
자주 있음	3	1.9
무응답	5	1.5

2) 차별 시 대응방식

문화적 차이나 언어의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피부색이나 신체적 특성이 다름

에서 오는 차이로 인해 차별을 받았을 경우 어떠한 대응방식을 보였는가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들은 차별 시 대응방식에 대한 1순위 조사결과 ‘그냥 참는다(14.9%)’는 답변 비율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즉, 차별의 상황에서 가장 수동적이고 회피하는 형태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친구나 선생님, 지인 등 주변에 알린다는 의견이 1순위(7.5%)와 2순위(8.1%) 모두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셋째,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차별을 직접 알린다는 의견 역시 1순위(6.8%)와 2순위(6.8%) 모두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2> 차별에 대한 대응방식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그냥 참는다	24(14.9)	4(2.5)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알린다	11(6.8)	11(6.8)
친구나 선생님, 지인 등 주변에 알린다	12(7.5)	13(8.1)
정부나 관련기관에 민원처리를 한다	0(0.0)	3(1.9)
SNS 등 인터넷에 올린다	1(0.6)	1(0.6)
차별을 한 당사자에게 따진다	5(3.1)	4(2.5)
기타	2(1.2)	2(1.2)

3. 현재고민

조사대상자인 중도입국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개인적 고민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큰 고민은 ‘진로문제’로 조사되었다. 이는 1순위(34.8%)와 2순위(23.0%) 모두에서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다음으로는 채무나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돈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문제에 대한 고민은 1순위(25.5%)와 2순위(11.8%)에서 높은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다.

셋째, 이 외에 본 연구의 조사응답자들은 ‘학교성적’과 ‘외로움’ 등에 대한 고민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3〉 고민의 우선순위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돈문제	41(25.5)	19(11.8)
진로문제	56(34.8)	27(23.0)
건강문제	4(2.5)	9(5.6)
가족 간 불화	5(3.1)	2(1.2)
이성문제	1(0.6)	12(7.5)
인간관계	3(1.9)	11(6.8)
외로움	12(7.5)	10(6.2)
학교성적	16(9.9)	13(8.1)
기타	23(13.8)	6(3.6)

4. 이주계획

1) 정착 및 이주계획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중도입국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까운 미래에 한국을 벗어나 출신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출신국이나 제3국으로 떠나지 않고 한국에서 계속해서 거주하고 싶다는 의견이 36.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출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28.6%)’, ‘제3국에서 살고 싶다(7.5%)’로 나타났다.

〈표 4-64〉 정착 및 이주계획

구분	표본수(명)	비율(%)
한국에 살고 싶다	59	36.6
출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46	28.6
제3국에서 살고 싶다	12	7.5
모르겠다	39	24.2
무응답	5	3.1

2) 한국을 벗어나 살고 싶은 주요 이유

한국을 벗어나 출신국이나 제3국에서 살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순위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내 꿈을 실현하기에 더 좋은 환경을 찾기 위해’에 대한 답변비율이 전체의 9.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외로움(7.5%)’, ‘한국어의 어려움으로 인한 소통문제(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2순위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외로움’ 과 ‘내 꿈을 실현하기에 더 좋은 환경을 찾기 위해’ 한국을 벗어나고 싶다는 의견이 각각 전체의 4.3%로 가장 많았고, ‘한국어의 어려움으로 인한 소통문제(3.1%)’ 는 1순위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을 벗어나고 싶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셋째, 한국을 벗어나 출신국이나 제3국에서 살고 싶은 기타 이유에 대해서는 ‘모국이 그림거나 혼자 살고 싶다’, ‘(이주를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익히고 싶어서’, ‘가족이 그림기 때문’ 등으로 조사되었다.

<표 4-65> 한국을 벗어나고 싶은 주요 이유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한국 사람들에게서 받는 차별	6(3.7)	5(3.1)
한국의 법적, 제도적 제재	6(3.7)	4(2.5)
한국어의 어려움으로 인한 소통문제	10(6.2)	5(3.1)
한국문화 적응의 어려움	9(5.6)	4(2.5)
구직 등의 경제적인 어려움	2(1.2)	5(3.1)
외로움	12(7.5)	7(4.3)
내 꿈을 실현하기에 더 좋은 환경을 찾기 위해	15(9.3)	7(4.3)
기타	10(6.0)	2(1.2)
무응답	91(54.6)	120(74.5)

제7절 지원

본 절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기관에 대한 인식도와 이용경험에 대한 것과 이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타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인 조사결과와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원기관 이용경험

1)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

한국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64.0%가 별도의 도움을 청할 곳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응답자 중 도움을 청할 곳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6.0%으로 조사되었다.

그렇다면, 주로 어떤 기관에서 주로 도움을 받는지에 대해서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14.3%)’ 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경찰서(8.1%)’, ‘영사관(1.2%)’, ‘부모님 또는 친구(0.6)’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66> 도움을 청할 곳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단위 : 명, %)

구분	있다	없다
도움을 청할 곳	58(36.0)	103(64.0)

2) 지원기관 인식도

수원시 내에 운영 중인 8개의 지원기관에 대해 알고 있거나, 실제 개인적인 도움을 청하기 위해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인 약 70.0%는 관련 지원기관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의 인식도는 38.5%로 나타나 다른 지원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약 80.0% 이상은 지원기관을 이용해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간에서 운영 중인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의 이용경험 비율은 29.2%로

나타나 본 기관의 인식도와 이용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67> 지원기관 인식도 및 이용경험

(단위 : 명, %)

구분	인식도		이용경험	
	안다	모른다	있음	없음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9(5.6)	147(91.3)	2(1.2)	147(91.3)
수원시사문화가족지원센터	15(9.0)	143(88.8)	4(2.5)	146(90.7)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62(38.5)	95(59.0)	47(29.2)	104(64.6)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19(11.8)	138(85.7)	2(1.2)	148(91.7)
수원고용·복지센터	7(4.3)	151(93.8)	11(6.8)	150(93.2)
수원이주민센터	22(13.7)	135(83.9)	12(7.5)	139(86.3)
수원다누리콜센터	5(3.1)	152(94.9)	1(0.6)	149(92.5)
동주민센터	26(16.1)	132(82.0)	13(8.1)	138(85.7)

3) 지원기관 이용

<표 4-67>에 제시된 8개의 지원기관에 대해 한 번이라도 도움을 청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67.1%가 ‘없다’ 고 응답하였다. 도움을 청한 경험이 ‘있다’ 라는 비율은 32.9%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68> 지원기관에 도움을 청한 경험

(단위 : 명, %)

구분	있다	없다
도움을 청한 경험	53(32.9)	108(67.1)

그렇다면, 지원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결과 ‘그런 기관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해서(37.9%)’ 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아직까지는 도움을 청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18.0%)’, ‘기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도움을 청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9.3%)’, ‘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들을 줄 수 있는지 알지 못해서(4.3%)’ 라는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69〉 지원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

구분	표본수(명)	비율(%)
그런 기관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	61	37.9
기관을 알았지만 어떤 도움을 청하는 것인지 방법을 몰라서	15	9.3
그런 기관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몰라서	7	4.3
도움을 청할 필요를 못 느낌	29	18.0
무응답	114	70.8

4) 지원기관 만족도

수원시 내에 운영 중인 8개의 지원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해당 기관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한국에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지원기관에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만족수준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24.2%가 ‘매우만족’ 한다고 답변했다. ‘어느 정도 만족’ 하고 있다는 답변 비율도 9.3%로 나타났으며,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자는 없었다.

〈표 4-70〉 도움을 청한 경우 지원기관 이용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표본수(명)	비율(%)
전혀 만족스럽지 않음	0	0.0
별로 만족스럽지 않음	0	0.0
어느 정도 만족	15	9.3
매우 만족	39	24.2
무응답	107	66.5

5) 지원기관 형태의 선호도

자신에게 알맞은 다문화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 어떤 형태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 접근가능성이나 선호도 면에서 만족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35.4%는 ‘어떤 형태의 기관이든 상관없다’ 고 답변해 특정 형태의 기관에 대한

선호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다문화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32.3%)’, ‘학교(24.2%)’, ‘청소년 관련 기관(5.6%)’, ‘교하나 성당 등의 종교기관(0.6%)’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71〉 지원기관의 선호도

구분	표본수(명)	비율(%)
학교	39	24.2
청소년 관련 기관	9	5.6
다문화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	52	32.3
종교기관(교회, 성당, 절 등)	1	0.6
어떤 기관이든 상관없음	57	35.4
기타	0	0.0

2.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

한국생활의 빠른 적응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고, 희망하는 지원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에 대한 1순위 선호도 조사결과 ‘수준별 한국어 교육(38.5%)’, ‘직업기술훈련(14.3%)’, ‘학교수업 및 주요과목 지도(11.2%)’, ‘학비 지원(8.7%)’, ‘진로 및 적성지도(7.5%)’, ‘필요한 것이 없음(6.2%)’, ‘한국사회 및 문화적응 지원(3.7%)’, ‘일대일 멘토링(3.1%)’, ‘문화/취미 활동지원(2.5%)’, ‘질병에 대한 치료비 지원(1.2%)’, ‘고민상담(1.2%)’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에 대한 2순위 선호도 조사결과 ‘직업기술 훈련’에 대한 응답비율이 1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한국사회 및 문화적응 지원(14.3%)’, ‘학교수업 및 주요과목지도(9.3%)’, ‘수준별 한국어 교육(8.7%)’, ‘진로 및 적성지도(8.7%)’ 등으로 조사되었다.

〈표 4-72〉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지원 사항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학비지원	14(8.7)	11(6.8)
학교수업 및 주요과목 지도	18(11.2)	15(9.3)
수준별 한국어 교육	62(38.5)	14(8.7)
아플 때 치료비 지원	2(1.2)	8(5.0)
고민상담	2(1.2)	4(2.5)
문화(취미) 활동 지원	4(2.5)	11(6.8)
직업기술훈련	23(14.3)	24(14.9)
일대일 멘토링	5(3.1)	10(6.2)
진로 및 적성지도	12(7.5)	14(8.7)
한국사회 및 문화적응 지원	6(3.7)	23(14.3)
필요한 것 없음	10(6.2)	5(3.1)
기타	2(1.2)	1(0.6)

3. 한국사회에 바라는 점

조사대상자인 중도입국청소년들에게 한국사회에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유 응답식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조사결과 다문화 인식의 확산, 경제적 문제의 해결, 중국과의 외교관계 회복, 이주자 정착을 위한 지원제도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차별과 편견 없는 다문화 인식의 확산

출신국적과 피부색, 언어의 다름으로 인한 차별과 편견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한국 정부에서 다문화 지원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차별과 편견 인식에 대한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다른 인종과 문화권의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 없이 잘 수용했으면 좋겠다.
 -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이 보다 다양하게 집행되었으면 좋겠다.
 - 외국인들에 대한 태도가 좀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
 - 중국인들에 대한 차별이 없길 바란다. 중국인들은 유린당하는 존재가 아닌 부상하는 사자와 같은 존재이다.
-

2)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

한국의 높은 물가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였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 정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의 경제적 문제에 대한 고민과 바람에 대한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물가가 내렸으면 좋겠고, (임금수준이 낮은) 외국인들을 우대해 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하고, 한국인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현재 보다 임금수준(월급)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
 - 물가가 안정되었으면 좋겠다.
-

3) 중국과의 외교관계 회복

최근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사드(THAAD)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 갈등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관계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등이 있었다. 이밖에 중국에서 한국 입국 시 비자발급 절차가 완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구체적인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사드문제로 인한 중국과의 국제관계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
 -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다시 이전처럼 해결해야 한다.
 - 한국인들이 중국을 가려고 할 때 비자를 발급 받지 않아도 되었으면 좋겠고, 중국인들의 한국 입국 절차가 완화되었으면 좋겠다.
 - 조선족들이 한국에 귀화할 수 있게 많은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

4) 이주자 지원제도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

이주자와 한국인들과의 상호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보다 다양화 되어야 한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지원 기관에서 한국어 언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요구하였고, 진로나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자료나, 멘토링 등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자를 위한 제도 및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 교육과정(외국인 학교 등)이 현재 보다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 한국 학교에서 이중언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개설되었으면 좋겠다.
 - 직업과 전공 관련한 프로그램이나 자료가 다양해져야 한다.
 - 질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경우 치료비를 지원해주길 바란다.
-

5) 기타의견

기타 의견으로는 ‘개인적으로 한국문화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인들과 보다 친하게 지내고 싶다’, ‘외국인에 대한 장학금 지원 제도가 더 많아졌으면 한다’ 등의 현재 생활과 밀접한 요구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5장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분석 결과

제1절 조사개요

1. 배경 및 목적

중도입국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책적 지원이 부족함은 물론이고 정확한 현황 파악마저 부족한 실정이다. 앞서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중도입국청소년의 생활실태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장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의 보호자인 부모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생활 적응실태와 향후 진로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다. 즉, 양적연구방법인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되지 않는 세부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인 심층면접을 추가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접근을 하고자 한다.

2.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방법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였고, 조사대상자 선정은 동질적이지만 서로 간에 낯선 사람들(동질적 이방인)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중도입국청소년의 보호자인 부모 집단(5명)과 전문가·실무자 집단(5명)의 두 집단으로 조사대상을 구분하였고, 조사기간은 각 집단별로 2017년 7월 25일과 8월 8일의 양일간 진행하였다. 각 집단에 대한 심층면접 및 의견조사는 2시간 내외로 진행하였다.

FGI 진행에 앞서 면접자는 피면접 집단에게 면담의 목적과 취지, 익명성과 결과활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진행하였으며,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돕기 위해 외국인 신분에서 오는 한국사회 적응의 어려움, 사회적 배제로 인한 일탈 가능성, 경제적 빈곤 문제와 같은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하였다.

3.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앞서 제4장의 설문조사 문항구성에 있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의 이론적 검토를 통해 주요 분석 영역과 변수를 선정하여 문항을 개발하였음을 설명한 바 있다. FGI 역시 이러한 주요 분석 영역을 토대로 하여 구조화된 질문의 형식을 마련하였는데, 부모 집단과 전문가·실무자 집단의 구조화된 면접내용에 대한 것은 아래 <표 5-1>에 제시하였다.

<표 5-1> FGI 집단 구분 및 조사내용

집단구분	주요내용	
부모 집단	가정생활	자녀의 이주배경 가족구성원의 수 자녀 정체성 가족간의 소통정도, 소통언어
	한국 정착에서의 어려움	사회적응의 어려움과 극복방법 이주과정의 어려움 체류신분 상의 어려움
전문가 집단	현 기관에 있는 중도입국청소년 현황	중도입국청소년의 특징 프로그램 참여동기 중도입국청소년의 생활 적응, 부적응 요인 정착과정에서의 주요특징
	이주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이주과정에서의 어려움 한국으로 이주하는데 영향을 준 사람 한국 입국 전 준비과정, 마음가짐
	한국 체류과정의 어려움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 체류신분 상의 어려움 가족생활 면의 어려움 학업수행의 어려움 진로설정의 어려움 입국 후 만족, 불만족 사항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인 프로그램의 참가인원 프로그램 참여 동기 현재 운영 중인 지원제도
공통	학교생활	학교에서의 차별 학업중단 이유 학교 공부의 어려움과 사교육 경험 학교폭력 피해 및 대응방법 희망 교육 수준 및 모국 유학 의사
	진로 및 진학 계획	진로 계획 직업교육 계획
	정책지원	필요한 정책 지원 방향 단기·중장기 정책의 마련 사회에 대한 인식
	기타의견	기타의견

제2절 부모 집단 의견조사

1. 가정생활

본국의 자녀와 한국에 함께 생활한 기간에 대해서는 함께 들어오거나, 최소 1년에서 최대 7년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 심양, 청도, 길림 등에서 이주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

다. 부모와의 소통정도에 대해서는 자녀가 한국어로 의사소통 하는 것이 어려워 주로 중국어로 소통하였고, 자녀들은 또래집단과의 어울림 없이 주로 집에만 머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진로 및 진학 계획

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을 돕는데 있어 주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진학 전에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이를 기한 내에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에 대한 시간적·금전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학교 입학 을 위해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 출입국사실증명서는 발급받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고, 발급비용(15만원)이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학교 입학 전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서류의 경우 발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학교 입학이 확정된 이후에도 제출할 수 있는 등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3. 한국 정착의 어려움

자녀의 한국 정착 어려움에 대해서는 주로 체류신분 측면에서의 불편함과 의료보험 혜택의 미지원으로 인한 불안감 등에 대한 것들이 주요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첫째, 체류신분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규정상 미성년 자녀는 부모와 동일한 조건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비자의 종류에 따라 일정기간(3개월 또는 3년)마다 한 번씩 본국에 다녀와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금전적 지출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한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두 번째로, 의료서비스 혜택과 관련해서는 영주권자를 제외하고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질병이나 상해 시 의료기관 방문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정책지원

중도입국 자녀가 한국에 체류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지원 및 요청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한국문화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사항과 자녀의 경제적 활동을 위한 정책마련에 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첫째,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녀들은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요리, 바리스타, 향수공방 등에서 다양한 실무 기술을 배우고 있는데, 이는 단기의 교육에 그칠 뿐 자격증

취득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있었다. 혹은 개인적인 의지나 노력을 통해 자격증 시험을 보려 하더라도 한국어로 된 시험문제를 이해하는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문제가 한국어가 아닌 중국어, 영어 등으로 출제함으로써 자격증 취득에 있어 한국인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논의되었다.

둘째, 성인이 된 자녀가 국내에서 아르바이트 등의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 부모와 동일한 체류자격(비자)이 주어지는데, 만약 자녀가 성장하여 성인이 되면 C-8(단기방문) 비자 발급자격이 변경된다. C-8 비자의 경우 단기방문을 목적으로 한 체류자격이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중국에 다녀와야 하고, 취업활동 역시 불가능하다. 중도입국 자녀의 부모들은 자녀의 원활한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서 아르바이트 등을 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단기방문 체류자격의 경우 취업활동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한국 친구를 사귀거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정책적 지원마련과 관련된 기타의견으로는 주민센터나 시립도서관 등과 같이 비교적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곳에서 한국 적응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 등이 있었다.

제3절 전문가 집단 의견조사

1. 중도입국청소년 현황

중도입국청소년과 부모의 출신국적은 대부분이 중국인(조선족)이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FGI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체류자격, 가정환경, 주요특징의 측면에서 논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도입국청소년은 대부분 동반비자나 초청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한국에서 정규교육을 받는 도중에 계속해서 중국에 다녀와야 하는 불필요함이 발생한다. 유학비자나 F-4(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일정기간에 한 번씩 본국에 다녀와야 하는 수고로움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중도입국청소년들은 대부분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다양한 이유에서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지방으로 일을 하러 가게 되면 단기적으로 홀로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부모의 재혼으로 인해 보호자 없이 혼자 사는 이주 청소년들의 수가 증가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주 청소년들의 방치나 단독가구 형태의 사례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중도입국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보다 세부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일반적으로 중도입국청소년의 기본적인 특징은 이주배경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공통된 특성을 이주배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제적 빈곤정도에 따라 일찍부터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재혼가정에서의 입양 여부 등에 따라 세부적인 특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과 환경에 맞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이 논의되었다.

2. 이주과정 및 체류과정의 어려움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이주과정과 체류과정 등에서 겪는 어려움은 제도적 관리시스템의 미비, 진로설정의 어려움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한 전문가 집단 의견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도입국청소년들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의 부족으로 인한 적용의 어려움이다. 현재 수원시에 거주 중인 중도입국청소년들에 대한 통합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법무부에서는 거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출입국관리소는 입출국과 관련된 범주에 한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주청소년들의 개인적 고민이나 도움에 대한 요청은 주로 민간기관에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통합관리 지원 기관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 정보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발견되었다. 이주 청소년들은 국내에 입국 이후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대안학교에 진학하거나 검정고시를 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도입국청소년들 스스로는 진로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어 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이마저도 쉽지 않다. 일부 자격증(미용, 제과제빵 등)의 경우 중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지만 부모로부터의 경제적인 지원이 미흡하고, 실기시험에 대한 지원을 받기 어려워 이에 대한 합격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정책지원

중도입국청소년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있어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지원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차원에서의 중도입국청소년 및 이들의 가정에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정보의 접근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는 한국 입국 및 생활과 관련된 공식적인 전달매체가 따로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을 습득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시는 이러한 요구사항에 맞춰 ‘주민생활서비스 가이드북’을 4개 국어로 발행하였으나, 배포되는 구역이나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국 국적의 다문화 가정 아동만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통해 이들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중도입국청소년 및 대상가정을 중심으로 하여 사례관리를 통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마지막, 전문가들은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심리 및 정서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은 문화적 배경의 차이와 사춘기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인해 정서적 혼란이나, 외로움 등의 정서·심리적 문제가 가중된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문제이기는 하나,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정서적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심리치료 등을 병행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일탈행동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제6장 결론

제1절 조사결과 요약

1. 설문조사 결과

본 연구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생활실태와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계량지표를 통해 중도입국청소년들에 대한 다문화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며, 학문적 연구 활동을 하는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중도입국청소년의 가정환경, 심리·사회적응, 학교경험, 진로 및 진학, 사회적 인식, 지원 등 6가지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정환경

조사응답자들의 가정환경 조사에는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의 현황, 부모의 특성, 소득수준, 가족관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중도입국청소년의 가정환경에 대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의 수는 3~5인 미만이 5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친어머니(14.3%), 친아버지(10.6%), 양아버지(7.5%), 친할머니(6.2%) 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와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단독 청소년 가구의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조사에서 혼자생활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0.6%의 그쳤다.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조사결과 아버지와 어머니는 중국 조선족 출신의 40대로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고 일용직이나 식당 등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머니의 경우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경우가 2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대한 조사에서는 스스로를 중간정도에 해당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4%였고, 어려운 편이라는 비율은 7.5%에 그쳤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이주가정의 경우 대부분 소득수준이 낮다는 결과와 반대되고 있다. 본 연구 응답자의 출신국적은 중국이 55.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에서의 임금수준과 비교하여 현재 소득을 높게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한국 가정과의 소득(임금)수준을 비교한다면 실제 소득에 대한 인지는 본 결과보다 늦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가족들과 의사소통 시 주로 모국어를 사용한다는 답변이 28.0%로 가장 많았다. 가족들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거나 갈등이 크지 않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2) 심리·사회적응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심리상태와 사회적응 수준에 대한 조사는 도움을 구할 곳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 가족 및 교우관계, 자아인식수준, 심리적 스트레스 정도, 한국문화 적응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의논할 상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73.9%가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주로 친구(50.4%)와 의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 52.2%가 ‘사는 게 즐겁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49.1%는 스스로의 삶이 행복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가족 및 친구관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대부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부정적으로 인식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자아인식 조사결과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고(46.0%) 있었으며, 스스로 실패한 존재로 느낀다는 문항에서는 41.6%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는 조사응답자들은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더불어 조사응답자들의 심리적 스트레스는 보통수준이거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사는 것이나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모국 문화에 대한 주변의 농담에 대해서는 46.0%가 다소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응답하였다.

한국문화와 한국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한국어를 사용한 의사소통의 빈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학교경험

설문대상자들의 학교경험에 대한 조사에서는 정규 교육기관의 진학시기, 재학 중인 학교의 형태, 친구관계, 학습에 대한 만족도, 사교육 경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경험에 대한 조사내용 및 주요발견은 다음과 같다.

조사결과 한국에서 첫 정규교육(학교 진학)을 받기 시작한 연령대는 16~20세 미만(10대 후반)이 19.9%로 가장 많았다. 선행연구와 전문가 조사결과(FGI)에 따르면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의 중도입국청소년들은 낮은 수준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정보부족으로

한국학교에 진학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진학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실제 조사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6.8%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중도에 그만두거나 학업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학업포기 경험이 없는 학생집단에 비해 진학 목표에 대한 정도가 낮았고, 상대적으로 친구의 수도 더 적었다.

세부 문항의 응답결과 무응답 비율이 최저 16.5%에서 최대 68.9%로 나타났는데, 이는 응답자의 다수가 한국 공교육에 진입하지 못했거나, 중도에 이탈한 경험을 갖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학교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은 정규 교육기관의 진학시기, 현재 재학학년, 학교 친구들과 생활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 등에 대한 조사문항에 답하지 못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첫 정규교육(학교 진학)을 받기 시작한 연령대는 16~20세 미만이 19.9%로 가장 많았다. 선행연구에서와 전문가들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경우 한국 체류기간 중에 공교육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 역시 전체 응답자의 6.8%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중도에 그만두거나 학업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은 한국에 입국하는 청소년들의 연령대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이기 때문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학업포기 경험이 없는 학생집단에 비해 진학 목표에 대한 정도가 낮았고, 상대적으로 친구의 수도 더 적었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외국인학교나 대안학교 등이 아닌 한국학생들과 함께 일반학교에 다니는 비율이 23.6%로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14.9%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고, 중학생(10.5%), 대학생(6.6%), 대학원생(2.4%), 초등학생(0.6%)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사교육 경험과 관련해서는 16.8%가 영어과목과 관련한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체육(11.8%), 악기(10.6%), 미술(6.8%)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앞으로 배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컴퓨터와 체육이 각각 14.3%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4) 진로 및 진학

설문 대상자들의 진로 및 진학에 대한 조사는 향후 한국 거주 여부, 진로, 하고 싶은 일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설문에 응한 중도입국청소년들은 한국을 떠나지 않고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견이 55.4%

로 조사되었고,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의견은 10.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의 상급학교로 진학예정이라는 답변이 31.1%로 가장 많았고, 진로에 대해서는 주로 부모님이나 가족구성원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49.7%)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신의 진로를 위해 현재 가장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39.8%)’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크고 ‘빠른 취업을 위한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19.9%)’, ‘학교 공부에 대한 도움(14.3%)’, ‘직업기술을 위한 교육훈련(1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진로선택에 있어 필요로 하는 직업교육훈련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26.1%가 제과제빵, 한식, 중식, 양식 등의 요식업 관련 분야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컴퓨터 관련 교육훈련을 받길 원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에서의 전문가 의견조사(FGI)에 따르면 제과제빵 자격증은 중국어로 자격증 시험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고, 컴퓨터 분야 자격증은 가장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기에 때문에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응시율이 높은 것으로 보였다.

진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방향성과 소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가장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12.0%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답변해 다소 상충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선행연구와 전문가 집단 의견조사(FGI)에 따르면 이주 청소년들이 초·중학교 재학 연령까지는 통번역, 교사, 공무원 등의 직업을 갖기를 원하지만, 고등학교 진학 연령 이후부터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함에 따라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 적성, 전공분야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낮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으로 인해서 하고 싶은 일(분야)에 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5) 사회적 인식

사회적 인식에 대한 조사는 조사대상자들이 갖고 있는 다문화 인식 수준, 문화와 인종의 차이로 인한 차별 경험과 대응방식은 어떠했는지, 향후 이주계획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 인식 영역에 대한 조사결과와 주요발견은 다음과 같다.

문화적 배경이 다른 친구나 한국인과 친구가 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과반수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이성친구를 사귄 때도 서로 다른 문화나 국적의 차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입국 후 차별경험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인원의 7.5%가 외국에서 이주해 왔다는 이

유로 차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1.9%는 문화차이, 언어의 장벽, 외모 등의 차이로 인해 비교적 잦은 차별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별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는 ‘그냥 참는다(14.9%)’ 고 하였는데, 차별의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수동적이거나 회피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진로문제’ 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는 낮은 소득이나 채무, 빈곤으로 인한 ‘돈문제’ 로 나타났다. 이 외에 ‘학교성적’ 과 ‘외로움’ 에 대한 고민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한국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거주하고 싶다는 의견이 36.6%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국으로 돌아가고 싶거나(28.6%), 제3국에서 살고 싶다(7.5%)는 비율보다 높은 것이다. 한국을 벗어나 출신국이나 제3국에서 살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에서는 ‘한국어의 어려움으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 와 ‘외로움’ , ‘한국문화의 부적응’ 등의 이유를 들었다.

6) 지원

중도입국청소년들을 위한 지원기관에 대한 인식도와 이용경험에 대해 조사하였고,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내용 및 기타 바라는 점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인 조사결과와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64.0%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외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6.0%는 도움을 청할 곳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이들은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나 ‘경찰서’ , ‘영사관’ 등의 기관에서 도움을 청한다고 했으며, 개인적으로는 ‘부모님과 친구’ 등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답변하였다.

수원시 내에 운영 중인 8개의 지원기관(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원시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수원고용복지센터, 수원이주민센터, 수원다누리콜센터, 동주민센터 등)에 대한 인식수준과 이용경험에 대한 조사결과 70.0%는 관련 기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80.0%는 해당 기관을 이용해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해당기관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한 번이라도 이용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이용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24.4%는 ‘매우 만족’ 한다고 답변했으며, ‘어느 정도 만족’ 하고 있다는 비율도 9.3%로 나타났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자는 없었다.

기관형태의 접근성이나 선호도 면에 대한 조사결과 ‘어떤 형태의 기관이든 상관없다’

는 의견이 35.4%로 가장 많았고, ‘다문화 청소년 관련기관(32.3%)’, ‘학교(24.2%)’, ‘청소년 관련 기관(5.6%)’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생활의 적응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결과 수준별 한국어 교육(38.5%), 직업기술훈련(7.5%), 학비지원(8.7%), 진로 및 적성지도(7.5%)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인 중도입국청소년들에게 한국사회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유응답식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차별과 편견 없는 다문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하고, 경제적 문제(임금개선, 빈곤 등)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최근 사드(THAAD)문제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주자와 한국인들과의 상호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화 되어야 한다는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질적조사 결과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생활 적응 실태와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들의 보호자인 부모와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양적연구방법인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되지 않는 세부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질적연구방법 형태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추가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접근을 하였다. 부모 집단과 전문가 집단에 대한 조사결과와 주요발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모 집단 의견조사

부모 집단의 의견조사에서는 한국사회 정착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자녀의 한국 정착 어려움에 대해서는 주로 체류신분 측면에서 불편함을 언급하였는데, 규정상 미성년 자녀는 부모와 동일한 조건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일정기간 내에 한 번씩 본국에 다녀와야 하므로 학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금전적 지출이 부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입국 자녀가 한국에 체류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및 요청사항으로는 한국문화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나타났다. 중도입국청소년들에게는 언어라는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로 진입하면서 소통상 언어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중도입국청소년들의 강점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도입국 자녀들을 위한 정책적 제도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2) 전문가 집단 의견조사

전문가 집단 의견조사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이주과정 및 체류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점과 이에 따른 정책지원에 대한 내용이 논의되었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은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정보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앞서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중도입국청소년의 기본적 특성은 이주배경에 있다. 하지만 이들의 경제적 빈곤정도에 따라 청소년기부터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부모의 재혼으로 인한 입양문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전문가 집단 의견조사에서는 이러한 중도입국청소년들의 특수성과 환경에 맞는 지원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책적 지원 및 제도의 마련에 대해서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통합관리기관을 마련하여 개별적 사례관리의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현재는 한국 국적의 다문화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만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대부분이 중국(73.3%) 또는 기타(17.4%)의 국적자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밖에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정서적 혼란이나 외로움 등에 대한 심리·정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들의 스트레스를 관리함으로써 사회적 일탈행동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사회, 문화, 이주자 정책적 시각에서 다양성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Melting Pot(용광로) 접근방식으로 이는 개념적으로 문화적 동화(Cultural Assimilation)와 문화적응(Acculturation) 의미 등을 내포한다. 멜팅팟 시각에서 이민자들은 대개 이민온 사회의 생활방식을 흡수하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민자들은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문화와 제도에 완전히 통합된다는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두 번째 시각은 Salad Bowls(샐러드볼) 접근방식으로 다양한 소수집단의 문화 정체성을 하나의 지배적 문화

에 동화시키고자 하는 방식이 아니라, 샐러드에 담겨져 나오는 모든 내용물들이 각각의 맛과 향, 그리고 그 의미와 가치들을 인정받는 것처럼 중심문화 외의 주변문화의 가치관과 각 소수집단의 문화, 제도, 생활 태도 등을 인정하고 개방적인 시각에서 그 의미들을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유민봉 외, 2014).

이러한 논의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수원시는 2017년 2월 ‘다문화정책대상’에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며 다문화 정책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사회통합과 다문화에 대한 포용성 증진의 시각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시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적극적인 다문화 정책을 시행 중인 수원시의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 파악하였다.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및 발전방향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문제점

본 연구의 조사결과 매년 중도입국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지원방식과 방향에 있어 기본적인 체계만 갖추었을 뿐 실제 운영과 활용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초기 정착 및 적응의 어려움

입국 전·후로 정보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안정적인 정착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사전 준비 없이 부모를 따라 입국한 경우 초기 정착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국초기 별다른 활동 없이 그냥 집에 있었다는 비율이 47.2%에 달해 한국 적응을 위한 정보를 전달받는데 제한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고, 한국 친구를 사귀는데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초기 정착의 불안정성은 이후 한국생활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갖거나, 이후 예측되지 않는 일탈행동 등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적응 프로그램은 양적·질적으로 더욱 확대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입국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신속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부모나 친구 같은 사적 연계망에 의해 한국 정착을 위한 정보를 전달받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현재 수원시에서 운영 중인 지원기관에 대한 인식도가 낮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홍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다.

2) 교육소외

중도입국청소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한국어 교육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배울만한 제도적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실제 학교 공부를 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한국말을 이해하는 것’ 이었고, 가장 어렵다고 인식한 과목도 ‘한국어(국어)’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미비한 실정이고,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준별 교육(초급-중급-심화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낮은 수준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은 정규교육과정을 이해하고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갖게 하여 교육의 기회에서 배제될 수 있고, 이후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진로·취업 등을 결정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마련과 관심이 필요하다.

3) 목표와 진로의 불확실성

특별한 목표나 진로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청소년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목표나 진로의식을 갖지 않는 경우 사회·심리 적응의 측면에서와 개인적 발달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향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진로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지만, 해당 직업을 갖기 위해 무슨 자격증이 필요하고, 또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실제 목표와 진로가 불일치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조사결과 직업 및 진로설정에 있어 정보나 직업 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은 별도의 수요조사 없이 형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정서적 불안정

조사결과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온 중도입국청소년은 한국 입국 후에 낯선 환경에서 성장기를 겪느라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한국 적응을 돕기 위해 가정 밖에서 외부적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사춘기에 극심한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되는데, 공교육에 적응토록 하려면 한국어뿐 아니라 심리적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사회적지지 체계의 유무가 청소년기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6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한국에 정착하는데 있어서 가족 외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회적지지 체제를 마련하고 또래집단과의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

2. 발전방향 및 정책제언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근본적인 관리체계의 정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수원시 차원에서 다양하고 정교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시민과 시민단체 차원에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에 대한 방향과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정부

(1) 지속적·통합적 사례관리

이주배경을 가진 중도입국청소년은 ‘이주’와 ‘청소년’이라는 두 가지 시공간 요소로 다른 청소년보다 정체성의 혼란이 배가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제도들을 유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통합지원기관(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 현재는 교육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 등의 서로 다른 관할 기관(부서)에서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행정적·입법적 지원 방안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도입국청소년들을 위한 일관적이고 유연성 있는 대안 마련이 마련되기 보다는 형식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을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통합지원 기관 및 부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장점으로서는 각 부처별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 및 사업들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중도입국청소년들을 위한 일관성 있는 행정적·법적 정보 및 지원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정보이용의 어려움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2) 체류자격의 법적 경직성 완화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체류신분과 관련한 법적 지원체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부모 집단의 의견조사 결과 이주 자녀들은 체류자격 문제로 인해 일정 기간에 한 번씩 본국에 다녀

와야 하기 때문에 학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취업활동 역시 불가능해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정규교육 과정(학교 재학) 중에는 비자를 연장해줌으로써 체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결과 귀화를 신청하고 최종 승인이 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데까지 평균 17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화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서 국내에서 아르바이트, 취업 등 최소한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유연성을 갖추으로써 체류신분의 법적 경직성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2) 수원시

(1) 교육지원

첫째, 교육지원과 관련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수준별 한국어 교육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어 교육과 정규 교육과정(공교육), 직업기술교육 등의 영역은 서로 분절된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이라는 목적과 체계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양적·질적 조사결과 대부분의 중도입국청소년들은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최소한의 한국어 수준을 갖추는 것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핵심역량이다.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들이 한국사회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취업 등의 진로 계획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후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 사회경제적 지위(SES)는 낮아지게 되고, 이로 인한 이차적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수원시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의 부족한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 청소년과 중도입국청소년들 간의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수원시 차원에서의 정책적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자녀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더라도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을 적시에 시켜주지 못하거나,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원을 다니는 것에 대해서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바우처 제도 등을 시행하여 일정 수준의 사교육비를 지원하려는 제도 구축과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 진로 및 취업과 연계한 교육비 지원체계에 대해 범위와 대상을 어떻게 제한할 것이며, 수원시의 예산확보,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자립지원

첫째, 중도입국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진로교육, 취미 프로그램, 직업기술훈련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보다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제빵, 한식, 중식, 양식 등(26.1%)’, ‘컴퓨터 관련 분야(20.5%)’, ‘미용(8.7%)’, ‘자동차 정비(4.3%)’ 등 일정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술이 필요한 직업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수요조사를 통한 진로개발과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갖춰야 할 것이다. 중도입국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진로교육 및 직업기술교육은 향후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했을 때 보다 안정적으로 한국사회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중도입국청소년 대상으로 직업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재 및 커리큘럼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과 차이를 두고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흥미유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수원시의 관심과 함께 예산지원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3) 심리·정서지원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온 중도입국청소년은 낯선 환경에서 성장기를 겪느라 이중고에 시달리는 만큼 이들의 정서 관리에 대한 외부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와 오랜 시간 떨어져 살던 경험을 가진 중도입국청소년들은 가정교육이 부재하여 사회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으며,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이 비교적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스트레스의 수준도 보통수준으로 파악되었으나, 지속적인 심리지원을 통해서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가족상담을 통해 가족 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과 무관심으로부터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담은 가능한 모국어로 이루어질 때보다 효과적이다. 따라서 심리·정서지원 제도와 기관을 두는 것에서 더 나아가 보다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국어, 영어 등의 언어로 정서관리가 가능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수원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나 또래 자원봉사 청소년들을 선발하여 일대일 멘토링의 제도를 도입하여 한국생활 적응과 개인적 고민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시민과 시민단체

사회 구성원 간에 상호 이질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러한 ‘차이’가 ‘차별’로 변질될 때는 갈등과 반목, 혼란 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정적 요인

으로 작용하게 된다(이중범, 2008). 사회 내에 다양한 소수자 집단들이 존재함에 있어서 이해와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을 때, 즉 차별성은 지양하되 차이성은 인정하고 장려할 때 우리는 그 사회가 건강함과 성숙함을 지녔다고 말할 수 있다(Thomas & Ely, 1996). 따라서 다문화 인식과 사회적 차이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이려는 시민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민간에서 운영 중인 중도입국청소년 지원기관의 경우 재단의 후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운영기금이 확보되고, 전문인력 구축과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갖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차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수원시 차원에서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정부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일부 취약 계층 중도입국청소년들에 대한 민간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국문 자료>

경기도청(2017), 2017 경기도청 다문화가족과 주요업무 보고자료

경기도교육청(2017), 2017 다문화교육 주요정책 보고자료

교육부(2014), 2014 다문화교육 활성화 계획

금명자 외(4명)(2006), 다문화가정 청소년(혼혈청소년)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국가청소년 위원회
전경숙 외(1명)(2014), 중도입국자녀 초기적응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효율화 방안, 경기도가족여
성연구원

김이선(2016), 이주배경청소년 구성 전망과 정책요구, 2016 이주배경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방
안 발표 토론회

김이선 외(2명)(2015),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여성가족부

김현주(2007), 미국조기유학 청소년의 적응과정 연구: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김효신(2009), 다문화청소년 알아가기: 캐나다 이주 난민 아동·청소년 정책, 무지개청소년센터
류방란 외(1명)(2012), 중도입국청소년의 교육 기회와 적응 실태. 다문화교육연구, 5권 1호,
pp.29-50

박성옥(2016), 중도입국청소년의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실태 사례 및 발전방안 연구. 다문화교
육연구 9권 3호, pp.83-105

배상률(2016), 중도입국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덕희 외(3명)(2015),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직업군 개발 및 취업지원 방안연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손영화 외(1명)(2015), 학교 밖 중도입국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사례연구, 교육문화연구 21권 1호,
pp.75-102

수원시(2017), 수원시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

신현옥(2016),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2016 이주배경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발표 토론회

양계민 외(1명)(2011), 중도입국청소년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오성배 외(4명)(2011), 중도입국청소년 지역별 지원 실태에 관한 분석, IOM이민정책연구원

오성배(2011), 외국인 이주 노동자 가정 자녀의 재학 학교 특성에 따른 교육지원 실태와 문제탐색,

-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29권, pp.245-281
- 이민경(2010a), 이주가정 자녀 사회통합 정책, 이민정책연구원 보고서
- 이민경(2010b), 한국 다문화교육정책 전개과정과 담론 분석: 고과부의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 정책(2006~2009)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37권 2호, pp.155-176
- 이민경(201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대안모색: 가족과 교육 아젠다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18권 3호, pp.157-182
- 이민경 외(1명)(2011), ‘다문화 아동·청소년’ 정책 용어 사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 모색: 정책용어와 방향성에 대한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권 5호, pp.1-37
- 이민경 외(1명)(2013), 이주 가정 자녀 정책 해외 사례분석:방향성과 실제, 현대사회와 다문화, 3권 1호, pp.144-177
- 이병철 외(1명)(2011),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3권 4호, pp.131-154
- 이수정 외(1명)(2008), 해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정책과 한국사회에서의 합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 이종범(2008), 정부수립 60년,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http://www.rainbowyouth.or.kr/index/rainbowyouth.php>
- 이주아동권리보호기본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2015), 이주아동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브리프, pp.5
- 이혜원 외(3명)(2010),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유민봉 외(1명)(2014), 한국인사행정론, 박영사
- 정해숙 외(8명)(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여성가족부
- 장명선 외(1명)(2011), 서울시 중도입국청소년 현황과 지원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통계청(2016), 2015년 다문화인구동태 통계

<영문 자료>

- Boyson, B.A. and Deborah J. S., (2003) Secondary School Newcomer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Center for Research on Education
- Thomas, D.A. and Ely, R.J., (1996) Making Difference Matter: A New Paradigm for Managing Diversity, Harvard Business Review, 74(5): 79-91

| 부 록 |

1. 한국어 설문지

ID				
----	--	--	--	--

중도입국청소년 생활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정연구원은 '수원시 중도입국청소년 생활실태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정연구원은 중도입국청소년들이 한국생활 적응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분석하고, 안정적인 초기 정착 및 진로 준비를 위해 필요로 하는 지원 요구 등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사를 기획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은 아래의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기재해 주신 개인 정보는 조사기간에 따라 최대 6개월 간 내부적으로 보관된 후 전문기관에 의해 즉각 일괄 폐기됩니다. 또한, 귀하의 개인 정보는 귀하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제 3자 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설문 참여 사실 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재해 주신 연락처로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인은 위의 조사 목적과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 조사기관 : (재) 수원시정연구원

■ 문 의 처 : 수원시정연구원 도시행정연구실 이영안 연구위원 (031) 220-8025

【 면 접 원 기 록 란 】

면 접 원 성 명		SV 확인	
면 접 일 시	2017년 월 일 시	검 증 결 과	○ ×

I. 배경변인(일반사항)

문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 ② 여

문2. 귀하는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	--	--	--

 년

문3. 귀하는 어느 나라 출신입니까?

- ① 중국(한국) ② 중국(조선족) ③ 기타 _____(직접기입)

문4. 현재 귀하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 ① 한국 (or문5번으로 가시오) ② 중국 (or문4-1번으로 가시오)
 ③ 기타 _____(직접기입) (or문4-1번으로 가시오)

문4-1. (문4에서 ②, ③번에 응답한 경우) 현재 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 ① 이미 귀화를 신청했다 ② 귀화신청을 준비 중이다 ③ 신청할 계획 없다

문4-2. 현재 영주권 획득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 ① 이미 영주권을 신청했다 ② 영주권 신청을 준비 중이다 ③ 신청할 계획 없다

문4-3. 현재 귀하의 체류자격은 무엇입니까?

- ① F-1 ② F-2 ③ F-4 ④ F-5 ⑤ C-3 ⑥ 기타 _____(직접기입)

문5. 한국에 언제 들어 왔습니까?

--	--	--	--

 년

--	--

 월

문6.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① 장안구	② 권선구	③ 팔달구	④ 영통구	()시 ()동
-------	-------	-------	-------	-------------------------

문7. 입국 전 어떤 가족과 생활하였습니까?

- ① 조부모 ② 친·인척 _____(직접기입) ③ 기타 _____(직접기입)

문8. 입국 전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① 1개월 미만 ②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③ 6개월 이상 1년 미만
 ④ 1년 이상 2년 미만 ⑤ 2년 이상

문9.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어 수준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① 전혀 의사소통이 안되는 수준 ② 거의 못하는 수준
 ③ 조금 알아듣는 정도 ④ 일상생활에서 불편이 없을 정도

문10.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다음 중 어떤 준비를 하였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 ① 특별히 준비한 것이 없다
- ② 한국어 공부를 하였다
- ③ 한국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보았다
- ④ 한국의 사회 및 문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 ⑤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 ⑥ 한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공부하였다
- ⑦ 기타 _____ (직접기입)

문11. 귀하는 한국어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혹은 어떻게 배우고 있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 ① 혼자서
- ② TV를 보면서
- ③ 주변사람들과 얘기하면서
- ④ 대학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 ⑤ 동네 이주민 관련 센터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 ⑥ 학원을 다니면서
- ⑦ 부모님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 ⑧ 기타 _____ (직접기입)

문12. 귀하는 한국어를 얼마나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구분	전혀 못한다	못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잘하는 편이다	매우 잘한다
말하기	①	②	③	④	⑤
쓰기	①	②	③	④	⑤
읽기	①	②	③	④	⑤
듣기	①	②	③	④	⑤
전반적	①	②	③	④	⑤

문13. 한국에 들어온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 ② 부모 외의 가족 또는 친척과 함께 살기 위해서
- ③ 한국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 ④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 ⑤ 본국에서 들락 줄 사람이 없어서
- ⑥ 기타 _____ (직접기입)

문14. 자신이 한국에 오게 된 경위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나는 싫었으나 어머니(또는 아버지)가 원해서 한국에 들어왔다
- ② 어머니(또는 아버지)는 고국에서 살기를 원했으나, 내가 들어오기를 적극 원했다
- ③ 나와 부모님 모두 한국에 들어와 함께 살기를 원했다
- ④ 나와 부모님 모두 한국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않았으나,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되었다
- ⑤ 기타 _____ (직접기입)

문15. 한국 입국 후 처음 3개월 동안 주로 무엇을 하며 지냈습니까?

- ① 오자마자 학교에 다녔다
- ② 지원단체(외국인센터/종교기관)에 다녔다
- ③ 집에 있었다
- ④ 부모님과 같이 일을 했다
- ⑤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
- ⑥ 기타 _____ (직접기입)

문16. 한국 입국 후 처음 3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2순위까지 적어주세요.

1 순위	2 순위
------	------

- ① 새로운 가족과 친해지는 것
- ② 학교진학 문제
- ③ 한국어를 못하는 것
- ④ 낯선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는 것
- ⑤ 주변의 안 좋은 시선
- ⑥ 어울릴 친구가 없는 외로움
- ⑦ 별로 힘든 것 없었음
- ⑧ 기타 _____ (직접기입)

문22.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이 하고 계신 일을 아래의 보기에서 골라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① 건설·현장 일용직 종사자	② 제조업(공장) 종사자	③ 판매업 종사자	
④ 서비스업(식당) 종사자	⑤ 농림어업 종사자	⑥ 개인사업	
⑦ 무직	⑧ 기타 _____(직접기입)		

문23. 현재 귀하의 가정형편(경제적인 측면)은 어떤 편입니까?

- ① 매우 어렵다 ② 어려운 편이다 ③ 중간정도이다
 ④ 넉넉한 편이다 ⑤ 매우 넉넉하다

문24. 집에서 가족들과 이야기할 때 주로 어느 나라 말을 사용합니까?

- ① 한국어만 ② 한국어가 대부분이고 모국어 약간 ③ 한국어와 모국어 반반
 ④ 한국어는 약간이고 모국어가 대부분 ⑤ 모국어만

문25. 현재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아래의 일들로 인해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는지 항목별로 적합한 보기를 골라 주세요.(새부모님, 새형제, 새자매가 없을 경우는 “해당 없음” 체크)

번호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한국말을 잘 몰라서 대화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생활습관이나 문화가 달라서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새 부모님이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새 형제, 자매로부터 소외감을 느껴서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집안의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부모님이 희망하지 않으셔서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26. 다음은 새부모님과과의 관계에 대한 항목입니다. 항목별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기를 골라주세요.

번호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새부모님과 함께 있기가 불편하고 긴장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새부모님과 대화가 잘 통하지 않음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새부모님과 자주 의견충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새부모님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새부모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집이 싫어서 가출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III. 심리·사회적응

문27. 요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을 터놓고 의논할 상대가 있습니까?

- ① 예 (☞문27-1번으로 가시오) ② 아니오 (☞문28번으로 가시오)

문27-1. (문27에서 '예' 라고 응답한 경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주로 누구와 의논을 합니까?

-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형제자매 ④ 친구
 ⑤ 학교선생님 ⑥ 직장상사 ⑦ 직장동료 ⑧ 청소년관련 센터
 ⑨ 기타 _____ (직접기입)

문27-2.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한국인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28. 귀하의 요즘 생활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를 골라 주세요.

번호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사는데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29. 다음 각각의 항목별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기를 골라주세요.

번호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친구들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친구들은 나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가족은 내가 힘들 때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가족은 내 말을 잘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가족은 내게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문30. 다음을 잘 읽고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를 골라 주세요.

번호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좋은 특성을 많이 갖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	대체로 나는 내가 실패한 존재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 이유를 생각해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대체로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때때로 내가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문31. 다음은 심리적 스트레스에 관한 항목입니다. 항목별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보기를 골라주세요.

번호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다른 사람이 모국의 문화를 갖고 농담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한국에 사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한국어를 잘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4	주변에서 한국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스트레스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5	어머니(아버지)가 외국인이라서 무시당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어머니(아버지)가 외국인이라서 따돌림 받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동네 사람들은 우리 식구를 못살게 군다	①	②	③	④	⑤
8	한국 사람들은 우리 식구를 못살게 군다	①	②	③	④	⑤

문32. 다음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보기를 골라주세요.

번호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한국문화(음악, 영화, 음식, 옷 등)를 즐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앞으로 계속 한국에 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한국의 대학이나 회사에 다니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5	한국문화를 배우는 것은 내게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모국어보다 한국어로 쓰기를 더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집에서 한국어를 주로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모국인보다 한국인과 더 잘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한국인들이 모국인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한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모국인보다 한국인에게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더 쉽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모국인보다 한국인들과 함께 있을 때 더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친구들은 대부분 한국인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33. 다음은 한국 문화 적응에 관한 문항입니다. 항목별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보기를 골라주세요.

번호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모국인 음악을 주로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가장 친한사람은 모국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모국인의 사고모임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한국인보다 모국인들이 평등하게 대우한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한국인보다 모국인들과 함께 있을 때 더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한국어와 모국어 농담을 모두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모국어로 한국어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한국인과 모국인 친구들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모국인들과 한국인들이 나를 존경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한국인과 모국인 모두에게 매우 편안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모국인이나 한국인과 사귄 때 어려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모국인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모국인과 한국인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모국인과 한국인 모두를 신뢰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IV. 학교경험

문34. 한국에서 처음 학교에 들어갔을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_____ 살

문35. 한국에서 처음 학교에 들어갔을 때 몇 학년이었습니까?

- ① 초등학교 _____ 학년 ② 중학교 _____ 학년
 ③ 고등학교 _____ 학년

문36. 본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후 처음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	--

 년

--	--

 개월

문37.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 둔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문38번으로 가시오) ② 아니오 (문39번으로 가시오)

문38. (문37에서 '예' 라고 응답한 경우) 학교를 중단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문44번으로 가시오)

- ① 한국말을 잘 몰라서 ②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이 힘들어서
 ③ 공부를 따라가기 힘들어서 ④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⑤ 가사일을 도와야 해서 ⑥ 기타 _____ (직접기입)

문39. (문37에서 '아니오' 라고 응답한 경우)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는 어떤 종류의 학교입니까?

- ① 한국학교 ② 외국인학교(화교학교 제외) ③ 화교학교
 ④ 대안학교 ⑤ 기타 _____ (직접기입)

문40. 현재 몇 학년입니까?

- ① 초등학교 _____ 학년 ② 중학교 _____ 학년 ③ 고등학교 _____ 학년
 ④ 대학교 _____ 학년 ⑤ 대학원

문41. 학교 공부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① 별 어려움이 없다 ② 한국말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③ 공부할 내용이 어려울 때 물어볼 사람이 없다 ④ 내 생각을 글로 나타내는 것이 어렵다
 ⑤ 수업시간에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어렵다 ⑥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⑦ 기타 _____ (직접기입)

문42. 학교에서 친구들과 생활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① 별 어려움이 없다 ② 학교아이들이 외국에서 왔다고 나를 놀리는 것
 ③ 한국어를 잘 못한다고 놀리는 것 ④ 친한 친구가 없는 것
 ⑤ 아이들이 때리거나 욕하는 것 ⑥ 아이들이 따돌리는 것
 ⑦ 기타 _____ (직접기입)

문43. 학교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과목은 무엇입니까? (문46번으로 가시오)

- ① 한국어 ② 영어 ③ 수학 ④ 사회, 역사
 ⑤ 과학 ⑥ 기타 _____ (직접기입)

문44. (문38에 응답한 경우) 학교를 다니지 않는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며 지내십니까?

- ① 집에서 TV를 보거나 그냥 혼자 있다 ② 학원을 다니며 검정고시 등 학교 갈 준비를 한다
 ③ 학원을 다니며 취업준비를 한다 ④ 아르바이트를 한다
 ⑤ 직장을 다니며 일을 한다 ⑥ 친구들과 어울린다
 ⑦ 기타 _____(직접기입)

문45. 앞으로 학교에 진학할 계획이 있습니까?

- ① 예 (문45-1번으로 가시오) ② 아니오 (문45-5번으로 가시오)

문45-1. (문45에서 '예' 라고 응답한 경우)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

- ① 진학하는데 필요한 본국의 학교 관련 서류 ② 주요과목 보충
 ③ 한국어 교육 ④ 한국문화 적응교육
 ⑤ 경제적 지원 한다 ⑥ 기타 _____(직접기입)

문45-2. 어느 학교에 진학할 계획입니까?

- ① 중학교 ② 인문계 고등학교 ③ 실업계 고등학교
 ④ 대안학교(외국인들만 있는 학교) ⑤ 기타 _____(직접기입)

문45-3. 앞으로 어느 학교까지 다니길 원합니까?

- ① 초등학교 (문46번으로 가시오) ② 중학교 (문46번으로 가시오)
 ③ 고등학교 (문46번으로 가시오) ④ 대학교 (문45-4번으로 가시오)
 ⑤ 대학원 (문45-4번으로 가시오)

문45-4. (문45-3에서 ④, ⑤번에 응답한 경우) 대학교를 간다면 어디에서 가고 싶습니까?

- ① 한국 ② 중국 ③ 현재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
 ④ 기타 _____(직접기입)

문45-5. (문45에서 '아니오' 라고 응답한 경우) 학교에 진학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을 할 생각입니까?

- ①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 ② 검정고시 학원에 다닐 생각이다
 ③ 취업할 생각이다 ④ 아르바이트를 할 것이다
 ⑤ 직업훈련교육을 받을 생각이다 ⑥ 기타 _____(직접기입)

문46. 현재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_____명

문47. 주로 어울리는 친구들은 어느 나라 출신입니까?

- ① 한국 ② 중국(한족) ③ 중국(조선족) ④ 기타 _____(직접기입)

문48. 현재 다니고 있는 곳의 교육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문49. 현재 다니고 있는 곳에서 제공되기를 희망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입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모두 골라 주세요. (중복응답 가능)

- ① 기초 한국어 교육 ② 한국어 고급 심화과정
 ③ 학교진학을 위한 주요과목 지도 ④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적응) 교육
 ⑤ 이중언어 교육 ⑥ 특기적성 교육(컴퓨터, 미술, 음악, 태권도 등)
 ⑦ 직업·기술교육 ⑧ 문화소양 교육(한국문화 이해, 적응)
 ⑨ 인성심리교육(상담 및 종교활동 등) ⑩ 기타 _____(직접기입)

문50. 현재 다니고 있는 곳의 프로그램이 끝나고 집에 오면 주로 무엇을 하며 보냅니까?

- 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그냥 혼자 있다
- ② 배운 것을 복습(공부)한다
- ③ 친구들과 어울린다
- ④ PC방이나 오락실 등에 간다
- ⑤ 학원에 간다
- ⑥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 ⑦ 기타 _____(직접기입)

문51. 학원에 다니고 있거나, 다닌 적이 있다면 학원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 ① 영어
- ② 체육(태권도, 수영 등)
- ③ 악기(피아노, 바이올린 등)
- ④ 미술
- ⑤ 배우고 싶은 것이 없다
- ⑥ 기타 _____(직접기입)

문52. 앞으로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① 학과공부(한국어, 수학, 과학 등)
- ② 컴퓨터
- ③ 영어
- ④ 체육(태권도, 수영 등)
- ⑤ 악기(피아노, 바이올린 등)
- ⑥ 미술
- ⑦ 배우고 싶은 것이 없다
- ⑧ 기타 _____(직접기입)

V. 진로/진학

문53. 앞으로 계속 한국에서 살 예정입니까?

- ① 예 (*문53-1번으로 가시오*)
- ② 아니오 (*문53-2번으로 가시오*)
- ③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문53-2번으로 가시오*)

문53-1. (문53에서 '예' 라고 응답한 경우) 한국에서 산다고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구체적 직접 기입)

문53-2. (문53에서 '아니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라고 응답한 경우) 한국에서 산다고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구체적 직접 기입)

문54. 향후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 ① 한국에서 상급학교로 진학할 예정이다
- ② 다른 나라로 유학 갈 예정이다
- ③ 검정고시 준비를 할 예정이다
- ④ 취업할 예정이다
- ⑤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 ⑥ 학업을 계속하거나 정식으로 취업하지 않고, 시간제 근로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진로를 모색할 것이다
- ⑦ 기타 _____(직접기입)
- ⑧ 앞으로의 계획이 없다 (*문54-1번으로 가시오*)

문54-1. (문54에서 ⑧번에 응답한 경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 ①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정보가 부족해서
- ② 한국어가 부족해서
- ③ 계획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④ 심리 및 정서적으로 힘들어서
- ⑤ 체류자격이 불안정해서
- ⑥ 기타 _____(직접기입)

문55. 진로선택이나 미래계획에 대한 고민을 주로 어떤 방식을 통해 해결합니까? 다음 중 가장 자주하는 방식 두 가지를 선택하여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1 순위		2 순위	
------	--	------	--

- ① 부모님이나 가족 구성원과의 대화를 통해
- ② 한국에 사는 친구나 선생님 등 주위사람과의 소통/대화를 통해
- ③ 귀하의 출신국이나 다른 나라에 사는 친구나 지인과의 소통/대화를 통해
- ④ 한국의 정부나 지원기관을 통해
- ⑤ 한국의 인터넷이나 서적 등 매체를 통해
- ⑥ 출신국의 인터넷이나 서적 등 비한국어 매체를 통해
- ⑦ 기타 _____ (직접기입)

문56. 귀하가 원하는 진로를 위하여 현재 가장 필요한 도움은 무엇입니까?

- ① 직업기술교육훈련 관련 도움
- ② 한국어교육 지원 관련 도움
- ③ 빨리 취업하여 돈 벌기
- ④ 학교공부 관련 도움
- ⑤ 기타 _____ (직접기입)

문57.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분야의 교육을 받고 싶습니까?

- ① 음식, 커피, 제빵, 한식, 중식, 양식 등
- ② 미용, 피부관리, 네일아트
- ③ 컴퓨터 OA, 컴퓨터그래픽, 웹디자인, 일러스트
- ④ 패션, 봉제
- ⑤ 자동차 정비
- ⑥ 건축시공, 도배, 미장
- ⑦ 인테리어
- ⑧ 조경, 화훼
- ⑨ 기계설계
- ⑩ 귀금속 공예
- ⑪ 호텔 및 관광
- ⑫ 기타 _____ (직접기입)

문58. 향후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_____ (직접 기입)

문59. 자신의 진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아래 각 항목의 해당 칸에 ○ 표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장래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직업 분야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장래에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 대체로 방향을 정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대학에 가서 전공하고 싶은 구체적인 분야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소신대로 직업을 결정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현재 나는 어떤 직업 분야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분명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외국출신이기에 한국에서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기 힘들 거 같다	①	②	③	④	⑤
7	한국은 내 장래 희망을 실현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었다	①	②	③	④	⑤

VI. 사회적 인식

문60. 각 항목에 대해 귀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각 문항을 읽고 해당 번호에 ○ 표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출신국(한국 제외)의 청소년과 친한 단짝이 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 청소년과 친한 단짝이 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출신국(한국 제외) 사람을 기꺼이 이성 친구로 사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한국 사람을 기꺼이 이성 친구로 사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61.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문화 차이, 언어 장벽, 외모 차이 등)로 한국사회에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최근 6개월간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① 전혀 없었다	(<i>문62번으로 가시오</i>)		
② 약간 있었다	문61-1. 한국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차별을 받았을 때, 귀하는 주로 어떻게 대응합니까? 귀하가 가장 자주했던 행동 두 가지를 골라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③ 가끔 있었다			
④ 자주 있었다			
	① 그냥 참는다 ②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알린다 ③ 친구나 선생님, 지인 등 주위사람에게 알린다 ④ 정부나 관련기관에 민원처리를 한다 ⑤ SNS 등 인터넷에 올린다 ⑥ 차별을 한 당사자에게 따진다 ⑦ 기타 _____ (직접기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1 순위</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2 순위</td> </tr> </table>	1 순위	2 순위
1 순위	2 순위		

문62. 최근 귀하의 삶에 있어 가장 큰 개인적 고민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가장 큰 고민 두 가지를 선택하여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 주세요.

	1 순위	2 순위
① 돈 문제(채무, 가난 등)	② 진로 문제(취직, 이직, 진학, 군대 등)	
③ 건강 문제(신체적 또는 정신적)	④ 가족 간 불화	
⑤ 이성 문제(연애, 결혼 등)	⑥ 인간관계(배신, 갈등, 괴롭힘, 왕따 등)	
⑦ 외로움	⑧ 학교 성적	
⑨ 기타 _____ (직접기입)		

문63. 귀하는 가까운 미래에 한국을 벗어나 출신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①	아니오.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 (or문64번으로 가시오)		
②	예. 출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문63-1. 귀하가 한국을 벗어나 살고 싶은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를 선택하여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1 순위
			2 순위
③	예. 한국이나 출신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다	①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 사람들에게서 받는 차별 때문에 ②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의 법적, 제도적인 제재 때문에 ③ 한국어가 어려워 소통의 문제가 많아서 ④ 한국문화가 너무 달라 적응이 어려워서 ⑤ 한국에서는 구직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아서 ⑥ 한국에서의 삶은 외로워서 ⑦ 한국보다 내 꿈을 실현하기에 좋은 환경을 찾기 위해서 ⑧ 기타 _____ (직접기입)	
④	모르겠다		

Ⅶ. 지원

문64.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예 (or문64-1번으로 가시오) ② 아니오 (or문65번으로 가시오)

문64-1. (문64에서 '예' 라고 응답한 경우) 어떤 기관입니까?

기관명	
-----	--

문65. 다음과 같은 기관들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용해본 경험은 있습니까?

번호	문항	알고 있습니까?		이용해 본 경험은?	
		안다	모른다	있다	없다
1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333)	①	②	①	②
2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수원시 팔달구 동말로77번길 47-36)	①	②	①	②
3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41번길 4)	①	②	①	②
4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55)	①	②	①	②
5	수원고용·복지센터(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	①	②	①	②
6	수원이주민센터(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28-13)	①	②	①	②
7	수원 다누리 콜센터(031-257-1841)	①	②	①	②
8	동주민센터	①	②	①	②

문66. 위에 제시된 지원기관에 도움을 청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or문66-1번으로 가시오) ② 아니오 (or문66-2번으로 가시오)

문66-1. (문66에서 '예' 라고 응답한 경우) 지원기관의 도움이 얼마나 만족스러웠습니까?

- ①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②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다
 ③ 어느 정도 만족스러웠다 ④ 매우 만족스러웠다

문66-2. (문66에서 '아니오' 라고 응답한 경우) 왜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까?

- ① 그런 기관들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
- ② 그런 기관을 알고는 있지만 어떤 도움을 청하는 것인지 방법을 몰라서
- ③ 그런 기관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몰라서
- ④ 도움을 청할 필요를 못 느껴서
- ⑤ 기타 _____(직접기입)

문67. 귀하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어느 곳에서 제공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① 학교
- ② 일반적인 청소년 관련 기관
- ③ 다문화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
- ④ 교회나 성당, 절 등 종교기관
- ⑤ 어떤 기관이든 상관없다
- ⑥ 기타 _____(직접기입)

문68. 한국생활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 여러분이 가장 필요로 하고, 희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 적어주세요.

1 순위		2 순위	
------	--	------	--

- ① 학비 지원
- ② 학교수업/주요 교과목 지도
- ③ 수준별 한국어 교육
- ④ 아플 때 치료비 지원
- ⑤ 고민상담
- ⑥ 문화활동(취미활동) 지원
- ⑦ 직업기술 훈련
- ⑧ 1:1 멘토링
- ⑨ 진로 및 적성 지도
- ⑩ 한국사회 및 문화 적응 지원
- ⑪ 필요한 것 없다
- ⑫ 기타 _____(직접기입)

문69.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에 바라는 점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오랜 시간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 영어 설문지

ID				
----	--	--	--	--

Survey on Immigrated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Suwon

Greetings.

SRI(Suwon Research Institute) is conducting a survey on immigrated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Suwon.

SRI has planned this research to come up with an effective alternative policy to analyze the hardships that the immigrated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suffer while going through an adaptation process to the life in Korea and identify their demands for support that they need for a stable initial settlement and career preparation.

The contents of your response will be kept confidential according to article 33 and 34 of the Statistics Act, and only be used for statistical purpose and your personal information will be stored internally for the period of maximum 6months depending on the length of research and be discarded by a specialized institution. Moreover, your personal information will not be provided to the third person on the other purpose or without your permission. However, it is possible for us to contact you using the contact information which you have filled in when it becomes necessary for us to verify your participation in the survey.

We would appreciate you taking time to participate during your busy schedule.

Article 33(Protection of Secrecy)

- ① As noted in the preparation of Statistics, the confidentiality of persons, entities or organizations should be protected
- ② Any data that belongs to the confidentiality of persons, entities or organizations collected for statistical purposes shall not be used for purposes other than statistical preparation

Article 34(Duties of Statistics Workers)

Any person who has been entrusted or commissioned by a statistical staff or a statistical staff member or a person who has been engaged in a statistical work or a portion of the statistical work shall not be permitted to use the work or to serve others for purposes other than work.

I have perceived and agree to the purpose of investigation and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specified above.

- Investigating Organization : SRI(Suwon Research Institute)
- Contact : (031) 220-8025, Lee, Young-An, Researcher, Urban Administration Lab, SRI

[For Interviewer to write]

Name of the Interviewer		SV Confirm	
Date	(time/mm/dd/yyyy)	Result of Verification	○ ×

I. Background variable(general details)

Q1. What is your gender?

- ① Male ② Female

Q2. In which year were you born?

--	--	--	--

 Year

Q3. Where are you from?

- ① China(Han) ② China(ethnic Korean living in China) ③ Other _____

Q4. What is your nationality?

- ① Korea (exGo to Q5) ② China (exGo to Q4-1)
 ③ Other _____ (exGo to Q4-1)

Q4-1. (To those who have answered ②, ③ in Q4) Are you preparing to be naturalized?

- ① Have already applied for naturalization ② Is preparing to apply for naturalization
 ③ Is not planning to apply

Q4-2. Are you preparing to apply for permanent residence?

- ① Have already applied ② Is preparing to apply ③ Is not planning to apply

Q4-3. What is your stay status?

- ① F-1 ② F-2 ③ F-4 ④ F-5 ⑤ C-3 ⑥ Others _____

Q5. When did you come to Korea?

--	--	--	--

 Year

--	--

 Month

Q6. Where do you live now?

① Jangan-gu	② Gwonseon-gu	③ Paldal-gu	④ Youngtong-gu	()City	()Dong
-------------	---------------	-------------	----------------	--------------	--------------

Q7. Which of the family members did you live with before entering Korea?

- ① Grandparents ② Relatives _____ ③ Others _____

Q8. How long have you been away from your parents before coming to Korea?

- ① Less than a month ② More than a month less than 6months
 ③ More than 6months less than a year ④ More than a year less than 2 years
 ⑤ More than 2 years

Q9. How was your Korean-proficiency when you first came to Korea?

- ① Unable to communicate at all ② Hardly able to communicate
③ Able to understand a little ④ Has no problem in daily life

Q10. Which of the preparations did you do before coming to Korea? (multiple answers possible)

- ① Nothing special
② Studied Korean
③ Looked up information about steps to enter Korean schools
④ Looked up about Korea's society and culture
⑤ Looked up about the kind of jobs are available in Korea
⑥ Studied for necessary skills to work in Korea
⑦ Others _____

Q11. How did you learn Korean? or How are you learning it? (multiple answers possible)

- ① Alone
② By watching TV
③ By talking to people around you
④ By attending Korean educational programs in universities
⑤ By attending Korean educational programs in the immigrant-related center in the village
⑥ By going to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
⑦ By listening to your parents speak Korean
⑧ Others _____

Q12. In your thoughts, how fluent are you in Korean? (Rate the level of your Korean language from 1(=Unable to speak) to 5(=Very Good))

Classification	Unable to speak	Not very good	Average	Good	Very Good
Speaking	①	②	③	④	⑤
Writing	①	②	③	④	⑤
Reading	①	②	③	④	⑤
Listening	①	②	③	④	⑤
Overall	①	②	③	④	⑤

Q13. What is the main reason for coming to Korea?

- ① To live with the parents ② To live with relatives other than parents
③ To study in Korea ④ To earn money in Korea
⑤ Absence of someone to take care of you ⑥ Others _____

Q14. Which of the choices explains the details of your coming to Korea the best?

- ① I didn't want to come but mother(or father) wanted me to come to Korea
② Mother(or father) wanted to live in my own country but I eagerly wanted to come
③ Both my parents and I wanted to come and live in Korea
④ Both my parents and I did not want to live in Korea but the circumstances made us come
⑤ Others _____

Q15. What did you mostly do for the first 3months after entering Korea?

- ① I went to school right away
② I went to a supporting organization(ex. groups for foreign immigrants/religious groups)
③ I stayed at home ④ I worked with my parents
⑤ I worked and earned money ⑥ Others _____

Q16. What was the most difficult part of living in Korea for the first 3months after coming to Korea?
(Please choose two choices)

1 st choice		2 nd choice	
------------------------	--	------------------------	--

- ① To become intimate with a new family
- ② Entering school
- ③ Not being able to speak Korean
- ④ To get used to unfamiliar environment and culture
- ⑤ Biased gaze of other people around
- ⑥ Loneliness from not having a friend to hang out with
- ⑦ Nothing
- ⑧ Others _____

II. Home Environment

Q17. How many family members are you living with?

Q18. Who do you live with now? Please choose all the numbers corresponding to your answers. (multiple answers possible)

- ① Father
- ② Mother
- ③ Foster father
- ④ Foster mother
- ⑤ Grandfather
- ⑥ Grandmother
- ⑦ Maternal grandfather
- ⑧ Maternal grandmother
- ⑨ Siblings(with the same parents)
- ⑩ Half siblings(with the same father)
- ⑪ Uterine siblings(with the same mother)
- ⑫ Siblings with different fathers and mothers
- ⑬ Relatives(aunt or uncle)
- ⑭ Alone
- ⑮ Others _____

*** For the children who do not live with their parents to answer**

Q18-1. How long have you been away from your parents in Korea?

- ① Less than a month
- ② More than a month less than 6 months
- ③ More than 6months less than a year
- ④ More than a year less than 2 years
- ⑤ More than 2 years

Q18-2. What is the reason for not living with your parents?

- ① Conflict with parents
- ② Conflict with siblings
- ③ Economy difficulties
- ④ Because of school or work
- ⑤ Because of parents' return to their own country
- ⑥ Others _____

Q19. Where are the parents who you live with from?

Father		Mother	
--------	--	--------	--

- ① Korea
- ② China(ethnic Korean living in China)
- ③ China(Han)
- ④ Others _____

Q19-1. What is your father's stay status?

- ① Korean
- ② A naturalized citizen
- ③ F-1
- ④ F-2
- ⑤ F-4
- ⑥ F-5
- ⑦ C-3
- ⑧ Others _____

Q19-2. What is your mother's stay status?

- ① Korean
- ② A naturalized citizen
- ③ F-1
- ④ F-2
- ⑤ F-4
- ⑥ F-5
- ⑦ C-3
- ⑧ Others _____

Q20. How old are the parents who you live with?

Father	Years old	Mother	Years old
--------	-----------	--------	-----------

Q21. What are the parents who you live with' s highest level of schooling? Choose the numbers corresponding to your answers.

Father		Mother	
--------	--	--------	--

- ① Uneducated ② Elementary school ③ Middle school ④ High school
 ⑤ College ⑥ A four-year college ⑦ Graduate school ⑧ Uncertain

Q22. What does the parents who you live with do for work? Choose the numbers corresponding to your answers.

Father		Mother	
--------	--	--------	--

- ① A daily employee at a construction site ② A worker in a manufacturing factory
 ③ A salesman ④ Working in the service industry(restaurant)
 ⑤ Working i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business ⑥ Private business
 ⑦ Unemployed ⑧ Others _____

Q23. How is your family circumstances(in economic aspect) recently?

- ① Not very good ② Quite tough ③ Moderate
 ④ Sufficient ⑤ Very sufficient

Q24. Which language do you use when you talk to your family at home?

- ① Only Korean ② Mostly Korean and some native language ③ Half and half
 ④ Little Korean and mostly native language ⑤ Only native language

Q25. Please choose the most appropriate answers to the questions below about the level of difficulty you feel while going through the listed situations in family relationships. If you do not have step parents, stepbrother or sister, tick off N/A on the list. (Rate the level of difficulty from 1(=Very Unlikely) to 5(=Very Likely))

No.	Questions	Very Unlikely	Unlikely	Normal	Likely	Very Likely	N/A
1	It is hard to communicate in Korean	①	②	③	④	⑤	⑥
2	It is difficult because of difference in culture and lifestyle	①	②	③	④	⑤	⑥
3	My step parents have no interest in me	①	②	③	④	⑤	⑥
4	I feel left out from the stepbrothers and sisters	①	②	③	④	⑤	⑥
5	The economic problem in the family is hard on me	①	②	③	④	⑤	⑥
6	The conflict between my parents is hard on me	①	②	③	④	⑤	⑥

Q26. The following items are about relationship with step parents. Please choose the most appropriate answers to the questions.

No.	Questions	Very Unlikely	Unlikely	Normal	Likely	Very Likely	N/A
1	I feel nervous and uncomfortable to be with the step parents	①	②	③	④	⑤	⑥
2	It is hard to communicate with the step parents	①	②	③	④	⑤	⑥
3	My step parents and I often have disagreements	①	②	③	④	⑤	⑥
4	My step parents are not interested in me	①	②	③	④	⑤	⑥
5	My step parents do not like me	①	②	③	④	⑤	⑥
6	I sometimes have an urge to runaway from home	①	②	③	④	⑤	⑥

III. Psychology·Social Adjustment

Q27. Do you have anyone to open yourself up to when you are in trouble nowadays?

- ① Yes (*Go to Q27-1*) ② No (*Go to Q28*)

Q27-1. (If your answer is 'Yes' in Q27) Who do you usually talk to when you are in trouble?

- ① Father ② Mother ③ Siblings ④ Friends
 ⑤ School teacher ⑥ Boss at work ⑦ Co-workers ⑧ Youth center
 ⑨ Others _____

Q27-2. Do you know any Korean who you can ask for help when you are in trouble?

- ① Yes ② No

Q28. Please choose the answer that described your life these days the best.

No.	Questions	Very Unlikely	Unlikely	Normal	Likely	Very Likely
1	I enjoy living	①	②	③	④	⑤
2	I do not have much to worry about	①	②	③	④	⑤
3	I think my life is a happy one	①	②	③	④	⑤

Q29. Please choose the most appropriate answers for you in each of the items.

No.	Questions	Very Unlikely	Unlikely	Normal	Likely	Very Likely
1	My friends listen to what I say and my thoughts very well	①	②	③	④	⑤
2	I have a friend who will help me in hard times	①	②	③	④	⑤
3	My friends like me	①	②	③	④	⑤
4	My family helps me in hard times	①	②	③	④	⑤
5	My family listens to me very well	①	②	③	④	⑤
6	My family pays a lot of attention to me	①	②	③	④	⑤

Q30. Please read closely and choose the most appropriate answer which describes you the best.

No.	Questions	Very Unlikely	Unlikely	Normal	Likely	Very Likely
1	I feel that I am a valuable person	①	②	③	④	⑤
2	I feel that I possess a lot of good characteristics	①	②	③	④	⑤
3	I feel that I am a failure in general	①	②	③	④	⑤
4	When I have trouble, I try to think of its cause and resolve the problem	①	②	③	④	⑤
5	I feel positive about myself	①	②	③	④	⑤
6	I am satisfied about myself in general	①	②	③	④	⑤
7	I sometimes feel that I am a useless person	①	②	③	④	⑤

Q31. The following questions are about psychological stress. Please choose the most appropriate answers which describes you the best.

No.	Questions	Very Unlikely	Unlikely	Normal	Likely	Very Likely
1	I feel stressed when other people tell a joke about the culture of my homeland	①	②	③	④	⑤
2	I feel stressed about living in Korea	①	②	③	④	⑤
3	I feel stressed because I am poor at speaking Korean	①	②	③	④	⑤
4	I feel stressed because of people around who tell me to behave like a Korean	①	②	③	④	⑤
5	My mother(or father) is sometimes ignored because they are foreigners	①	②	③	④	⑤
6	My mother(or father) is sometimes ostracized because they are foreigners	①	②	③	④	⑤
7	People in our neighborhood are cruel to our family	①	②	③	④	⑤
8	Korean people are cruel to our family	①	②	③	④	⑤

Q32. Please read closely and choose the answers that are the closest to your thoughts.

No.	Questions	Very Unlikely	Unlikely	Normal	Likely	Very Likely
1	I enjoy Korean culture (music, movie, food, clothes)	①	②	③	④	⑤
2	I am proud that I am living in Korea	①	②	③	④	⑤
3	I want to continue living in Korea	①	②	③	④	⑤
4	I want to go to a Korean college and company	①	②	③	④	⑤
5	It is important to me to learn Korean culture	①	②	③	④	⑤
6	I am better at writing in Korean than in my own language	①	②	③	④	⑤
7	I usually use Korean at home	①	②	③	④	⑤
8	I get along with Korean people better than I do with my homeland people	①	②	③	④	⑤
9	I feel that Korean people understand me better than my homeland people	①	②	③	④	⑤
10	It is easier for me to convey my emotions to Korean people than my homeland people	①	②	③	④	⑤
11	I am more comfortable around Korean people than my homeland people	①	②	③	④	⑤
12	My friends are mostly Korean people	①	②	③	④	⑤

Q33. The following questions are about Korean cultural adaptation. Please choose the most appropriate answers which describes you the best.

No.	Questions	Very Unlikely	Unlikely	Normal	Likely	Very Likely
1	I usually listen to my homeland music	①	②	③	④	⑤
2	My best friend is one of my homeland people	①	②	③	④	⑤
3	I like to go to my homeland people's social party	①	②	③	④	⑤
4	I feel that native people treat me equally than Korean people do	①	②	③	④	⑤
5	I am more comfortable around native people than Korean people	①	②	③	④	⑤
6	I understand jokes in both Korean and native language	①	②	③	④	⑤
7	I think about Korean in my native language	①	②	③	④	⑤
8	I have both Korean friends and native friends	①	②	③	④	⑤
9	I think that Korean people and native people both respect me	①	②	③	④	⑤
10	I feel comfortable about both Korean people and native people	①	②	③	④	⑤
11	I have trouble getting to know both Korean and native people	①	②	③	④	⑤
12	I once thought not only Korean people but also native people do not like me	①	②	③	④	⑤
13	I once felt that both native and Korean people do not accept me	①	②	③	④	⑤
14	It is hard for me to trust both native and Korean people	①	②	③	④	⑤

IV. School Experience

Q34. How old were you when you first entered a school in Korea?
 _____ Years old

Q35. In which grade were you when you first entered school in Korea?

- ① Elementary school _____ Grade ② Middle school _____ Grade
 ③ High school _____ Grade

Q36. How long did it take for you to first enter the school after coming to Korean from your own country?

Years Months

Q37. Have you ever quit school while attending school in Korea?

- ① Yes (rPGo to Q38) ② No (rPGo to Q39)

Q38. (If you have answered 'Yes' in Q37) What was the reason for quitting? (rPGo to Q44)

- ① I do not know much Korean ② It is hard to get along with friends
 ③ It is hard to follow the curriculum ④ Because of bad family circumstances
 ⑤ I had to help with the houseworks ⑥ Others _____

Q39. (If you have answered 'No' in Q37) What kind of school do you go to now?

- ① Korean school ② International School(not including Chinese school)
 ③ Chinese school ④ Alternative school ⑤ Others _____

Q40. Which grade are you in?

- ① Elementary school _____ Grade ② Middle school _____ Grade
 ③ High school _____ Grade ④ University _____ Grade ⑤ Graduate school

Q41. What is the hardest thing when you study at school?

- ① There is no difficulty at all
 ② It is hard to understand Korean
 ③ There is no one to ask questions when there is something hard in what I will learn
 ④ It is hard to express my thoughts in words
 ⑤ It is hard to say my opinion during the class
 ⑥ It is hard to understand the contents of the book
 ⑦ Others _____

Q42. What is the hardest thing when you get along with your friends at school?

- ① There is no difficulty at all
 ② School kids teasing me because I came from other country
 ③ School kids teasing me because of my bad Korean
 ④ Not having a close friend
 ⑤ School kids hitting and swearing at me
 ⑥ School kids leaving me out
 ⑦ Others _____

Q43. What is the most difficult subject at school? (*Go to Q48*)

- ① Korean ② English ③ Math ④ Social Studies, History
 ⑤ Science ⑥ Others _____

Q44. (If you have answered to Q35) What do you usually do when you are not at school?

- ① I watch TV or stay alone at home
 ② I go to a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 to get ready for school qualification exam to go to school
 ③ I go to a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 as an employment preparation
 ④ I work a part-time job
 ⑤ I work at the office
 ⑥ I hang out with friends
 ⑦ Others _____

Q45. Do you plan to go to school in the future?

- ① Yes (*Go to Q45-1*) ② No (*Go to Q45-5*)

Q45-1. (If your answer is 'Yes' in Q45) What kind of help do you need to go to school?

- ① School papers from your own country to enter the school
 ② Make up for the major subjects
 ③ Korean language education
 ④ Korean cultural adaptation education
 ⑤ Economic support
 ⑥ Others _____

Q45-2. What kind of school do you plan to enter?

- ① Middle school ② Academic high school ③ Vocational high school
④ Alternative school(a school with only foreigners) ⑤ Others _____

Q45-3. From now on, to which school do you wish to continue your education?

- ① Elementary school (xPGo to Q46) ② Middle school (xPGo to Q46)
③ High school (xPGo to Q46) ④ University (xPGo to Q45-4)
⑤ Graduate school (xPGo to Q45-4)

Q45-4. (If your answers are ④ or ⑤ in Q45-3) Where do you wish to go to an university?

- ① Korea ② China ③ I currently attend university in Korea
④ Others _____

Q45-5. (If your answer is 'No' in Q45) If you don't attend school, what do you plan to do?

- ① I haven't thought of it yet ② I plan to go to a school qualification exam institute
③ I plan to get a job ④ I plan to get a part-time job
⑤ I plan to receive a vocational training ⑥ Others _____

Q46. How many close friends do you have?

Q47. Where are the friends you often hang out from?

- ① Korea ② China(Han) ③ China(ethnic Korean leaving in China)
④ Others _____

Q48. Are you satisfied with the educational program you currently attend?

- ① Very not satisfied ② Not satisfied ③ Normal ④ Satisfied ⑤ Very satisfied

Q49. Which program do you wish to be offered in the place you currently go to? Please select all the numbers that apply. (multiple answers possible)

- ① Basic Korean education ② Advanced Korean education
③ A major course instruction for entering school
④ Adaptive education that helps you to do well at school
⑤ Dual language education
⑥ Special aptitude education(computer, arts, music, Taekwondo)
⑦ Vocational - technical education
⑧ Cultural knowledge education(Understanding and getting used to Korean culture)
⑨ Human personality and psychology education (counseling and religious activities)
⑩ Others _____

Q50. If you get home after finishing the program you currently attend, what do you usually do?

- ① I watch TV or stay home alone ② I review what I have learned
③ I hang out with friends ④ I go an internet cafe or an arcade
⑤ I go to an educational institute ⑥ I attend the other program
⑦ Others _____

Q51. If you are going to an educational institute now or if you have attended one, what did you learn there?

- ① English
 ② Physical education(Taekwondo or swimming)
 ③ Musical instruments (piano or violin)
 ④ Arts
 ⑤ There is nothing I want to learn
 ⑥ Others _____

Q52. What do you wish to learn from now on?

- ① School subjects(Korean, Math, Science)
 ② Computer
 ③ English
 ④ Physical education(Taekwondo, swimming)
 ⑤ Musical instruments(piano, violin)
 ⑥ Arts
 ⑦ There is nothing I want to learn
 ⑧ Others _____



V. Career/Going on to School

Q53. Do you plan to continue living in Korea?

- ① Yes (*Go to Q53-1*)
 ② No (*Go to Q53-2*)
 ③ I haven't decided yet (*Go to Q53-2*)

Q53-1. (If your answer is 'Yes' in Q53) What is the reason that you have decided to live in Korea?

Q53-2. (If your answer is 'No' or 'I haven't decided yet' in Q53) What is the reason that you haven't decided to live in Korea?

Q54. What are your plans for the future? (multiple answers possible)

- ① I am planning to go to an advanced school in Korea
 ② I plan to study abroad in another country
 ③ I am planning prepare for a school qualification exam
 ④ I plan to get a job
 ⑤ I plan to work and study at the same time
 ⑥ I will continue my studies without being legally employed and find my way while doing to part-time job
 ⑦ Others _____
 ⑧ I don't have a plan for the future (*Go to Q54-1*)

Q54-1. (If your answer in Q54 is ⑧) What is the reason for not having a plan for the future? (multiple answers possible)

- ① I don't have enough information about what I should prepare
 ② My Korean is not good enough
 ③ I don't feel the need for a plan
 ④ I have a hard time psychologically and emotionally
 ⑤ My stay status is unstable
 ⑥ Others _____

Q55. How do you handle worries about career choices or future plans? Please choose two of the following ways and write them down in order.

1 st choice		2 nd choice	
------------------------	--	------------------------	--

- ① Through conversation with parents or family members
- ② Through conversation with people around you such as friends or teacher in Korea
- ③ Through conversation with friends or acquaintances in my country or other countries
- ④ Through Korean government or support agencies
- ⑤ Through the media such as internet or books in Korea
- ⑥ Through the media such as internet or books in my country
- ⑦ Others _____

Q56. What is the most necessary help you need for your career path?

- ① Help related to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and training
- ② Help related to Korean language education
- ③ Getting a job quickly and earning money
- ④ Help related to school studies
- ⑤ Others _____

Q57. If you cant get a vocational training, which field of education do you want?

- ① Food, coffee, baking, Korean food, Chinese food, Western food
- ② Beauty, skin care, nail art
- ③ Computer OA, computer graphic, web design, illustration
- ④ Fashion, sewing
- ⑤ Car maintenance
- ⑥ Building construction, papering walls, plastering
- ⑦ Interior design
- ⑧ Landscaping, gardening
- ⑨ Designing machine
- ⑩ Jewelry craft
- ⑪ Hotel and tourism industry
- ⑫ Others _____

Q58. What do you want to do in the future?

Q59. Please choose the most appropriate answer that corresponds to your thought about your career path.

No.	Questions	Very Unlikely	Unlikely	Normal	Likely	Very Likely
1	I have a field of work which I want to work in the future	①	②	③	④	⑤
2	I have made a general decision about what my life would be like in the future	①	②	③	④	⑤
3	There is a specific area where I want to major in college	①	②	③	④	⑤
4	I need to choose my job according to my belief to live my own life	①	②	③	④	⑤
5	I like a certain field of work now and I have a clear reason for liking it	①	②	③	④	⑤
6	I think it will be hard to get a job that I want in Korea because I am a foreigner	①	②	③	④	⑤
7	Korea has a good environment to make my dream come true	①	②	③	④	⑤

VI. Social Cognition

Q60. This is a question about what you think about each of the items. Read and circle the number corresponding to your answers.

No.	Questions	Very Unlikely	Unlikely	Normal	Likely	Very Likely
1	I am interested in becoming a close friend with a child who is from a country(not Korea) that has a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	①	②	③	④	⑤
2	I am interested in becoming a close friend with a Korean child	①	②	③	④	⑤
3	I can willingly become a friend of the opposite sex with a person who is from a country(not Korea) that has a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	①	②	③	④	⑤
4	I can willingly become a friend of the opposite sex with a Korean person	①	②	③	④	⑤

Q61. How often have you been discriminated against in Korean society in the past six months because you came from a foreign country? (for the reasons such as cultural differences, language barriers and differences in appearance)

①	Never	<i>(Go to Q62)</i>							
②	A Little	Q61-1. How do you handle the situation when you are discriminated against in Korea because of the reasons listed above? Write down the numbers corresponding to the actions you have often taken.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1st choice</td> <td></td> <td>2nd choice</td> <td></td> </tr> </table>				1 st choice		2 nd choice	
1 st choice						2 nd choice			
③	Sometimes								
④	Often								

❶ Just holding back the feelings and urges to fight
 ❷ Tell the parents or other family members
 ❸ Tell the people around such as friends, teachers and acquaintances
 ❹ Complain to the government or related agencies
 ❺ Post it up on SNS or Internet
 ❻ Argue about the problem with the one who discriminated you
 ❼ Others _____

Q62. What is the biggest personal concern in your life lately? Please choose two of the biggest concerns and write down the numbers in order.

1 st choice		2 nd choice	
------------------------	--	------------------------	--

- ❶ Money problem(debt, poverty) ❷ Career problem(finding and changing jobs, going to school, military)
 ❸ Health problem(physical or mental) ❹ Conflicts between family members
 ❺ Love affairs (dating, marriage) ❻ Human relationships(betrayal, conflicts, harrassment, bullying)
 ❼ Loneliness ❽ School grades
 ❾ Others _____

Q63. Do you want to leave Korea in the near future and live in your homeland or other country?

①	No. I want to continue living in Korea (ePGo to Q64)					
②	Yes. I want to go back to my own country	Q63-1. What is the main reason that you want to leave Korea? Please choose two of the biggest reasons and write down the numbers in order.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1st choice</td> <td style="width: 50px;"></td> <td>2nd choice</td> <td style="width: 50px;"></td> </tr> </table>	1 st choice		2 nd choice	
1 st choice			2 nd choice			
③	Yes. I want to live in a different country that is not Korea or my homeland.					
④	I have no idea					

- ❶ because of Korean people's discrimination for the reason that I am not Korean
- ❷ because of legal and institutional sanction applied to me for the reason that I am not Korean
- ❸ because of the difficulties in communicating due to the difficulties in Korean
- ❹ it is hard to get used to Korean cultures due to the big difference
- ❺ there are many economical problems in Korean such as getting a job
- ❻ life in Korea is lonely
- ❼ to find a better environment than Korea to make my dream come true
- ❽ others _____

VII. Support/Aid

Q64. Do you know an institute where you can ask for help when you have a trouble?

- ① Yes (ePGo to Q64-1) ② No (ePGo to Q65)

Q64-1. (If your answer is 'Yes' in Q64) What kind of institute is it?

Name of the institute	
-----------------------	--

Q65. Do you know the institutes listed below? Have you ever had a experience of getting help from these places?

No.	Questions	Do you know?		Visiting experience?	
		Yes	No	Yes	No
1	Suwon Youth Counselling & Welfare Center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333)	①	②	①	②
2	Suwo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수원시 팔달구 통일로77번길 47-36)	①	②	①	②
3	Suwon Global Youth Dream Center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41번길 4)	①	②	①	②
4	Suwon Migrant Community Service Center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55)	①	②	①	②
5	Suwon Employment · Welfare Center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	①	②	①	②
6	Suwon Migrants Center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28-13)	①	②	①	②
7	Suwon Danuri Helpline (031-257-1841)	①	②	①	②
8	Community Center	①	②	①	②

Q66. Have you ever asked for help to the institutes listed above?

- ① Yes (Go to Q66-1) ② No (Go to Q66-2)

Q66-1. (If your answer is 'Yes' in Q66) How satisfying was the help of the supporting institute?

- ① Not satisfying at all ② Not very satisfying
③ Satisfying ④ Very satisfying

Q66-2. (If your answer is 'No' in Q66) What didn't you ask for help?

- ① I didn't know such institutes existed
② I know such institutes but do not know how to ask for help
③ I don't know what kind of help I can get from such institutes
④ I don't feel the need to ask for help
⑤ others _____

Q67. If we offer a program for you, where would you like it to be offered?

- ① School ② Youth related organization
③ Multi-cultural youth related institute
④ Religious institution such as church, catholic church or temple
⑤ It does not matter ⑥ Others _____

Q68. What do you wish for and need the most to adapt quickly to the life in Korea? Write down 2 choices.

1 st choice	2 nd choice

- ① Tuition support ② School lesson/major curriculum guidance
③ Korean language education by level ④ Support for medical expenses when sick
⑤ Counsel of trouble ⑥ Support for cultural activity(hobby)
⑦ Vocational skill training ⑧ 1:1 Mentoring
⑨ Career and aptitude guidance ⑩ Support for adaptation to Korean culture and society
⑪ There is nothing necessary ⑫ Others _____

Q69. Feel free to write whatever you desire in Korean society.

♣ Thank you very much for taking your time to participate in the survey ♣

3. 중국어 설문지

ID				
----	--	--	--	--

原市 中途入国青少年 生活实态 调查

您好！

水原市政研究院施行“水原市中途入国青少年生活实态调查”。

水原市政研究院通过分析中途入国青少年们在适应韩国生活的过程中经历的困难，了解安居和就业准备等需要的支援和需求，依此制定高效的政策方案，特计划了此次调查。

您作答的调查问卷将依据统计法第33条，第34条保密，只用于统计目的。您写下的个人信息根据调查周期，最长为6个月的内部保管之后交由专业机构销毁。另，您的个人信息未经您的同意不会提供给第三者。如调查有需要事实核对的情况，将通过您留下的联系方式去电话咨询。

感谢您百忙之中抽出时间来作答。

第33条(秘密的保障)

- ① 统计的作成过程中传播的内容，涉及到个人，法人，团体秘密的事项都应该受到保护。
② 为统计作成收集的个人，法人，团体的资料属于秘密资讯，不得用于统计以外的目的。

第34条(统计工作人员的义务)

统计工作者，曾经从事过统计职业的人员，还有从统计作成机关处获得统计业务全部或者部分业务委托的从业者以及过去从业者，不得将职务上知晓的事项用于业务以外的目的，也不得泄露给他人。

本人已充分知晓上述调查目的，同意个人信息收集及使用。

■ 调查机关：(财) 水原市政研究院

■ 咨询处：水原市政研究院 都市行政研究室 李永安 研究委员 (031) 220-8025

【 面 谈 员 记 录 栏 】

面谈员 姓名		<u>S V 确认</u>	
面谈时间	2017年 月 日 时	验证结果	○ ×

I 背景变因(一般事项)

问1. 填写您的性别?

- ① 男 ② 女

问2. 您的出生年份是?

				年
--	--	--	--	---

问3. 您来自哪个国家?

- ① 中国(汉族) ② 中国(朝鲜族) ③ 其他_____ (直接填写)

问4. 现在您的国籍是?

- ① 韩国 (or请填写 问5) ② 中国 (or请填写 问4-1)
③ 其他 _____ (直接填写) (or请填写 问4-1)

问4-1. (问4中 回答为②, ③时) 现在在准备国籍归化吗?

- ① 已经申请归化 ② 正在准备申请归化中 ③ 无申请计划

问4-2. 现在在准备取得永驻权吗?

- ① 已经申请永驻 ② 正在准备申请永驻 ③ 无申请计划

问4-3. 现在您的驻留资格是什么?

- ① F-1 ② F-2 ③ F-4 ④ F-5 ⑤ C-3 ⑥ 其他_____ (直接填写)

问5. 您什么时候来的韩国?

				年			月
--	--	--	--	---	--	--	---

问6. 您现在居住在哪里?

① 长安区	② 劝善区	③ 八达区	④ 灵通区	()市	()洞
-------	-------	-------	-------	------	------

问7. 入国前和谁一起生活?

- ① 祖父母 ② 亲戚 _____ (直接填写) ③ 其他 _____ (直接填写)

问8. 入国前, 和父母分开生活的时间有多久?

- ① 不足1月 ② 1个月以上 6个月以下 ③ 6个月以上 1年未滿
④ 1年以上 2年未滿 ⑤ 2年以上

问9. 初到韩国时候, 韩国水平如何?

- ① 完全无法沟通 ② 几乎不能沟通
③ 稍微能听懂 ④ 日常沟通无障碍

问10. 来韩国之前, 可否有做以下准备? (可重复勾选)

- ① 无特别准备
- ② 学习了韩语
- ③ 事先打听了在韩国入学需要的准备材料
- ④ 事先打听了韩国的社会与文化
- ⑤ 事先了解了在韩国可以从事的职业
- ⑥ 为在韩国就业, 学习了必要的技术
- ⑦ 其他 _____ (直接填写)

问11. 您过去是如何学习的韩语? 或者您现在是如何学习韩语? (可重复勾选)

- ① 自学
- ② 通过电视
- ③ 与周围人的交流
- ④ 参加大学里的韩语教育
- ⑤ 参加小区移住民中心等相关中心的韩国语课程
- ⑥ 学院学习
- ⑦ 观察父母如何运用韩语
- ⑧ 其他 _____ (直接填写)

问12. 您觉得您的韩语水平如何?

区分	完全不会	不太好	一般	比较好	非常好
说	①	②	③	④	⑤
写	①	②	③	④	⑤
读	①	②	③	④	⑤
听	①	②	③	④	⑤
整体	①	②	③	④	⑤

问13. 来韩国最大的理由是什么?

- ① 为了与父母同住
- ② 为了与除父母以外的亲戚同住
- ③ 为了在韩国学习
- ④ 为了在韩国就业挣钱
- ⑤ 在祖国无人照顾
- ⑥ 其他 _____ (直接填写)

问14. 您对来到韩国的原因里觉得最符合自己的是?

- ① 我自己不愿意, 但是父/母希望, 所以来到韩国
- ② 父/母虽然希望在祖国生活, 但是也很希望我来韩国
- ③ 我和父母都希望来韩国生活
- ④ 我和父母都不愿意在韩国生活, 但由于各种原因, 不得已来了韩国
- ⑤ 其他 _____ (直接填写)

问15. 来到韩国后的初始3个月, 是如何度过的?

- ① 一到韩国就入学了
- ② 用支援团体(外国人中心/宗教机关)
- ③ 在家
- ④ 和父母一起工作了
- ⑤ 就业挣钱了
- ⑥ 其他 _____ (直接填写)

问16. 韩国入国后初始3个月, 觉得生活中最困难的是什么方面? 写出前2位.

第 1 位	第 2 位

- ① 与新家庭的磨合和亲近
- ② 学校就学问题
- ③ 语言不通
- ④ 适应陌生环境和文化方面
- ⑤ 周围不友善的视线
- ⑥ 没有志趣相投的朋友感到孤独
- ⑦ 没有困难
- ⑧ 其他 _____ (直接填写)

II. 家庭背景

问17. 现在一起居住的家人共多少名？

_____名

问18. 您现在与谁一起生活？（可重复勾选）

- ① 生父 ② 生母 ③ 养父/继父 ④ 养母/继母
 ⑤ 爷爷 ⑥ 奶奶 ⑦ 外公 ⑧ 外婆
 ⑨ 亲兄弟(同父同母) ⑩ 同父异母兄弟
 ⑪ 同母异父兄弟 ⑫ 异父异母兄弟
 ⑬ 亲戚(姑姑, 叔叔等) ⑭ 独自居住 ⑮ 其他 _____(直接填写)

※ 请目前与父母分开居住的青少年作答.

问18-1. 在韩国与父母分开居住的时间有多久？

- ① 1月未满 ② 1个月以上 6个月未满 ③ 6个月以上 1年未满
 ④ 1年以上 2年未满 ⑤ 2年以上

问18-2. 请问与父母分开居住的原因是什么？

- ① 与父母不合 ② 与兄弟姐妹不合 ③ 经济上的困难
 ④ 因为学校和职场原因 ⑤ 父母回国
 ⑥ 其他 _____(直接填写)

问19. 现在一起居住的父母来自哪个国家？

父亲		母亲	
----	--	----	--

- ① 韩国 ② 中国(朝鲜族) ③ 中国(汉族) ④ 其他 _____(直接填写)

问19-1. 父亲的驻留资格是什么？

- ① 韩国 ② 归化者 ③ F-1 ④ F-2
 ⑤ F-4 ⑥ F-5 ⑦ C-3 ⑧ 其他 _____(直接填写)

问19-2. 母亲的驻留资格是什么？

- ① 韩国 ② 归化者 ③ F-1 ④ F-2
 ⑤ F-4 ⑥ F-5 ⑦ C-3 ⑧ 其他 _____(直接填写)

问20. 现在一起居住的父母年龄是？

父亲	_____岁	母亲	_____岁
----	--------	----	--------

问21. 现在一起居住的父母的最高学历是？（请在空框内填入对应的番号）

父亲		母亲	
----	--	----	--

- ① 无学历 ② 小学毕业 ③ 中学毕业 ④ 高中毕业
 ⑤ 专科毕业 ⑥ 本科毕业 ⑦ 硕士毕业 ⑧ 不清楚

问22. 现在一起居住的父母从事的职业是什么? (请在空框内填入对应的番号)

父亲		母亲	
① 建筑现场散工		② 制造业(工厂)职员	③ 销售业职员
④ 服务行业(饭店)员工		⑤ 农林渔业员工	⑥ <u>个体</u>
⑦ 无职业		⑧ 其他 _____ (直接填写)	

问23. 目前您的家庭条件(经济层面)如何?

- ① 非常困难 ② 比较困难 ③ 一般
④ 比较殷实 ⑤ 富裕

问24. 在家里,家人沟通主要使用的语言是?

- ① 只使用韩语 ② 大部分用韩语,小部分母语 ③ 韩语母语半半
④ 大部分母语,小部分韩语 ⑤ 只使用母语

问25. 现在跟家人的关系中,因为以下问题遇到的困难程度,请根据实际情况选择.

(没有新父母,新兄弟,新姐妹的情况请选择“无对应选项”)

序号	问 项	完全没有	不是	一般	是的	<u>非常严重</u>	无对应选项
1	因韩语沟通不顺对话困难	①	②	③	④	⑤	⑥
2	因生活习惯和文化差异很辛苦	①	②	③	④	⑤	⑥
3	因继父继母没有给予关心感到辛苦	①	②	③	④	⑤	⑥
4	因新兄弟,新姐妹的疏远感到辛苦	①	②	③	④	⑤	⑥
5	因家庭经济状况不好感到辛苦	①	②	③	④	⑤	⑥
6	因父母不睦感到辛苦	①	②	③	④	⑤	⑥

问26. 以下是有关与新父母关系的选项,请根据实际情况选择.

(没有新父母,新兄弟,新姐妹的情况请选择“无对应选项”)

序号	问 项	完全没有	不是	一般	是的	<u>非常严重</u>	无对应选项
1	与新父母在一起十分别扭紧张	①	②	③	④	⑤	⑥
2	感觉与新父母无法沟通	①	②	③	④	⑤	⑥
3	常与新父母有意见冲突	①	②	③	④	⑤	⑥
4	新父母对我毫不在意	①	②	③	④	⑤	⑥
5	新父母不喜欢我	①	②	③	④	⑤	⑥
6	因为厌家,时常有离家出走的冲动	①	②	③	④	⑤	⑥

III. 心理·社会适应

问27. 最近遇到困难的时候, 有倾诉的对象吗?

- ① 有 (※请填写 问27-1) ② 无 (※请填写 问28)

问27-1. (问27里 选择 ‘有’ 的情况) 有困难的时候, 主要会对谁倾诉?

- ① 父亲 ② 母亲 ③ 兄弟姐妹 ④ 朋友
⑤ 学校老师 ⑥ 职场上司 ⑦ 职场同事 ⑧ 青少年相关中心
⑨ 其他 _____ (直接填写)

问27-2. 遇到困难的时候, 有可以寻求帮助的韩国人吗?

- ① 有 ② 无

问28. 对于您最近的生活, 选择最符合的选项.

序号	问 项	完全不是	不是	一般	是的	非常认同
1	我热爱生活	①	②	③	④	⑤
2	我没有什么可担心的	①	②	③	④	⑤
3	我觉得我的生活很幸福	①	②	③	④	⑤

问29. 以下选项里, 选择最符合自己状态的选项.

序号	问 项	完全不是	不是	一般	是的	非常认同
1	朋友们愿意倾听我的想法	①	②	③	④	⑤
2	我困难的时候有帮助我的朋友	①	②	③	④	⑤
3	朋友们都喜欢我	①	②	③	④	⑤
4	家人在我困难的时候积极帮助我	①	②	③	④	⑤
5	家人愿意倾听我的想法	①	②	③	④	⑤
6	家人很关心我	①	②	③	④	⑤

问30. 仔细阅读下面选项, 选择最符合自己的选项.

序号	问 项	完全没有	不是	一般	是的	非常认同
1	我认为我是一个有价值的人	①	②	③	④	⑤
2	我认为我具备很多良好的品质	①	②	③	④	⑤
3	大体上我认为自己是个失败的存在	①	②	③	④	⑤
4	遇到困难的时候, 我会寻找原因, 寻求解决办法	①	②	③	④	⑤
5	我对自己保持积极态度	①	②	③	④	⑤
6	整体上我对自己比较满意	①	②	③	④	⑤
7	我不时觉得自己是个无用的人	①	②	③	④	⑤

问31. 以下是关于心理压力的选项. 请根据自己实际情况选择.

序号	问 项	完全没有	不是	一般	是的	非常严重
1	别人拿祖国文化开玩笑的时候, 我很压抑	①	②	③	④	⑤
2	我对在韩国生活这件事很有压力	①	②	③	④	⑤
3	我因为韩语不好受到很大压力	①	②	③	④	⑤
4	周围人让我像韩国人一样行动, 让我很有压力	①	②	③	④	⑤
5	有时候因为母亲(父亲)是外国人受到嘲笑	①	②	③	④	⑤
6	有时候因为母亲(父亲)是外国人收到排挤	①	②	③	④	⑤
7	附近的人们总和我家过不去	①	②	③	④	⑤
8	韩国人总跟我家过不去	①	②	③	④	⑤

问32. 阅读下列文项, 选择与自己想法最接近的.

序号	问 项	完全没有	不是	一般	是的	非常认同
1	我很喜欢韩国文化(音乐, 电影, 美食, 衣服等)	①	②	③	④	⑤
2	我很骄傲我生活在韩国	①	②	③	④	⑤
3	我以后想一直生活在韩国	①	②	③	④	⑤
4	我想在韩国上大学和就业	①	②	③	④	⑤
5	学习韩国文化对我而言很重要	①	②	③	④	⑤
6	我的韩语比母语更好	①	②	③	④	⑤
7	我在家主要说韩语	①	②	③	④	⑤
8	比起祖国人民, 我感觉和韩国人更契合.	①	②	③	④	⑤
9	我觉得韩国人比祖国人民更了解我.	①	②	③	④	⑤
10	我觉得跟韩国人传递感情的时候比祖国人民更容易	①	②	③	④	⑤
11	我跟韩国人在一起的时候比跟祖国人们在一起更自在.	①	②	③	④	⑤
12	我的朋友大部分都是韩国人.	①	②	③	④	⑤

问33. 以下是关于韩国文化适应的文项. 请选择最能反映自己想法的.

序号	问 项	完全没有	不是	一般	是的	非常认同
1	我主要听祖国的音乐.	①	②	③	④	⑤
2	我最亲近的人祖国人.	①	②	③	④	⑤
3	我喜欢去参加祖国人的聚会.	①	②	③	④	⑤
4	我认为比起韩国人, 祖国人间能够平等对待.	①	②	③	④	⑤
5	我跟祖国人在一起的时候比跟韩国人在一起更自在.	①	②	③	④	⑤
6	我能理解用韩语和母语表达的笑话.	①	②	③	④	⑤
7	我认为我的母语是韩语.	①	②	③	④	⑤
8	我有韩国朋友和祖国朋友.	①	②	③	④	⑤
9	我觉得我受到祖国人和韩国人的尊敬.	①	②	③	④	⑤
10	我觉得韩国人和祖国人都很亲近.	①	②	③	④	⑤
11	我和祖国人, 韩国人交往的时候感觉困难.	①	②	③	④	⑤
12	我觉得不光是韩国人, 祖国人也不怎么喜欢我.	①	②	③	④	⑤
13	我曾经觉得祖国人和韩国人都不会容纳我.	①	②	③	④	⑤
14	我很难信赖祖国人和韩国人.	①	②	③	④	⑤

问44. (回答问38的时候) 不去学校的时间, 主要做什么打发时间?

- ① 在家里看电视或者独自一人 ② 学院学习, 为自考等学校入学做准备
 ③ 学院学习, 为就业做准备 ④ 打小时工
 ⑤ 进入职场工作 ⑥ 和朋友一起
 ⑦ 其他 _____ (直接填写)

问45. 将来有进学计划吗?

- ① 有 (or请填写 问45-1) ② 没有 (or请填写 问45-5)

问45-1. (问45题回答“有”的时候) 为了进学, 需要提供下列中哪些帮助?

- ① 进学所需家乡学校的相关材料 ② 主要科目补充
 ③ 韩国语教育 ④ 韩国文化适应教育
 ⑤ 经济上的支援 ⑥ 其他 _____ (直接填写)

问45-2. 计划去哪个学校进学?

- ① 中学 ② 文科高中 ③ 职业高中
 ④ 代案学校(只有外国人的学校) ⑤ 其他 _____ (直接填写)

问45-3. 希望学业完成到哪一步?

- ① 小学 (or请填写 问46) ② 中学 (or请填写 问46)
 ③ 高中 (or请填写 问46) ④ 大学 (or请填写 问45-4)
 ⑤ 大学院 (or请填写 问45-4)

问45-4. (问45-3题回答 ④, ⑤的时候) 进入大学学习的话, 想去哪里的大学?

- ① 韩国 ② 中国 ③ 现在韩国大学学习中
 ④ 其他 _____ (直接填写)

问45-5. (问45题回答“不是”的时候) 不去学校学习的话, 打算做什么事情?

- ① 没有想过 ② 想参加自考
 ③ 想出去工作 ④ 打工
 ⑤ 想接受职业训练教育 ⑥ 其他 _____ (直接填写)

问46. 目前关系亲近的朋友有几名?

_____ 名

问47. 比较合得来的朋友主要来自哪个国家?

- ① 韩国 ② 中国(汉族) ③ 中国(朝鲜族) ④ 其他 _____ (直接填写)

问48. 对于现在参加的教育项目的满意程度?

- ① 非常不满意 ② 不满意 ③ 普通 ④ 满意 ⑤ 很满意

问49. 您希望您现在学习的地方能够提供什么样的项目? 请在下列选项中选择. (可重复勾选)

- ① 基础韩国语教育 ② 韩国语高级深化课程
 ③ 为进学准备的主要科目指导 ④ 为更好适应学校生活的准备(适应)教育
 ⑤ 双语教育 ⑥ 特长教育(电脑, 美术, 音乐, 跆拳道等)
 ⑦ 职业·技术教育 ⑧ 文化素养教育(韩国文化理解, 适应)
 ⑨ 人性心理教育(高谈与宗教活动等) ⑩ 其他 _____ (直接填写)

问50. 现在参与的项目结束后回家, 主要做什么打发时间?

- ① 在家看电视或者独自一人
② 复习已学的知识
③ 跟朋友一起
④ 去网吧或者娱乐室
⑤ 去学院
⑥ 参加其他项目活动
⑦ 其他 _____ (直接填写)

问51. 正在学院学习或者曾经在学院学习过, 学的是什么呢?

- ① 英语
② 体育(跆拳道, 游泳等)
③ 乐器(钢琴, 小提琴等)
④ 美术
⑤ 没有想学的东西
⑥ 其他 _____ (直接填写)

问52. 将来如果有想学的东西, 会是什么?

- ① 专业学习(韩国语, 数学, 科学)
② 电脑
③ 英语
④ 体育(跆拳道, 游泳等)
⑤ 乐器(钢琴, 小提琴等)
⑥ 美术
⑦ 没有想学的东西
⑧ 其他 _____ (直接填写)

V. 前途/進学

问53. 将来会继续在韩国生活么?

- ① 是 (☑请填写 问53-1)
② 不是 (☑请填写 问53-2)
③ 目前还没有决定 (☑请填写 问53-2)

问53-1. (问53题回答“是”的时候) 决定在韩国继续生活的理由是什么?

_____ (请具体填写)

问53-2. (问53题回答“不是”和“目前还没有决定”的时候) 不能决定在韩国继续生活的理由是什么?

_____ (请具体填写)

问54. 对于以后的发展有什么想法?(可重复勾选)

- ① 计划在韩国接受进一步的教育
② 计划去其他国家留学
③ 计划准备自考
④ 计划就业
⑤ 计划就业和学业并行
⑥ 继续学业, 不会正式就业, 闲时打短工或零工, 寻找前进方向
⑦ 其他 _____ (直接填写)
⑧ 对于将来没有计划 (☑请填写问54-1)

问54-1. (问54题回答⑧的时候) 对于将来没有计划的理由是什么?(可重复勾选)

- ① 因为信息不足不知该做什么准备
② 韩国语不好
③ 没有意识到计划的必要性
④ 心理和精神上的负担
⑤ 驻留资格的不安定感
⑥ 其他 _____ (直接填写)

问55. 对于前途选择或者未来计划的烦恼，主要是通过什么方式排解？请选择经常使用的2种方式.

第一位		第二位	
-----	--	-----	--

- ① 通过与父母或者家庭成员的对话来排解
- ② 通过和居住在韩国的朋友或者老师等周围人的沟通/对话来排解
- ③ 通过和自己同一国度的朋友或者和其他国家的朋友熟人进行沟通/对话来排解
- ④ 通过韩国的政府或者支援机关来排解
- ⑤ 通过韩国的网络或者书籍等媒介来排解
- ⑥ 通过家乡等非韩国媒介的网络或者书籍等媒介来排解
- ⑦ 其他 _____ (直接填写)

问56. 为了自身想要的前途，目前最需要的帮助是什么？

- ① 职业技术教育训练相关的帮助
- ② 韩国语教育相关的帮助
- ③ 尽快就业挣钱
- ④ 学校学业相关的帮助
- ⑤ 其他 _____ (直接填写)

问57. 如果可以接受到职业技术训练的教育的话，希望接受哪个行业的教育？

- ① 饮食, 咖啡, 西点, 韩餐, 中餐, 西餐等
- ② 美容, 皮肤管理, 美甲
- ③ 电脑办公自动化, 电脑制图, 网页设计, 插图
- ④ 时尚, 裁剪
- ⑤ 汽车维修
- ⑥ 建筑施工, 裱糊, 装修
- ⑦ 室内装修
- ⑧ 园林, 花卉
- ⑨ 机械设计
- ⑩ 贵金属工艺
- ⑪ 酒店与管理
- ⑫ 其他 _____ (直接填写)

问58. 以后您想从事什么工作？

_____ (直接填写)

问59. 于自身的前途的思考 请按照自己的想法选择.

序号	问 项	完全 没有	没有	一般	是的	非常 赞成
1	有将来一定要从事的职业领域	①	②	③	④	⑤
2	对于将来的人生已经定好了大体的方向	①	②	③	④	⑤
3	进入大学有具体的想要学习的专业	①	②	③	④	⑤
4	为了自己以后的人生会按照自己的信念决定自己的职业	①	②	③	④	⑤
5	明确自己现在为何喜欢某个领域的理由	①	②	③	④	⑤
6	感觉作为外国人在韩国就业会非常艰辛	①	②	③	④	⑤
7	韩国具备实现我将来愿望的好环境	①	②	③	④	⑤

VI. 社会认知

问60. 您如何看待下列问题, 请根据您的想法选择.

序号	问 项	完全 没有	不是	不是 一般	是的	非常 赞成
1	我愿意和文化背景不同的外国(韩国除外)青少年成为亲近的朋友	①	②	③	④	⑤
2	我愿意和韩国的青少年成为亲近的朋友	①	②	③	④	⑤
3	我可以和文化背景不同的他国异性交往	①	②	③	④	⑤
4	我可以和韩国的异性交往	①	②	③	④	⑤

问61. 由于来自外国(文化差异, 语言障碍, 外貌差异等)在韩国遭受到的差别待遇, 最近6个月内发生频率是?

① 从来没有过	(※请填写 问62)							
② 稍微有点	问61-1. 在韩国由于上述理由而遭受到差别待遇的时候, 您是怎么对应的? 在下列选项中选出2项您经常采取的行动.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 style="width: 50px;">第一位</td> <td style="width: 50px;"></td> <td style="width: 50px;">第二位</td> <td style="width: 50px;"></td> </tr> </table>				第一位		第二位	
第一位						第二位		
③ 偶尔有								
④ 经常发生								

- ① 忍着
- ② 告诉父母或者家庭其他成员
- ③ 告诉朋友, 老师或者周围认识的人
- ④ 政府或者有关机关请求民愿调解
- ⑤ 上传到SNS等互联网上
- ⑥ 追究对方
- ⑦ 其他 _____ (直接填写)

问62. 最近生活中最大的个人烦恼是什么? 在下列时候中按照顺序选择2项

第一位		第二位	
-----	--	-----	--

- | | |
|---|--|
| ① 钱的问题(财务, 困难等)
③ 健康问题(身体的或者精神的)
⑤ 异性问题(恋爱, 结婚等)
⑦ 孤独
⑨ 其他 _____ (直接填写) | ② 前途问题(就职, 职场变动, 进学, 军队等)
④ 家庭不合
⑥ 人际关系(背叛, 矛盾, 欺凌, 排斥等)
⑧ 学校成绩 |
|---|--|

问63. 在不远的将来, 您有离开韩国, 回到祖国或者去其他国家生活的想法么?

①	没有, 想继续在韩国生活	(or请填写 问64)			
②	是, 想回祖国	问63-1. 您不想在韩国生活的主要理由是什么? 下列理由中选择最主要的2项。			
		第一位		第二位	
③	是, 不想在韩国和祖国, 想去其他国家生活	① 因为不是韩国人而遭受到韩国人的差别对待 ② 因为不是韩国人, 韩国的法律, 制度等制裁原因 ③ 韩国语太难导致沟通存在很多困难 ④ 韩国文化的不同, 难以适应 ⑤ 在韩国有太多求职等经济上的困难 ⑥ 韩国生活很孤单 ⑦ 为了寻找与韩国相比更能实现我梦想的环境 ⑧ 其他 _____ (直接填写)			
	④	不知道			

Ⅶ. 支援

问64. 有困难的时候, 知道哪里可以寻求到帮助么?

- ① 知道 (or请填写 问64-1) ② 不知道 (or请填写 问65)

问64-1. (问64题回答“是”的时候) 什么样的机关?

机关名	
-----	--

问65. 知道下列的机关么? 曾经使用过下列机关么?

序号	问项	知道吗?		有使用的经历吗?	
		知道	不知道	有	没有
1	水原市青少年高谈福利中心(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333)	①	②	①	②
2	水原市多文化家庭支援中心(수원시 팔달구 동말로77번길 47-36)	①	②	①	②
3	水原市国际青少年梦想中心(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41번길 4)	①	②	①	②
4	水原市外国人福利中心(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55)	①	②	①	②
5	水原雇佣·福利中心(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	①	②	①	②
6	水原移住民中心(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28-13)	①	②	①	②
7	水原다누리呼叫中心(031-257-1841)	①	②	①	②
8	洞居民中心	①	②	①	②

问66. 有向上述支援机关申请过帮助吗?

- ① 有 (or请填写 问66-1) ② 没有 (or请填写 问66-2)

问66-1. (问66题回答“有”的时候) 对支援机关提供帮助的满意程度如何?

- ① 一点也不满意 ② 不满意
③ 一定程度上满意 ④ 非常满意

问66-2. (问66题回答“没有”的时候)为什么没有寻求帮助?

- ① 不知道有这样的机关存在
- ② 知道有这样的机关,但是不知道如何向这些机关申请帮助
- ③ 不知道这些机关能提供什么样的帮助
- ④ 没有感觉到需要帮助
- ⑤ 其他 _____(直接填写)

问67. 为您提供项目的时候,希望在什么样的场合提供比较好?

- ① 学校
- ② 一般青少年妇联机关
- ③ 多文化青少年妇联的专门机关
- ④ 教会,圣堂,庙宇等宗教机关
- ⑤ 无所谓在哪里
- ⑥ 其他 _____(直接填写)

问68. 为了尽快的适应韩国生活,你认为最需要,最希望的是什么?选择2项填写.

第一位		第二位	
-----	--	-----	--

- ① 学费支援
- ② 学校课程/主要科目的指导
- ③ 根据水平授课的韩国语教育
- ④ 生病的时候治疗费支援
- ⑤ 烦恼商谈
- ⑥ 文化活动(兴趣活动)支援
- ⑦ 职业技术训练
- ⑧ 1:1 指导
- ⑨ 前途与适应性指导
- ⑩ 韩国社会与文化适应的支援
- ⑪ 不需要
- ⑫ 其他 _____(直接填写)

问69. 最后,对韩国社会有什么期望,请畅所欲言.

♣ 诚挚感谢您花费宝贵时间作答此调查问卷 ♣

Abstract

The Study on the Living Conditions of Immigrated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Suwon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resent situation of immigrated children and arrange practical support measures and policies necessary for them. For this aim, the questionnaire survey on home environment, psychological and social adjustment, school experience, career and school entrance, social awareness and support, etc. which targeted 161 immigrant youths residing in Suwon City was conducted. The collected measurement index can be helpful in organizing the multicultural strategy for immigrated adolescents and be utilized as the basic data in various fields such as academic research activities. In addition, this study tried to have a more in-depth approach by carrying out focus group interviews—one form of qualitative study method. The following are the major study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immigrated adolescents have been found to experience a number of difficulties in the initial settlement stage. Since the percentage of those who had stayed home without engaging in any particular activity during the initial stage ever since immigrating to Korea was 47.2%, their situation of obtaining the information necessary for adjusting to Korea had limitations. The quantitative and the qualitative expansion of the initial settlement program is required since such an instability during the initial settlement stage can bring about skeptical thoughts about the life in Korea and may lead to unpredictable delinquencies in the future.

Second, the immigrated youths were aware of the importance of the Korean language ability and the ability was the key factor for them in deciding career or in seeking employment. Approximately 36% could not communicate in Korean during their initial

settlement stage and a high percentage of them stated that their Korean language ability is normal or poor. Educational support policy and policy arrangement have been discussed since poor Korean language communication ability leads to low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corresponding social issues may occur.

Third, a number of the immigrated adolescents did not have a particular goal or sense of career. It has been found that the information regarding occupation and career setting is scarce and there are hardly any opportunities to have a job experience. Thus, the diversity of the operation of programs such as career education, leisure activities, job skill training, etc. is demanded for the self-reliance of the youths.

Fourth, the continuous psychological support for the immigrated adolescents who have spent a long time away from their parents is needed. In particular, 64% responded that they have nobody to ask for help whenever they experience hardships. The measures to arrange the social support system in which the adolescents can receive assistance from their family in adjusting to the life in Korea are necessary.

The results and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in establishing the support measures and the policy foundation for the immigrated adolescents in the future. The public awareness toward multiculturalism and the social differences of immigrated adolescents also has to be improved.

Keywords: Immigrated Adolescents, Immigration Background of Adolescents, Multiculturalism Policy, Adjustment to the Korean Society, Focus Group Interview(FGI)

| 저자 약력 |

이영안

행정학박사

수원시정연구원 도시행정연구실 연구위원(현)

E-mail : yslee@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수원시 인권친화적 정책 실현을 위한 인권영향평가 연구」 (2017,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연구(2016~2020)」 (2015, 수원시정연구원)

한연주

사회복지학박사 수료

수원시정연구원 도시행정연구실 연구원(현)

E-mail : joanna1118@suwon.re.kr

이현승

행정학석사

수원시정연구원 도시행정연구실 과제연구원

E-mail : grigrim7@suwon.re.kr